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 ~4 팩스 : 02-586-8823 E-mail : korea@kira.or.kr

<http://www.kira.or.kr>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31 / March / 2005

0503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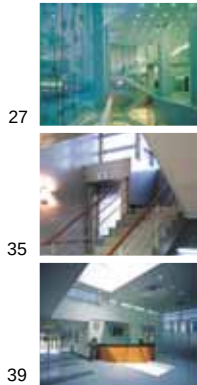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건축사 2005 / 03



포토리 : SK Ttle.com 050319

Contents



27

35

39

건축사

Korean Architect

차 례 2005 03 431호

취임사	공지와 희망을 주는 힘있는 협회	이철호	14
칼럼	독도 집짓기 운동을 시작하며	장양순	16
건축만평		유원재	19
시론	진부(陳腐)를 논함	윤시덕	20
회원작품	SK Telecom 대전사옥	이의구 · 이종건	22
	중곡3동 사무소	조민석 · 김상기	30
	LG화학 오창 테크노파크 고객안내 센터	이강우	36
계획작품	경북대학 남양주 캠퍼스	김광섭	40
작품노트	용소정(龍沼亭)	김정관	44
건축기행	하늘로 통하는 길 티베트	장현석	50
기고	미합중국의 건설 및 건축물의 검사관 제도	이종엽	56
연재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 - 09(완)	최재석	62
건축마당	협회소식		76
	건축계소식		79
	해외잡지동향		84
	현상설계		88
	보고서		100
	통 계		104

발행인 이철호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137-857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 / 제이아트 (02)2269-7619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88



92



94

Korean Architect

Vol. 431
March 2005

Inaugural Address

A Powerful Institute that Presents Pride and Hope Lee Chul-Ho 14

Column

On Commencement of House-Building Movement in Dokdo Chang Yang-Soon 16

Cartoon

Yoo Won-Jai 19

Focus

On Banality Yoon Si-Duk 20

Works

SKT. Office Tower in Dae Jeon Lee Eui-Koo & Lee Jong-Geon 22

Junggok 3dong Office Cho Min-Suk & Kim Sang-Gi 30

LG Chem Ochang Techno Pakr Information Center Lee Kang-Woo 36

Process works

KyungBok College NamYangju Campus Kim Kwang-Sup 40

Design note

Yongsojeong Residence Kim Jeong-Gwan 44

Architecture Travel

Tibet - The Path to Heaven Chang Hyon-Seok 50

Feature

The US's Examiner System on Construction and Buildings Lee Jong-Yeop 56

Serial

Dutch Modern Housings Choi Jae-Suk 62

Architects' Plaza

Kira news 76

Archi-Net 79

Overseas Journal 84

Competition 88

Report 100

Statistics 104

Publisher Lee Chul-Ho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art)

취임사 | Inaugural Address

이철호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Lee Chul-Ho

공지와 희망을 주는 힘있는 협회

A Powerful Institute that Presents Pride and Hope



먼저, 이 지면을 빌어 제가 협회장이 되기까지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건축사의 생존권 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하에 있습니다. 보수대가기준 폐지, 건설업자들의 설계검업 추진과 같은 건축사업역의 침범으로 우리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시장개방 문제가 바로 문턱에 와 있으며, 무엇보다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한 우리 건축사의 생존권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도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기도 합니다. 이들 과제는 우리 건축사들의 지혜와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건축사의 땀과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과 열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머뭇거리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뒤쳐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냉철히 인식해야 합니다.

반드시 극복하여 힘있는 강력한 협회를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축사의 위상과 권익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상황에도 희망을 보게 하는 여러 건축사들의 노력과 그동안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 온 우리 건축사들의 저력을 믿으며, 서로 화합하고 힘을 한데 모으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산적한 현안 등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협회와 건축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저의 모든 노력을 다 바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2년 동안 『건축사에게 공지와 희망을 주는, 힘 있는 협회』에 역점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총력을 다 하여 목표하는 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협회 내부를 화합하는 협회로 변화시켜 외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나갈 수 있는 강한 협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건축사법을 비롯한 건축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 업역의 환원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보수대가 현실화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여 실질적인 보수대가 상향 평준화되도록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회원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무한한 책임요구, 건축주의 횡포 등 회원 고충에 대해서는 전체 건축사에 대한 문제로 보고 이를 협회 차원에서 엄정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외부집단들의 건축사 업역 침해 및 이에 동조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회원과 단합된 힘으로 물리쳐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국제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제들은 공론을 모아가며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으로 차분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협회와 건축사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는 구심점이 되고자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집행부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에 부응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기회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위기마저도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저력이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물론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힘이 하나가 되어 뭉칠 때 그 실현이 더 빨리 앞당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때로는 따가운 질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힘을 합하여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 새집행부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ㄹ

독도 집짓기 운동을 시작하며

On Commencement of House-Building Movement in Dokdo

3.1절과 함께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이 현의회에 상정되면서 TV에 비치는 독도를 보게 되는 빈도가 잦아졌다. 처음에는 무심하였으나 계속 나타나는 영상을 통하여 그 안에 건축된 경비대의 막사 등 건물들이 너무나 독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괴리되어 있음을 안타까워하였다. 아마도 우리 회원들이라면 누구나 같은 감정을 느꼈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회원전체의 뜻이 모아진 것일까, 본 협회의 이사회는 조례 통과 하루 전 독도 집짓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결하고 추후 운동본부 발족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필자의 독도에 대한 것은 맥아더 라인, 평화선 등으로 학교에서 배웠으며, 20여 년 전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가 공동어로구역에 포함됨으로 항간에는 독도를 팔아먹었느니 하는 낭설이 퍼졌을 때, 홀연히 나타난 가수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 땅'이란 유행가로 이어진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백리'로 시작하는 이 가사는 위치, 기온, 강수량 등 자연환경에서부터 신라,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적 사실까지 독도의 모든 것을 압축하여 담아 놓은 것으로써 국민가요가 되었으며 학생들에게는 역사교육 자료가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서기 512년) 이사부가 하슬라(강릉)의 군주로 재임하면서 사자허수아비를 만들어 협박하는 전술로 이를 복속시킨 이후 계속 우리의 영토로 변함이 없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조선령임을 막부로부터 확인받은 안용복, 울릉도 검찰관 이규원, 1906년 초임 울릉군수 심흥택이 독도를 지켰으며, 홍재현 가문 3대에 이르는 독도사랑은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의 야욕을 독도수비대로 격퇴시킨 신화로 내려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선열들의 가없는 사랑으로 오늘날의 독도가 있음은 대체로 알고 있으나 독도의 자연이나 자원 그리고 설화 등에 대하여는 무지한 면이 많은 것 같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큰섬 2개와 33개의 부속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면적은 17,600여평이다. 이곳은 북한한류와 쓰시마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 명태, 꽂치, 오징어, 상어 등의 보고이며, 특히 오징어는 인근 대화퇴 어장까지 합치면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한다. 그런가 하면 유자망을 이용한 가오리, 광어가 잡히고 홍게와 새우는 통발어선에 제격인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도는 어장만이 아니라 지하자원으로서도 매력적인 곳이다. 즉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는데, 이는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 된 상태로 천연가스의 수습배에 해당하는 양을 갖고 있으며, 석유자원이 묻혀있다는 지시자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못하여 채굴이 쉽지 않으나 에너지 반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장래 한국의 국부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게 하는 자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난파당한 조난어부 셋이 이곳에 당도하자 할아버지가 나타나 '먹을 것은 물론 물도 없는 곳이라고 아무것도 줄게 없다' 했으나 계속 구걸하자, 한번 먹으면 100일을 건널 수 있는 사과모양의 과일을 주고 울릉도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아름다운 전설 등이 전해 오기도 하는 곳이다.

그 동안 독도에 쏟아 부은 사랑들은 여러 계층에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독도사랑회, 독도가꾸기모임, 독도연구보전협회, 독도해양수산연구회 등 10여개의 모임이 결성되어 활동 중에 있고 독도에 대한 노래도 5곡이나 된다. 이렇게 직업과 취향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독도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협회의 독도집짓기운동은 독도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어울리는 사업이라 사료된다. 이제 이를 위한 목적, 기간, 체제 및 조직, 자금소요 산정과 확보 등 예산계획,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법률적 문제, 설계에서 완공까지의 제반사항과 과정 등은 향후 발족될 독도집짓기운동본부에서 세밀히 작성하여 실천할 것이나 이에 앞서 몇 가지 원론적인 것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운동의 대상을 우리협회만으로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관하되 학회와 건축가협회까지 범위를 넓힐 것인가 또는 그 이상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건축의 범위이다. 독도는 현재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 336호이다. 그러나 문화재관리청은 일반인의 관광을 인원수만 제한할 뿐 자유롭게 허용할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현재 독도 경비 등을 위하여 건축된 기존 건축물과 주택에 대하여 이를 독도의 경관에 맞게 다시 설계할 것인지, 관광객들을 위한 휴게 내지 전망시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건축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작품은 국제현상을 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건물과 신축건물 모두가 가능하다면, 동도와 서도 중 민간주택이 있는 서도부분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지배로나 한국의 영토임은 명명백백하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이익을 쫓아가고 국력이 강한 곳으로 힘이 쏠리게 되어 있다. 현재도 미국 등 2차대전 전승국들은 당연히 우리 손을 들어주어야함에도 중립의 위치에 서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 CIA 보고서에 영향을 받는다는데 그조차도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없다는 매스컴들의 보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독도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세계의 건축가들과 건축을 전공하는 젊은이들에게 알리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현상금도 많이 걸고 UIA나 ARCASIA를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가수, 해양수산학자, 사진가 등 전공과 직업에 따라 또한 일반국민들은 그들대로 사랑으로 독도를 지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부여한 건축사로서 모두의 지혜를 모아 독도와 함께할 시리도록 아름다운 건축을 창조하여야 한다.

돌아오는 4월 4일 독도를 방문하는 한국 시인 100명을 대표하여 지은 1행시는 독도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독도 바위를 깨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우리는 외친다.

독도의 건축에 한국인의 혼을 담는다. ㄸ

진부(陳腐)를 논함

On Banality

2005년 2월 24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의 오후는 뜨거웠다. 우리협회 회장 선거의 개표는 이미 끝났고, 감사의 개표 후 예정된 그 발표를 기다리는 우리 대의원들의 표정은 때맞추어 봄 소풍 온 초등학교 학생들 모양 즐거워 보였다. 이 절대 절명의 긴박함 속에 그들이 어찌 웃음으로 보이고 있을까. 인동의 세월에서 인고하며 봄을 기다렸으되 결국 그 봄이 왔음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26대 우리협회의 회장을 400여명의 대의원의 손으로 점지하였다. 그즈음 노무현 대통령은 제37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 화해와 포용이다'라며, 또 '나와 뜻이 다를 때에는 대화와 타협으로 뜻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1976년 11월 30일 제13회 수출의 날 행사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누가 우릴 못사는 민족이라 했습니까'라며 분연히 수출 100억불 달성을 선포하였고, 여기 참석한 모두가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춘궁기며 초근목피로 부항 들어 자조하던 우리 민족이 그 대업을 이루었던 것이다. 2003년 육군사관학교 김총배 교장은 1964년의 국민소득 100불을 성취를 놓고 '이 100달러를 위해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46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생도들에게 편지를 했다. 그 전의 우리 국민소득은 120여 유엔 등록국 중 꼴찌인 인도보다 하나 위였단다. 우리는 빗바랜 잠방이에 해소하여 해쓷해진 얼굴로 우리 땅을 일군 그 조상들의 후예들이다. 이 조상을 그 누가 경시 하는가.

1965년 10월 우리 협회가 건축사의 응지를 품고 창립하였고 그로부터 40년째이다. 인생에서 미혹 되지 않는다는 불혹지년이다. 전문직 종사자인 건축사가 사회적 홀대를 감수해야 함은 세대의 구분 없이 거울 속으로 보는 자화상일 수 있다. 혹시 속이 빈 풍요를 누리지 않았나 생각하게 한다. 그나마 그 간의 어려움을 용케도 잘 견디며 이 시점의 자리 매김을 한 게 우리 조상과 선배들의 공이리라. 그간 우리에게 모두 부끄러울 수도 있는 과거도 있겠지만 건너지 않을 수 없는 강이었다. 탐욕과 선행이 공존하는 게 우리 인생의 이치이고 우리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울트라를 원하는 신세대와 이에 저항하는 묵은 세대가 갈등하며 공존하고 있다. 적절한 발효의 묵은지라 불리우는 묵은 김치가 영양가가 더 한다고 하지만 한편 패스트푸드에 길든 신세대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도 묵은 김치 음식을 꽤 맛있게 먹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적절한 발효도 신세대의 구미를 자극함이라. 그러함에도 한편 이들은 꾸준히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이분론법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있다.

적절한 발효는 우리에게 유익하나 지나치면 전부를 상하게 한다. 또 호흡이 끊기면 그것도 죽음을 의미한다. 해수면 보다 420여 미터가 낮은 사해에도 쉬지 않고 물은 공급 되나 더 흐르지 못하고, 썩지는 아니하나 염분에 의해 생명이 부지하지 못한다. 그에 인접한 갈릴리호는 물의 듦과 남이 있어 생명을 품고 있다.

우리 협회원의 약30퍼센트가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다. 이들이 고루하고 진부하다고 탓할 수는 있으나 한편, 같은 동아리라 여기며 상생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그 선배가 걸어왔던 길 위에 동역자로 우리 함께 서 있다. 이제 불혹에서 지천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하늘의 이치를 알라 함이란다. 우리의 소명에 깃발을 걸고 정진해야 한다. 깃발은 바람이 없으면 미동하지 않고 역동성을 잃는다. 깃발은 바람에 신바람 나게 펄럭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인 시절이 종진을 지나 선진을 향하고 있다. 이 바탕에 초석이 되었던 값진 교훈들이 바탕 그림으로 수놓아져야 한다. 우리 협회의 변란들이 밑거름이 되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게 하고, 상생의 논리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 간에 겪어야 했던 고통의 반향이 성숙의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본다.

독일의 슈피겔지에서 국가별 '국민 행복감' 조사를 한 결과 자연 재해로 늘 시달리며 국민총생산의 성장속도가 인구증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세계 3대 빈국의 하나인 방글라데시가 1순위이며,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는 못 선진국을 제치고 23위란다. 행복과 부귀는 별개이며 어려움이 많음은 인생사 당연지사이고 비감만으로 점철하지 않는다.

우리 건축사 업무도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고약한 암모니아 냄새로 청사진을 굶던 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몇 년 후부터는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를 처리한다 한다. 반년 단위의 변하던 정보 체제가 이제 월단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빠름에 빗대어 우리 조상과 우리 아버지의 시대를 누가 훼파하는가. 급진의 진화는 돌연변이로 변종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진부도 하나의 피치 못할 자연 현상임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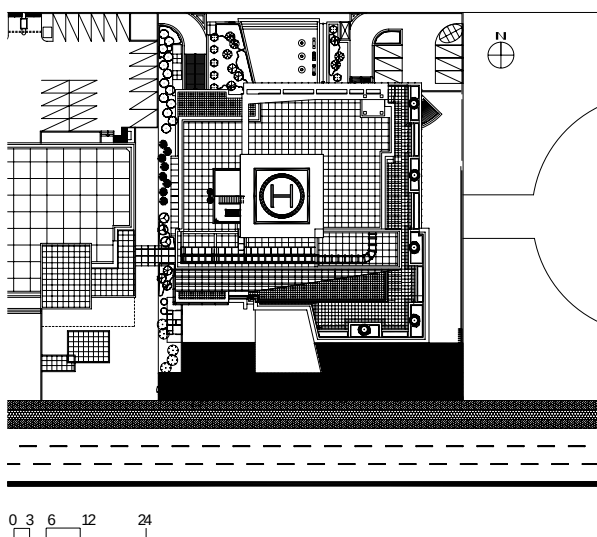
무질서가 심하게 확장 되면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는다. 그 새로움이 초기와 같은 무질서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내면엔 은근한 뜬이 배어 깊은 맛을 느끼게도 한다.■

SK Telecom 대전사옥

SKT. Office Tower in Dae Jeon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94번지
지역지구	중심상업지구, 최저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대지면적	3,849.80㎡
건축면적	1,910.69㎡
연면적	42,666.54㎡
건폐율	49.63%
용적률	708.90%
규모	지하 5층, 지상 20층
구조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대리석, 화강석, 수성페인트, FROST GLASS
외부마감	알루미늄 복합패널, THK24 투명복층유리
시공	(주)SK건설
설계담당	정인광, 권병곤, 이승복, 이형오, 이훈정, 이석재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채수옥)

건축사가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가로환경과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건축과정은 과거를 바탕으로 동시대의 흐름뿐만 아니라 장래를 예측해야 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작업이다.

SK Telecom 대전사옥의 설계는 IMF라는 국가의 경제적 위기와 맞물려 장기간 중단되었던 기존 건물(1993년 대전 중앙생명 사옥)의 과거를 지하에 유지하면서 지상에는 기업의 첨단 정보통신기능과 발전적 미래에 대한 상징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신사옥을 탄생시키는 다소 난해한 과정이었다.







기존건축물의 유지와 인접 건축물과의 연계

공사 중단 후 5년 이상 방치되었던 지하 구조체위에 더 큰 규모로 세워지는 건축물이 건축 및 구조적으로 안전하면서 경제적(기존 제작 구조물량 최대한 활용)인 보수, 보강이 되도록 대안을 수립하였고, 인접한 기존건물인 서대전 교환국사와의 기능적, 시스템적 연결을 꾀하였다.

기업의 첨단기술을 상징하는 이미지

저층부 Public Zone은 기존 지하구조체와 신축되는 타워부와의 중간 매개공간으로서 지역사회로부터의 개방감과 투명성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오피스 타워는 새롭게 태어나는 역동적인 방향성을 표현할 수 있는 매스와 첨단의 기술을 표현하는 다양한 디테일을 통해 도시 맥락 속의 랜드마크로서 독창적 상징성을 표출하였다.

모듈화를 통한 공간의 융통성 확보

건축주의 공사비 절감에 대한 무리한 요구사항을 설득하여 건축평면 및 입, 단면상의 치수 단위를 모듈화하였고 이로 인해 향후 용도와 기능의 변화에 대비한 융통성 있는 건축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설비공간 또한 장래의 확장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그린빌딩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공사비와 유지관리비에 대해 더 경제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오픈 공간의 여유와 개방감 확보

건축물 내부에서 외부 자연과의 교감과 조망을 할 수 있고 채광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건축 요소인 저층부의 아트리움(Atrium)과 지하 선크가든(Sunken Garden), 최상층 스카이가든(Sky Garden) 등은 오피스내의 공간연출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로 하여금 쾌적하고 여유로운 Refresh 기능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주의 요구로 설계와 시공중 일부부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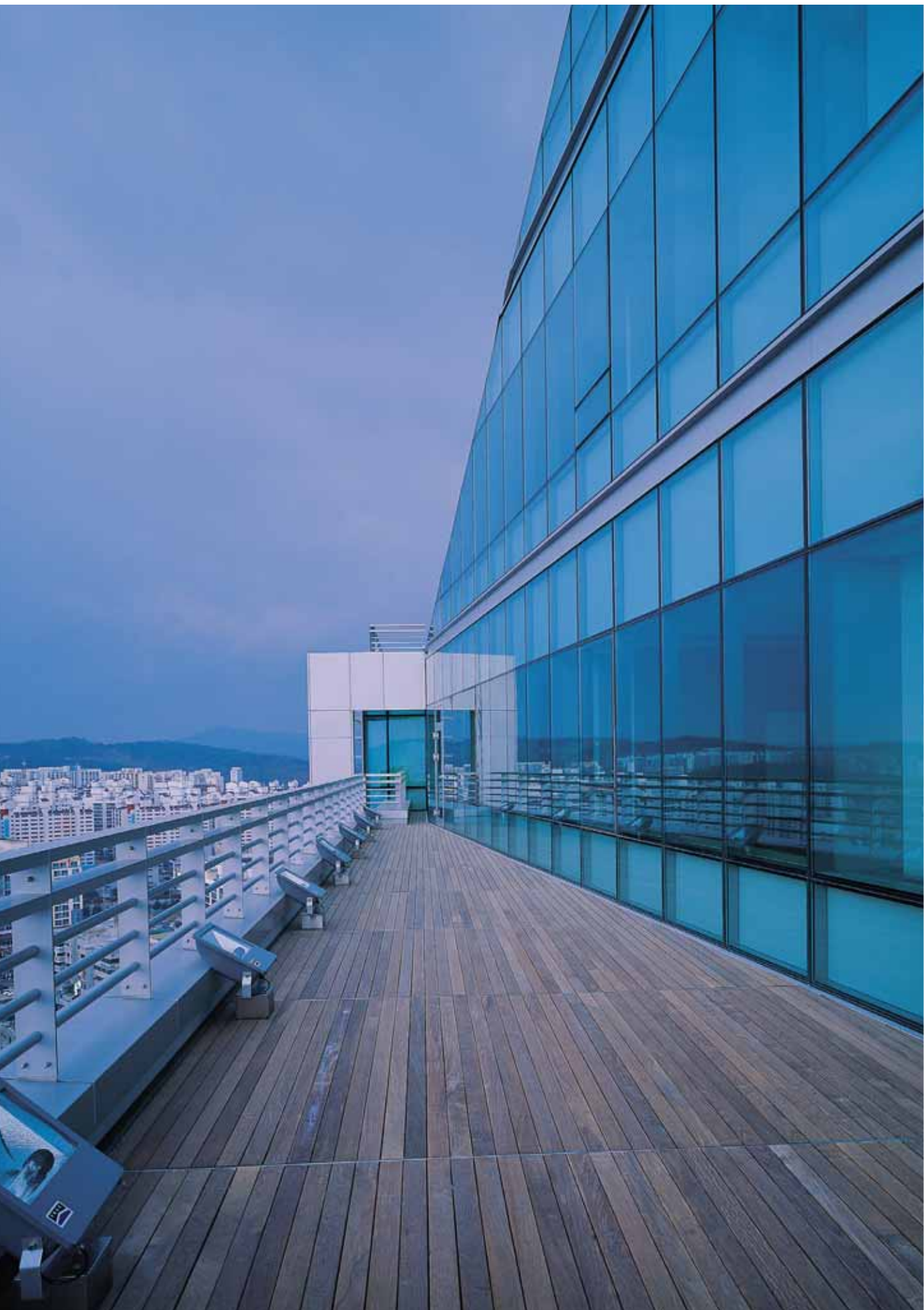


변경, 축소되었지만 끝까지 건축사의 의도를 많이 이해해준 건축주에게 고맙게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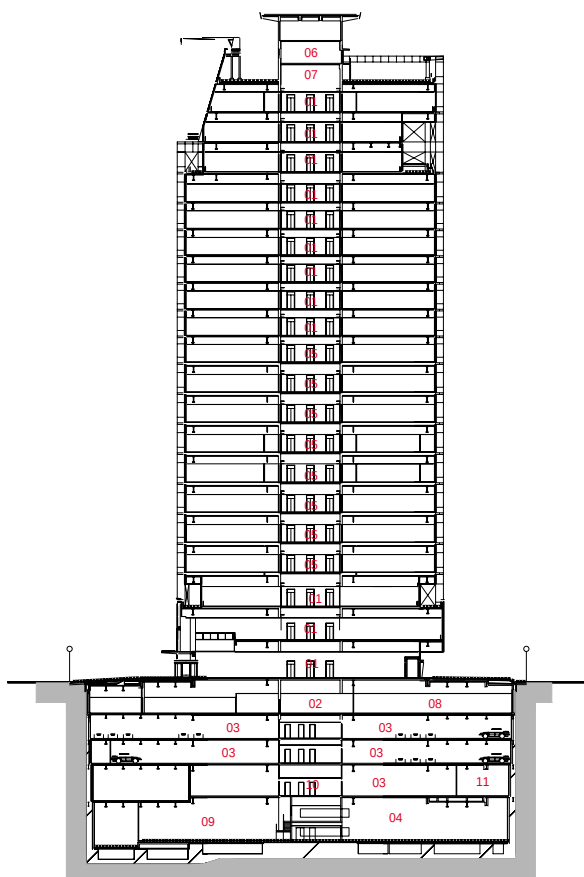
설계과정에서 건축주와의 많은 검토와 협의를 통해 건축사가 결정하는 설계대안과 디자인들은 건축공간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의 장래 수명과 사회에 대한 건축의 역할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계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건축사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또한 설계기간 동안 부여받는 건축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훌륭한 설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한층 더 인식 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SK Telecom 대전사옥이 커뮤니케이션 사회를 이끌어 가는 랜드마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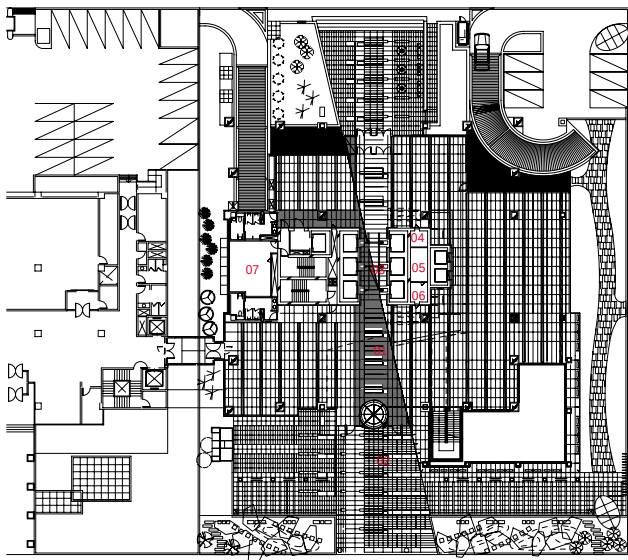


- 01. 업무시설
- 02. 리카
- 03. 주차장
- 04. 기계실
- 05. 공공용시설
- 06. 물탱크실
- 07. ELEV기계실
- 08. 제력단련실
- 09. 전기실
- 10. 주차관리실
- 11. 공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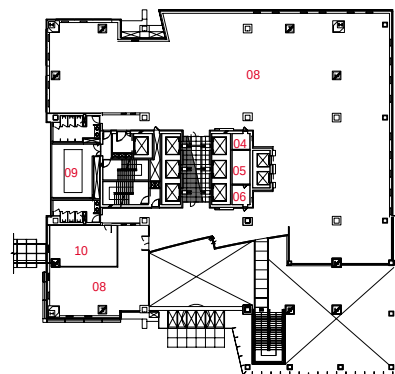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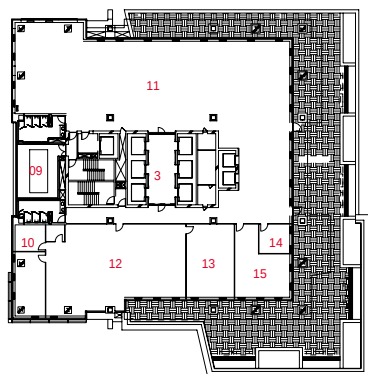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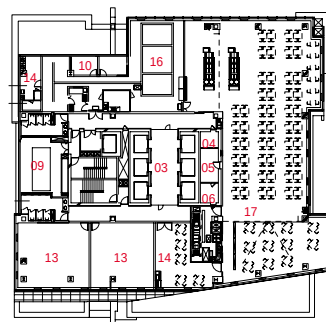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 01. 로비
- 02. 주출입구
- 03. EVEL출
- 04. A.V실 PS
- 05. 통신실
- 06. EPS
- 07. 관리실
- 08. 임대사무실
- 09. 공조실
- 10. 창고
- 11. 자사임대사무실
- 12. 대전영업센터
- 13. 회의실
- 14. 휴게실
- 15. CIA실
- 16. 주방
- 17. 식당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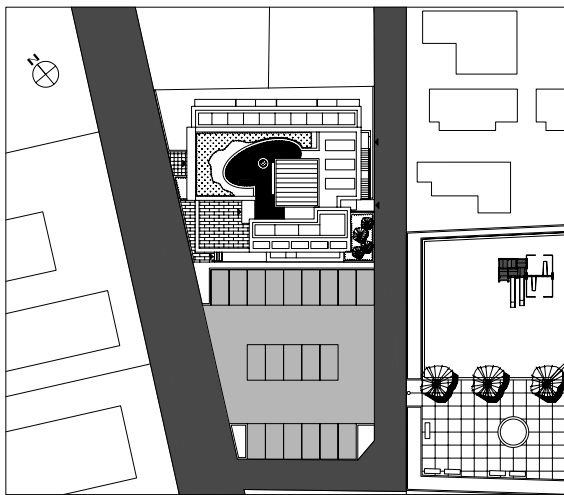
20층 평면도



중곡3동 사무소

Junggok 3dong Office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74-5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공공업무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1,072㎡
건축면적	366.18㎡
연면적	1,362.37㎡
건폐율	34.16% (법정: 60%)
용적률	90.87% (법정: 300%)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신토석벽돌, 실리카인조대리석, 알루미늄복합패널
건축주	광진구청
설계담당	한대희, 서영훈
사진	건축사사무소제공(촬영: 박재영/아키토)

동사무소는 변화 중

동사무소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역할은 축소되어 가는 반면, 주민의 복지 수용과 행정 참여의 요구가 증가됨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고 있다. 즉, 예전에는 동사무소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동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전부였다면 요즘의 동사무소는 지역커뮤니티의 복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또한 파출소, 보건지소 등과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마을 행정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근린공원 인근에

위치함으로써 커뮤니티센터다운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이러한 동사무소의 변화는 문화적인 갈등에 목말라하는 마을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본다.

건물 위치 잡기

대지에는 오래된 연립주택이 있었고 그 뒤에는 배나무터공원이라는 작은 어린이놀이터가 숨어있었다. 이 배나무터공원은 작지만 밀집된 주택지에 숨통을 틔어 주는 공간인데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

게 되어 공원에 면하는 대지에는 공용주차장을 계획하고, 동사무소를 대지 북측에 배치함으로써 공원이 잘 드러나 보이도록 했다.

동사무소를 대지의 북측에 배치하다보니 일조권사선제한을 받아 건물 디자인에 어려움이 컸지만 건물들로 꽉 찬 동네에 여유있는 보이드를 제공했다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동네 활력 충전소

중곡3동사무소는 변화된 동사무소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동사무소는



동 행정기관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복지 문화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한 중곡3동사무소도 동네의 행정중심으로서 동대본부, 파출소, 보건지소와 복합체를 이루어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극대화하였다.

파출소는 인지성과 접근성이 좋아야 하므로 전면도로에 면하여 1층에 배치하였고 외벽을 신토석 벽돌로 마감하여 친근감을 부여하고 동사무소와 차별화함으로써 인지가 쉽도록 하였다. 또한 파출소는 보안과 안전이 중요하므로 고창을 설치하였고 장애인을 위하여 경사로도 설치하였다.





한편, 복지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지하층에 문화복지관을 마련하여 주부노래강습, 에어로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공간은 음악소리 등이 크므로 방음처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하며 지하층에 배치하는 것이 주변 주택에 미칠 소음공해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드라이에어를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지하환경을 개선해야 했다. 3층에는 다목적 강당을 계획하여 다양한 행사를 수용토록 하였고, 4층에는 마을문고를 계획하였다. 특히 4층에는 옥상정원을 계획하여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마을문고에서 책을 빌려 옥상정원의 파고라 밑에 앉아 책도 읽고 담소도 나누며 아차산의 풍광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설들은 비록 작지만 동네주민들에게는 삶의 활력을 주는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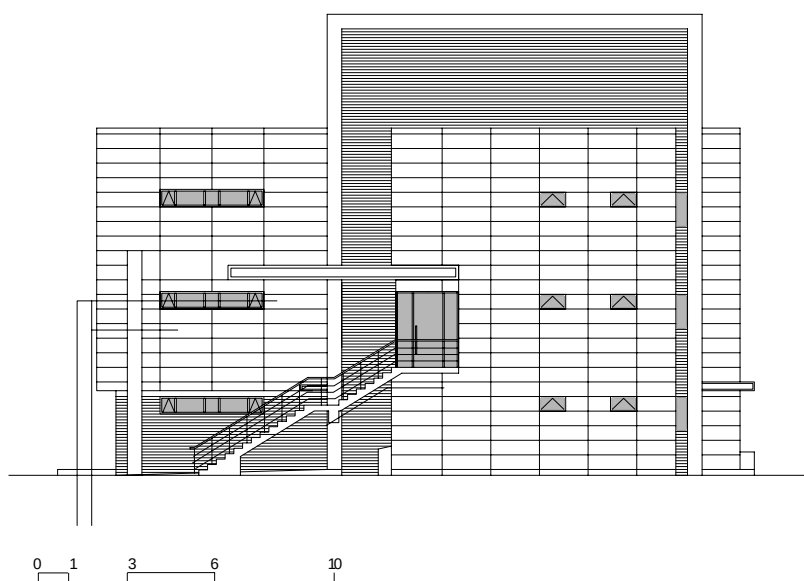
동네 건축의 변화를 바라며

중곡3동 동사무소를 계획하면서 마을의 건축환경에 좋은 변화를 줄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는 약간의 강박관념이 있었다.

이러한 강박관념은 동네의 조악한 건축환경과 동네를 대표하는 상징체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생긴 것 같다.

하나의 건물이 마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약간의 회의감도 없지 않지만 생동감 있는 건물 디자인으로 마을 건축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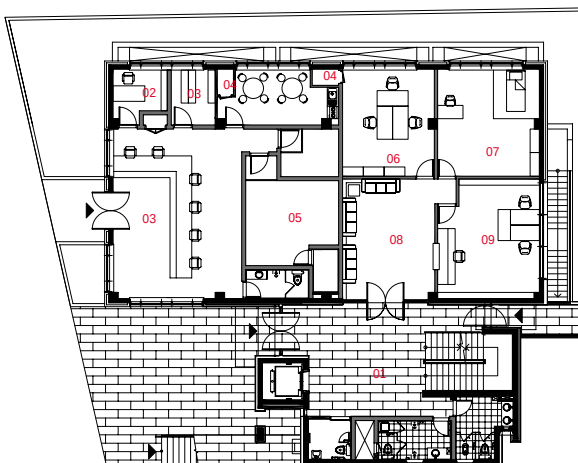
기존의 화강석 위주의 무표정하며 권위적인 관공서 건물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며 친숙한 재료와 색상으로 구성된 개방적인 건물이 되고 싶다. ■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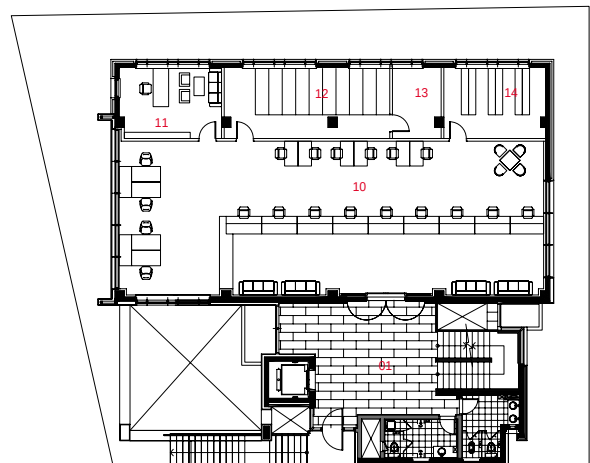


- | | |
|----------|---------------|
| 01. 출 | 11. 동장실 |
| 02. 소장실 | 12. 주민등록 |
| 03. 문서고 | 13. MDF실 |
| 04. 보일러실 | 14. 서고 |
| 05. 숙직실 | 15. 창고 |
| 06. 보건실 | 16. 대회의실 |
| 07. 진료실 | 17. 음향조정실 |
| 08. 대기실 | 18. ELEV. 기계실 |
| 09. 사무실 | 19. 마을규모 |
| 10. 민원실 | 20. 옥상정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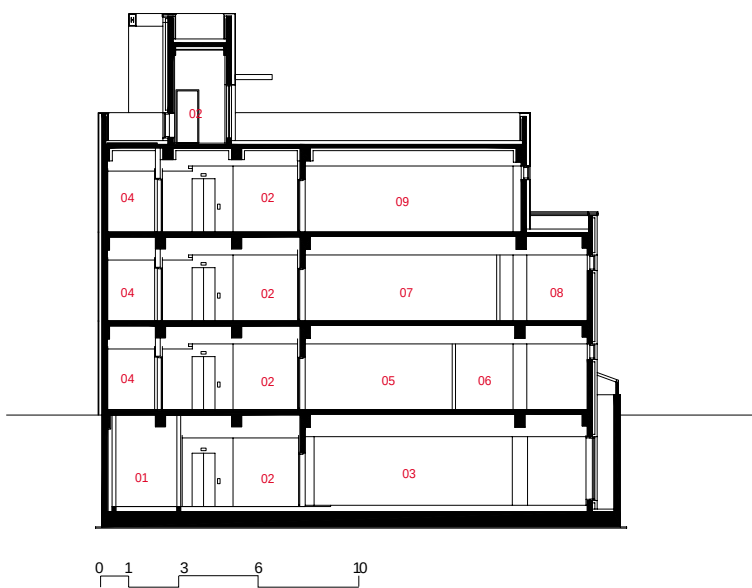


0 1 3 6 10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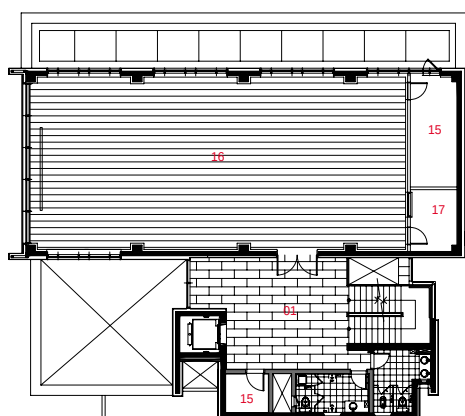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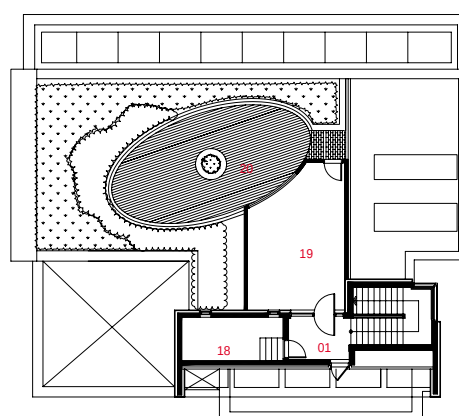


종단면도

- 01. 기계실
- 02. 홀
- 03. 문화복지관
- 04. 화장실
- 05. 대기실
- 06. 보강실
- 07. 민원실
- 08. 주민등록
- 09. 대회의실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계획작품 | Process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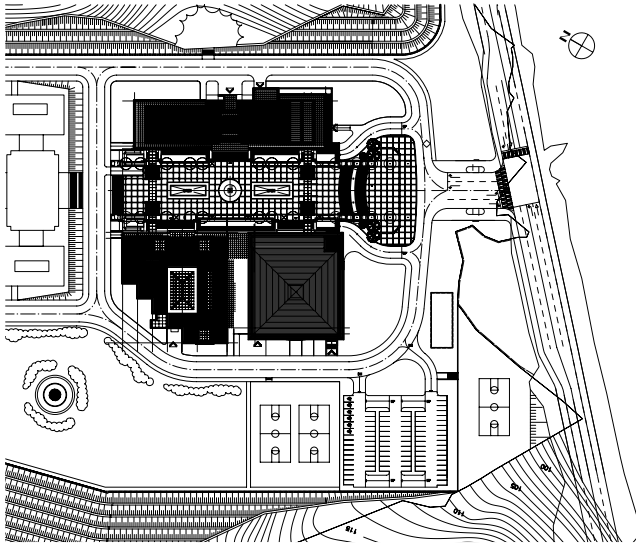
김광섭 / (주)원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Kwang-Sup

경북대학 남양주 캠퍼스

KyungBok College NamYangju Campus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 16-7번지 외 26필지

지역지구 도시관리지역 및 일부 농림지역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대지면적 144,586㎡

건축면적 7,944.93㎡

연면적 24,352.76㎡

건폐율 5.49%

용적률 11.02%

규모 실내 체육관 : 지하 1층, 지상 2층

음악 대학 : 지하 1층, 지상 3층

학생 회관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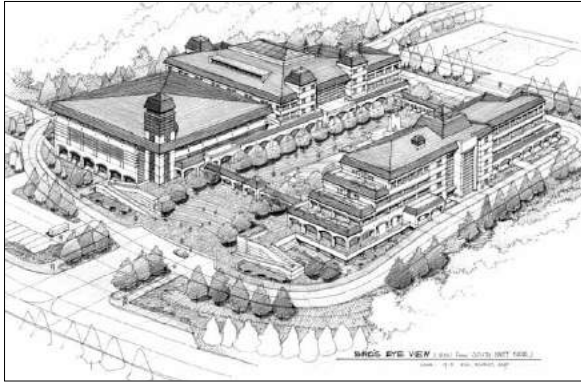
외부마감 외벽 : 화강석 버너구이, 물갈기(포천석)

지붕 : 동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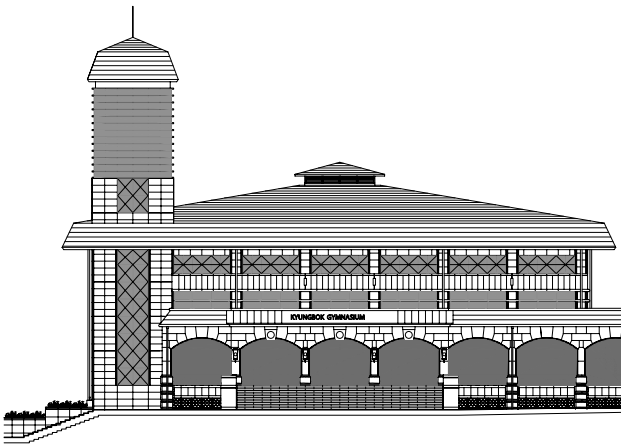
유리 : THK18컬러 복층유리

설계팀 김영호, 김정하, 한기열, 최지훈, 권용귀, 주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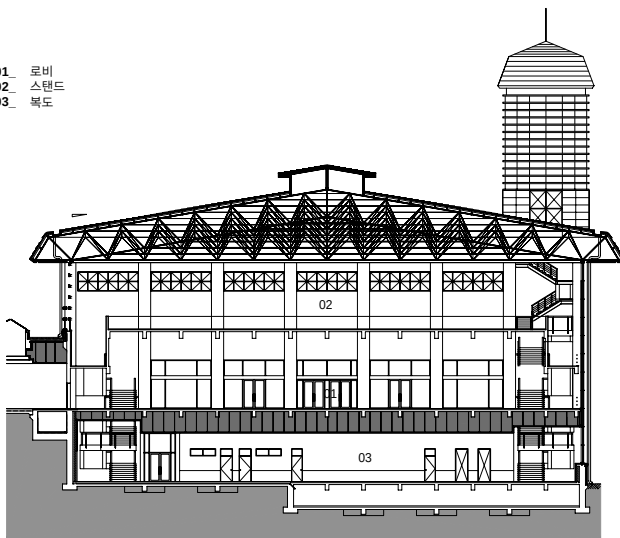


● 실내 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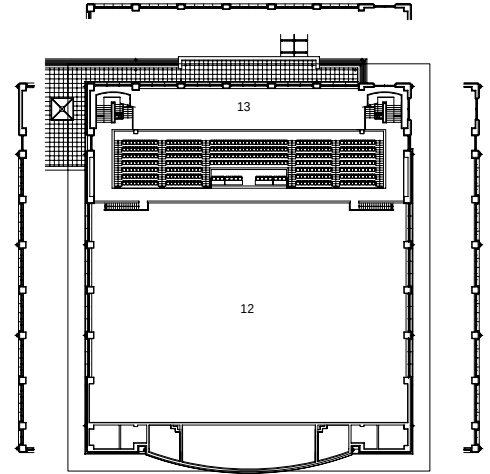


정면도

- 01 로비
- 02 스탠드
- 03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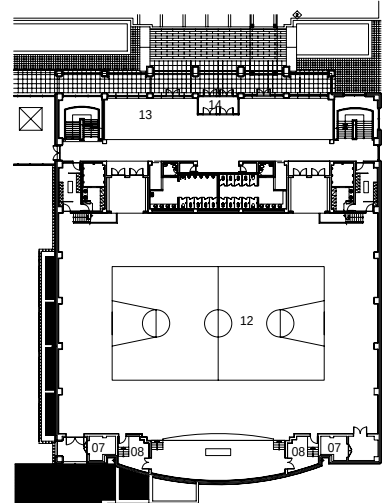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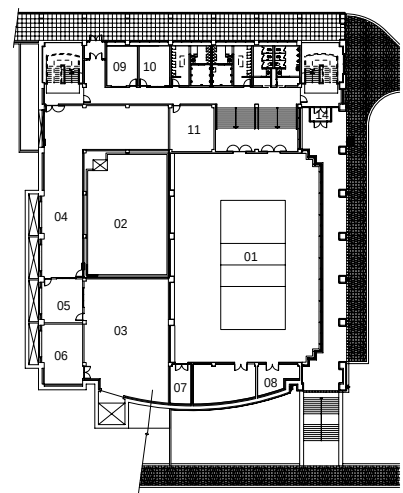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 01 소체육관
- 02 물탱크실
- 03 전기실
- 04 기계실
- 05 감시실
- 06 발전기실
- 07 공조실
- 08 준비실
- 09 사무실
- 10 관장실
- 11 부속실
- 12 실내체육관
- 13 로비
- 14 방품실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캠퍼스의 마스터 플랜이 착수되었다. 추후 가변성을 예측하며 전체를 계획하되 우선 1차분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우선 대지의 조건은 자연 그대로의 수려함을 갖고 있었고, 다행히도 남향으로 길게 뻗은 가용지와 양쪽으로 경사진 형태의 부지가 풍수상 이야기를 거론치 않더라도 음양이 조화되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급한 남북축의 경사와 동서축의 좁은 폭을 해석해야 하는 조건이다. 즉 3면이 급경사이고 남쪽의 트여진 경관과 함께 진입도로가 놓여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 그리 넓지 않은 건축가용지 때문에 여러 조

건이 국한될 수밖에 없는데, 1차분인 3개의 건물군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크러스터형의 배치로 계획개념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중정형의 배치는 외곽쪽은 진입도로와 함께 순환도로로서 각 건물에 대한 후면 쪽의 차량진입과 서비스 동선 또한 2차분의 외곽도로와 이어지는 장래 증축에 대한 계획이다. 이로 인해 내부광장은 보행으로만 이루어지는 광장으로서 각 건물의 기능이 모이고 흩어지는 학습과 축제의 대학광장으로 서의 적극적 도입 및 좁은 폭을 갖고 있는 대지에서의 단순한 해결책이다. 이러한 배치는 결국 중앙에 균제된 광장을 중심으로 주

변의 지형과 순화되는 그리 높지 않은 4층 이내의 각 건물과 각 건물의 배면에는 경사진 자연수림을 접한 형태의 지극히 편안한 자연스러운 흐름에 적응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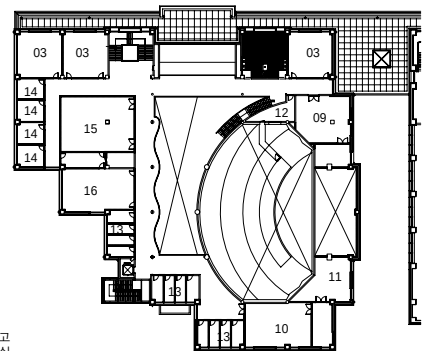
단면계획 또한 남북축의 경사진 흐름의 형태와 같이 전체 종단면의 계획은 각 지점의 위치에 따른 레벨 계획고를 기준으로 단계적 전체의 레벨이 결정되어졌고, 특히 진입부의 급격한 경사는 레벨차를 이용하는 피로티의 도입으로 지하공간이 채광과 함께 남쪽의 자연으로 열리도록 함과 함께 동선의 각 기능이 원활하게 함이다.

단점은 이러한 피로티의 레벨차가 진입도

●음악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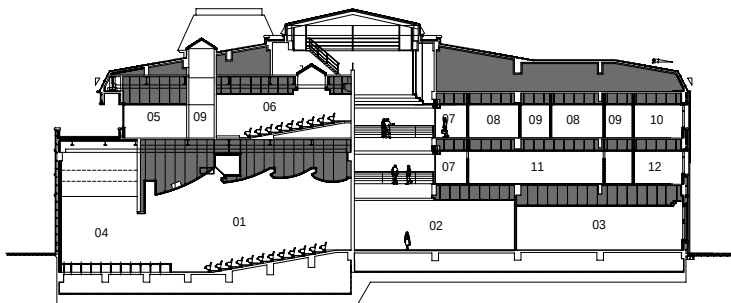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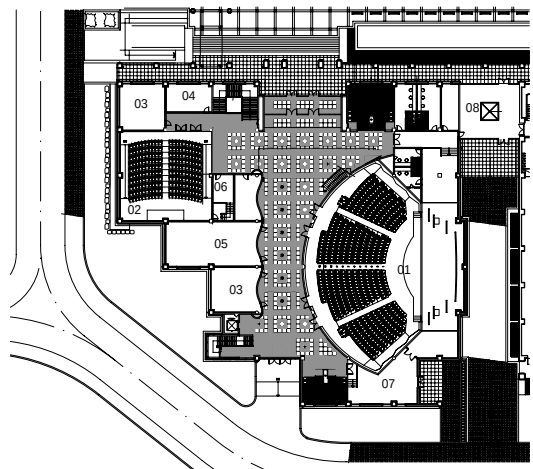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 01 콘서트홀
- 02 홀
- 03 대강의실
- 04 무대
- 05 연구실
- 06 다목적홀
- 07 라운지
- 08 연습실
- 09 복도
- 10 레슨실
- 11 놀이음악실
- 12 연구실



횡단면도



1층 평면도

로에서 지상부 1층 광장과 연결되어지는 전
면계단의 높이차가 다소 부담스럽지만, 이
높이를 극복하여 광장에 다다르면 또 다른
공간의 연출에 공간적 흥미를 줄 것이라 생
각된다.

1층 광장에 이르면 3개동의 각 건물 주진
입구가 광장 주변 전체를 이어주는 피로티를
통해 연결되며 각 건물의 진입에서 현관홀에
들어가면 바로 직선상 후면의 부출입구가 이
어지면서, 동서축의 넓은 개구부를 통한 채
광 및 자연경관이 펼쳐진다.

또한 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되어 차량의 접
근 및 서비스동선의 해결과 함께 장애자동선

을 배려함이다.

입면의 계획은 주변 경관 및 지형의 레벨
고를 감안하여 4층 이하의 높이로 스카이라
인을 설정할 때, 각 건물의 내부기능과 단면
높이를 계획하여 전체의 매스를 계획하였다.
외부재료 역시 우리풍토에 친화적 재료인 화
강석을 사용하였으며, 지붕 또한 모임경사지
붕의 동판 재료로 계획되어 시간이 지나면
세월과 연륜이 쌓여가는 건축주의 의도가 숨
어있는 다소 무게감있고 엄격한 외관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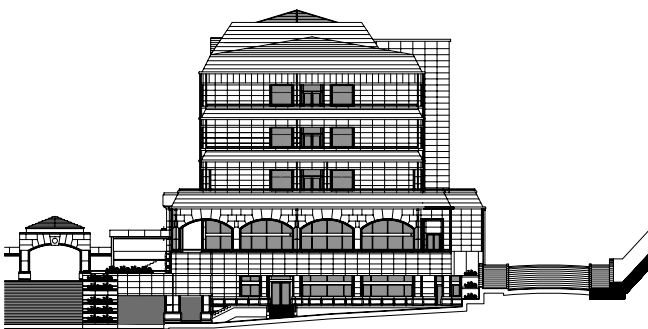
입면상 진입구 원편에 타워부분을 두었으
며 캠퍼스 전체를 조망하고 주변의 경관까지

둘러볼 수 있는 휴식의 즐거움을 부여하였
고, 지나는 차량동선 및 주변 인근에서의 랜
드마크로서 건축주의 교육적 이념의 구현 및
상징성을 강하게 화답하고자 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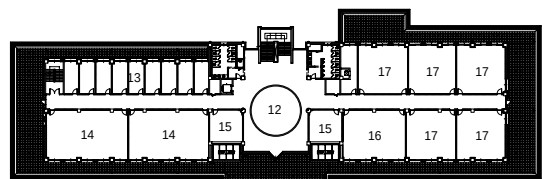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부분적으
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설계변경의 목적은 시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종합적인 캠퍼스로서의 완성도
를 높이는데 있다. 圖

● 학생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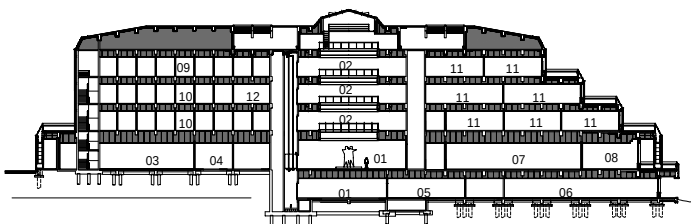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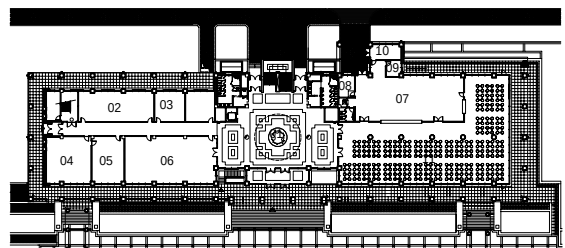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 01. 출
- 02. 라운지
- 03. 대회의실
- 04. 상담실
- 05. 휴게실
- 06. 열람실
- 07. 주방
- 08. 식당
- 09. 교수연구실
- 10. 연구실
- 11. 강의실
- 12. 정보자원센터기계실

- 01. 출
- 02. 대회의실
- 03. 상담실
- 04. 분교장실
- 05. 소회의실
- 06. 행정센터
- 07. 주방
- 08. 휴게실
- 09. 영양사실
- 10. 창고
- 11. 식당
- 12. 라운지
- 13. 연구실
- 14. 전산실습실
- 15. 과사무실
- 16. 미디어실
- 17. 강의실



황단면도



1층 평면도

용소정(龍沼亭)

Yongsojeong Residence



집일까?

언제부터였을까? 정해진 박스 틀 속에 차곡차곡 우리의 삶을 구겨 넣는데 익숙해져 온 것이.

유행 따라 차를 바꾸듯 일년을 살기도 하고, 십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 아파트 저 아파트를 옮겨 사는데 익숙해져 버린 우리네 삶의 방식.

우리 집, 우리 동네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무슨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가 우리네 주거가 되어 버렸다.

집이냐?

유목민의 텐트처럼 걷어버리면 떠날 수
있듯이 짐만 들어내면 아무런 미련 없이 옮
겨갈 수 있다.

내 아이가 커 온 기억도, 이웃과 나눈 정
도 옷에 묻은 먼지 털 듯 툭툭 털어버리면

그만일까?

아무 미련 없이 주소 바꾸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도시인은 슬프다.

집이다.

나를 담고 삶을 담아 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집이다. 담으면 그만인 일회용 용기가 아니라 제 맛을 제대로 내어주는 그릇이다.

된장국은 뚝배기에, 녹차는 다기에 담겨야

하는 것처럼 나의 삶도 그렇게 올바르게 담고 싶은 그런 집이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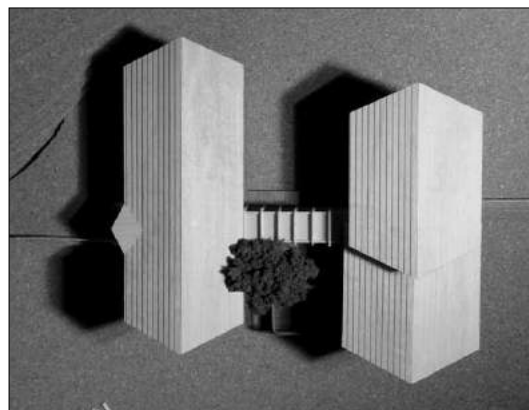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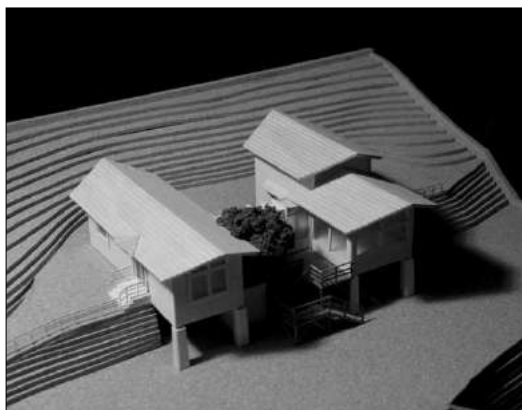
내 집 하나 지어주오

정년을 몇 년 남기지 않은 때에 돌아가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하시는 모교의 공대학장을 지내셨던 교수님을 뵈게 되었다. 평소 교수

님과 파트너로 일을 함께 하며 신뢰를 얻고 있던 친구에게, 자네같이 믿을 수 있는 건축사를 추천해 달라는 그 자리에 내가 앉게 된 것이다.

그동안 작업했던 완공된 자료와 실현되지 못했던 자료를 뵈어 드리니 꽤히 의외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그 중에 완공된 집을 추

천해 달라고 하신다. 마침 대지와 가까운 곳에 준공한 지 3년 쯤 되는 '양화당養和堂'이라 이름 붙였던 집이 있어 위치를 가르쳐 드렸다. 현장을 처음 방문했던 날, 그곳을 다녀오신 교수님은 설계자로 안심이 된다고 하신다. 양화당에 사시는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집 자랑을 하는지 그 집도 마음에 들지만 사



대지현황

는 이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틀림없다고 생각하셨단다.

건축사만큼 건축주가 좋아하는 집이라면 이 집도 그럴 것이라며 작업도 하기 전에 후한 점수를 주신다.

대지에서

기장군은 부산시의 자치구에서 구가 아닌 유일한 군으로서 아직 도시화가 가장 덜 이

루어진 전원도시이다. 대지는 산 속에 들어앉은 동네에서도 길이 끝나는 곳에 숨어 있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의 오솔길을 한참 돌아 언덕을 오르니 산에 둘러싸여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안에서도 숲 밖에 볼 수 없는 안락한 터였다.

아무리 타는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용소천 상류가 대지 앞을 가로 질러 흐르고 있다. 길은 그 내를 다리로 이어 텃밭을

낀 대지에서 끝이 났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암벽으로 배후를 친 산을 뒤로 하고, 내가 흐르는 남서향으로 열려있는 쪽을 제외하고는 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집터라고 보기보다 작은 절이 들어오면 참 좋을 걸 하고 생각을 잠시 해 본다.

대지에 오래된 집이 있어 교수님은 벌써 거처를 옮기고 텃밭에 채소를 심고 가꾸며 이 곳에 살고 계셨다. 앞산에서 땀으며 산딸

기 주스를 내어 주신다.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평생을 학자로, 토목전문가로, 교육행정가로, 행정전문역으로 열심히 살아오신 교수님은 이제 정년을 기점으로 휴과 가까이하는 삶으로 여생을 살고 싶다고 하신다. 평생의 연구한 결과도 정리하고 찾아오는 후학에게는 가르침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도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이다.

가족은 산으로 들어와 살기를 원치 않으므로 거의 혼자 사는 셈이니 큰 집은 아니더라도 교수님의 현재의 모습이 집으로 표현되었으면 한다는 화두를 주신다. 혼자 살지만 누가 오더라도 불편하지 않은 공간이 되어야 하고 크지 않은 집이지만 당당한 외관을 가

졌으면 한다는 것이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찾아오는 이에게도 불편하지 않아야 하고 크지 않은 집이지만 집주인의 격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을 갖추었으면 한다는 것이니 어쩌면 모순 같은 화두를 던져주신다.

집을 생각하다

주택은 참 귀한 프로젝트이지만 내게는 작업할 기회가 많았다. 주택만 작업해서는 사무실을 유지하기 어렵겠지만 건축하는 마음을 제대로 유지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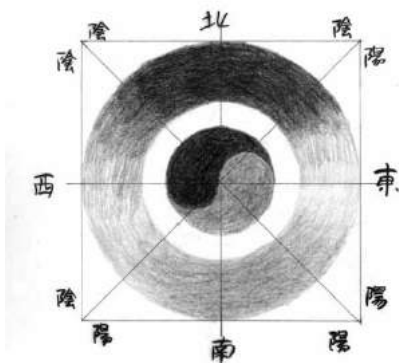
옛 집을 가보면 그 집주인을 떠올리게 된다.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는 반촌(班村) 양동마을에는 50여 채의 기와집이 있다. 집마다 그 집을 조영(造營)한 의미가 다르게 다가

온다. 위치에 따라 다르게 짓기 보다는 기풍에 따라 달리 지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풍(家風), 이 시대에 다시 되살려야 하는 의미이다. 사람이 집을 만들지만 만들어지고 나면 그 집이 사람을 만들어간다. 집이 만드는 사람 사는 분위기란 무엇인가? 하드웨어가 편리함이나 안락함으로 육신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사람 됨됨이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기풍에 따라 집을 조영하면 그 집은 가족들의 삶의 행태를 가꾸어 나간다. 그렇기에 제대로 만든 우리의 옛집을 잘 살펴보면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살필 수도 있으며 그 집주인의 성품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주택들이 얼마나 건축주의 삶을 의식하여 설계되었으며 그 집에서 사는



태극을 찾은 공간구성



음양공간 개념도

음과 양의 요소

양(陽)	음(陰)
손님	주인
낮	밤
낮의 외부공간	낮의 내정
밤의 내정	밤의 외부공간
거실재	침실재
전면부	후면부
안으로 향하는 유리벽	밖으로 향하는 벽
산(용전산)	내(용소천)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 174 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850㎡
 건축면적 129.64㎡
 연 면 적 140.24㎡
 건 폐 율 15.14 %
 용 적 률 16.38 %
 규 모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목구조
 설계담당 정민교

이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저자의 죽음
을 통해 텍스트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건축가의 만용을 포기해야 그 집을 위한 텍
스트가 완성된다는 말이다. 건축가의 작품에
대한 집착이 사용자를 무시함으로서 보기에
만 좋은 하드웨어로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
은가? 집은 건축가의 작품이기를 바랄까?
그 집에 사는 가족들의 삶을 잘 담는 제대로
된 그릇이고 삶일까?

집이라는 그릇을 만드는 이인 건축사의 처
지와 그 그릇에 담기는 이가 되는 건축주 입
장 사이에서 집을 만드는 고민은 시작된다.
사실은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를 고집한다는
것보다 우선순위의 문제일 것이다. 만드는 이
의 입장이 우선된다면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
도 쓰는 처지에서 불만족스러움이 있을 것이

고 반대되는 결과에서는 불거리(?)가 적어질
것이다. 어떻게든 그 둘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
지지 않는 중도(中道)의 묘수를 찾는 것이 모
순을 해결하는 솔로몬의 해법이 될 것이다.

대지에서 답을 찾는다

일단 집을 앉힐 자리에서 인가라고는 보
이지 않는다. 밤이 되면 사방은 암흑천지가
되는 것이다. 200미터만 가면 동네가 있지
만 한 쪽으로 들어앉은 대지의 특성상 밤이
되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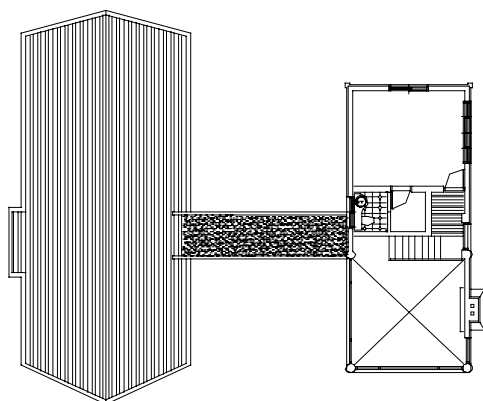
뒤쪽으로는 산의 바위벽으로 막혀있고 전
면 좌우로는 트여진 높은 곳에 오래된 집이
있는 그 자리가 집을 앉힐 자리로 정해진다.
대지 전체는 주변의 산에 의해 닫혀 있지만

집은 높은 곳에 앉아 완전히 노출된다.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처지에서 보면 해가 지면
꼼짝없이 갇히는 상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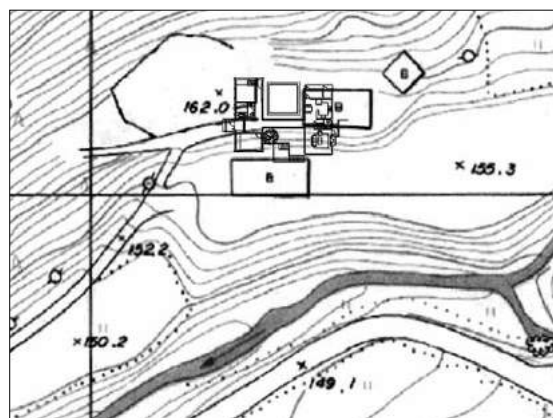
밖으로 조망은 열리지만 닫히는 집, 안으
로는 안정이 되지만 열리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는 키워드가 나온다. 안채는 중정으로만
열려있어 안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사랑채
는 별판을 향해 정자처럼 활짝 열려져있는
양동마을의 관가정에서 해법을 찾았다.

안채의 정(靜)적인 분위기와 사랑채의 동
(動)적 분위기를 결합한다. 정적 공간은 항상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거주자를 우선
하는 공간이며 동적 공간은 움직임을 받아들
여 방문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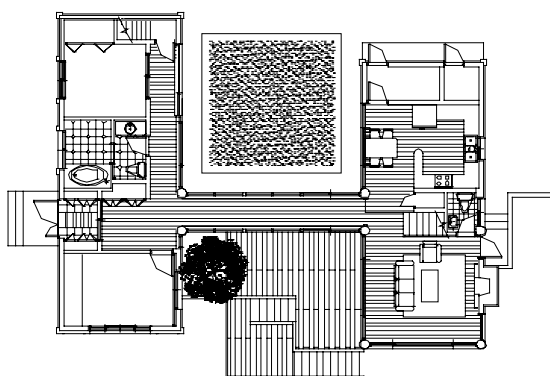
주인과 손님이 서로 어울릴 수 있고, 주인은
일상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으며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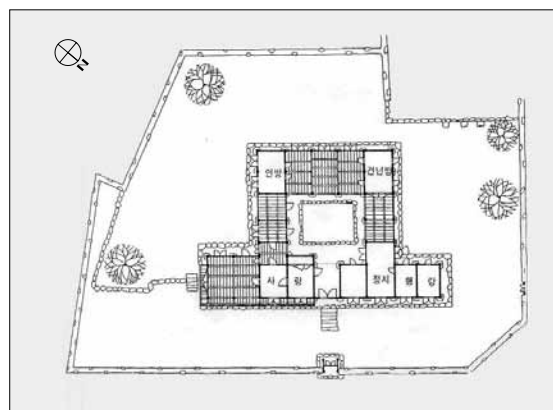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배치도



1층 평면도



관가정 평면도

님은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정적공간과 동적 공간이 병립할 수 있는 구성으로 일상과 이벤트가 한 집에서 가능해졌다.

혼자 사니 사람이 그림다

아파트는 가족도 객이 된다. 옛집은 안방, 건넌방 등으로 개실의 개념이기보다는 위치를 정하는 이름 정도로 불려졌다. 방마다 공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귀한 손님이 오면 안방을 내어줄 정도였으니 손님에 대한 예우는 어떤 가족 구성원보다 우선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아파트는 손님을 위한 배려는 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늦은 시간까지 머무르기 어려우니 가족 개인의 손님을 청하기는 어렵다. 친척집을 방문해도 아파트에서는 하루를 묵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온 식구가 같이 앉아 밥을 먹기 위해서는 시간을 잡아야 하고 거실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것도 보기 드문 풍경이 된다. 방이 둘 러싸는 거실의 구조는 어쩌면 방이 거실을 쳐다보는 것 같고 거실이 방을 감시하는 것 도 같다. 방과 거실은 대립의 구조이다.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집이 되어야 가족 구성원은 주인이 되고 손님이 찾을 수 있다. 혼자 살아 찾는 이가 그리울 것이니 찾아오는 이가 머무르기 편해야 다시 찾을 것이고 많은 이들을 부를 수가 있다. 그리운 사람을 불러

러들일 수 있는 집을 만든다.

집을 두 채로 나누었다. 침실을 중심으로 한 정적 기능의 채와 거실 주방을 담은 동적 기능의 채이다. 주인은 밤이 되면 쉬어야 하는 일상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고 손님은 밤을 새워 놀 수도 있는 기능을 수용한다.

음양이 어우러지는 집

낮과 밤, 주인과 손님, 외부와 내부, 배후와 조망 등의 음과 양의 조화가 이 집의 해결 코드이다. 양으로 본 것은 집 밖의 공간, 거실채, 전면부, 안으로 향하는 벽, 손님이고, 음으로 본 것은 내정, 침실채, 후면부, 바깥으로 향하는 벽, 주인이다.

양으로는 닫혀있고 음으로는 열려있다. 양 쪽으로는 닫고 음쪽으로는 열면서 중화시킨다. 음과 양이 병립하며 공존하는 공간 구성은 삶에 균형을 맞춰준다. 양인 낮에는 양이 어둡고 음인 밤에는 내정이 밝아지면서 음양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낮에는 눈에 보이는 집의 모습으로 대지에 정착되고 밤에는 어둠 속에서 내정의 조명으로 어둠 속에서 자리를 잡는다.

양의 비중이 높은 집인 아파트는 들뜬 분위기가 가족을 부유(浮遊)하게 한다. 어쩐지 집에 묶어두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도는 원인이 가장 중심 공간을 지나치게 양쪽으로 치우치게 한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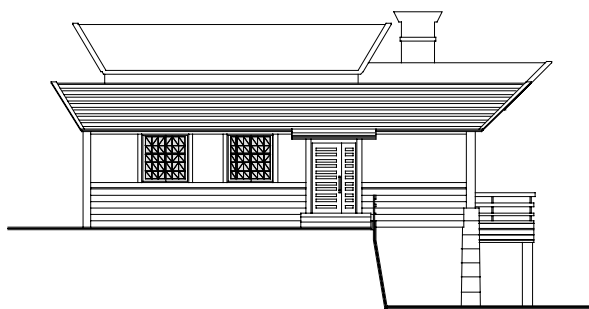
실현되지 못하다

간혹허가가 이미 나있는 땅을 매입했지만
도시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허가를 낸 것
이 도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허가요건에 맞
지 않게 되어 이미 사문서인 것을 알지 못했
던 것이다. 결국 진입도로의 지목이 도가 아
니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
한 땅이 되어 모형을 만드는 것으로 형태를
갖추는 데 만족해야 했다. 교수님은 원래 있
던 오래된 집을 고쳐서 살고 있으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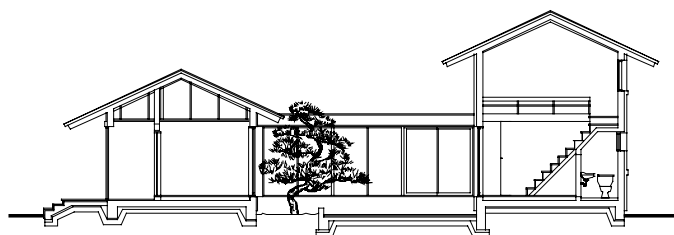
나와 같은 집, 나라고 보여주고 싶은 집,
내 삶의 결실과 같은 집을 갖고 싶었던 교수
님의 바람을 담기 위해 애썼던 시간이 이렇
게 기록으로 남는다.

건축의 텍스트는 바깥에 있고 건축의 프로그램 역시 건축가가 아닌 건축가의 바깥에서 온다²⁾는 말에 동의하는 것은 집이야말로 그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집을 만들어내는 건축가의 창작에 대한 욕구보다 더 절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집의 실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는 것은 벌써 5년이 흘렀고 이제는 그 분의 연세로 보아 집을 짓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교수님이야말로 괜찮은 집에 사실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분이기애 주인을 찾지 못한 이 작업의 결과도 너무 아쉽다. ㉠



좌측면도



다면도

注 1), 2) 『건축사이로 넘나들다(서울포럼, 2004)』 139쪽 「텍스트와 건축사이(함성호著) 중에서

건축기행 ARCHITECTURE TRAVEL

장 현 석
(주)현석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ang Hyon-Seok

하늘로 통하는 길 티베트

Tibet - The Path to Heaven

“하늘로 통하는 길 티베트”

지난해 여름, 티베트의 답사를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김진기, 정광의 선생과 중국 성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답사의 길이 얼마나 험한지 모르
고 성도의 하룻밤, 마음 한구석에는 몸이 안 좋아 일행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아침, 성도 시내 삼국지의 주역들이 모셔진 무후사를 둘러보고 곧바로 티베트 전 수도인 라사를 향하여 출발이다. 여행사에서 보내준 지프차는
도요다로서 28만 k를 탄 고물차중의 고물차이다. 걱정이 앞선다. 산중에서 고장이라도 난다면 꼼짝없이 발이 묶이는 것이다.

라사까지 가는 길은 대부분 국도318호 노선으로, 30%정도인 강정→팔숙 구간은 지방도를 따라간다. 우정공로라 부르는 라사에서 네팔 국경인
장무까지는 지프차 여행객을 많이 볼수 있으나 성도-라사 간에서는 여행객은 거의 볼수 없으며 승용차는 갈수 없는 길로 트럭이 가장 큰 교통수단
이다. 트럭 짐 위에 빼곡히 앉은 사람들은 한 고개를 넘을 때마다, 그리고 정상에 다다르면 신의 가호로 무사했음을 빌고 무사하기를 비는 행사를
갖는다. 그래서 산정상마다 오색 찬란한 룡다와 탈루초가 뒤엉켜 세찬 바람에 펄럭인다.

천길 낭떠러지라는 말은 정말 이곳에서 쓰는 말인 듯 하다. 벼랑이라고 하는 곳은 보통 수백 미터에서 1km를 넘는 곳이며, 도로 또한 폭 5m정도
의 비포장에 우기 철이라 저녁마다 내리는 비 때문에 바윗돌들이 뒤엉킨 진수령길이다.

성도를 지나면서부터 차량의 고도계는 3,000을 내려올 줄 모른다. 고개라면 대개는 4,000을 넘는다. 한국에서 준비한 산소는 인천공항에서 빼

앗기고 중국에서 다시 준비한 산소와 이노제를 번갈아 먹으며 고산 증세를 극복하느라 안간힘을 썼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아프다. 차에서 내려 사진만 찍고 나도 숨을 몰아 쉬어야 한다.

티베트로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미처 몰랐다. 지프차 뒷자리에 앉아 엉덩이가 까질 정도의 길이니까 상상으로 짐작이 갈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길인 반면 주변에 펼쳐지는 경치들은 정말 놀랍다. 금강산은 짐세기 삼으려고 짐에 물도 안축인 격이다. 돌아서는 모퉁이마다 금강산이요 조금 높다하면 흰 눈을 이고 있는 만년설산이다. 초원은 지평선으로 이어지고 그 초원은 온통 이름 모를 꽃밭이다. 마치 양탄자를 깔아 놓은듯한 꽃밭이 끝없이 이어지고,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떼와 야크들이 별천지를 연출한다.

“티베탄의 삶”

구 티베트 국경이 아직 멀었는데 농가들은 모두 티베탄들의 가옥 형태를 하고 있다. 나라에 관계없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도록 지어진 집들이다.

벽체 구조는 대개 두 가지이다. 돌이 많은 곳은 자연돌로 쌓고 흙이 많은 곳은 진흙 판축벽으로 쌓고, 대개는 2층으로 1층은 양이나 야크의 우리이고 2층은 살림집이다. 살림집 한쪽은 작업공간으로 활용하고, 흙으로 된 옥상은 곡식을 말리고 가축 먹이풀들을 말리는 공간으로 사용한다. 옥상난간은 말린 야크 똥을 쌓거나 가끔은 나무뿌리를 쌓아 겨울철을 대비하는 연료 비축 장소이다. 화장실은 외부벽에 돌출하여 2층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도록 하고 바로 밭으로 연결된다. 휴지는 없고 풀을 화장실 벽에 올려놓고 사용한다. 퇴비로 이어져 자연 친화적이다. 1층에서 나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2층에 오픈된 공간으로 이어지고 거실 겸 주방이 있

는데, 한가운데 난로 겸 조리용 시설이 있고 주변에 의자가 있으며 한쪽벽에 찬장이 있다. 연료는 산에 나무가 없으므로 야크 똥이 유일한 연료이다. 대문밖 벽에는 반죽하여 붙여놓은 야크 똥들이 즐비하다.

야크는 이곳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젖으로 차를 만들고 볶은 보리가루에 차를 넣어 반죽한 찜파(주식)도 야크 젖이 없으면 만들지 못한다. 가족으로는 천막과 옷을 짓고 고기는 담백질 공급원이다. 심지어 배설물까지도 가장 귀중한 연료이니 야크 없이는 살아 갈 수 없는 것이다.

이토록 열악한 생활속에서도 어느 한사람 얼굴은 찌푸리고 근심걱정이 있어 보이는 이가 없다. 옷을 만든후 한번도 세탁하지 않는다 해진 옷을 입고 언제 씻었는지 모를 손에 검붉게 그을린 주름잡은 얼굴이지만 항상 미소로 일관하는 그들은 과연 무엇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일까? 중국의 지배 하에 별짓을 다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상 그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



① 나사로 가는길 - 해발 4천이 넘는 산을 매일 넘는다.



② 해발 4천이 넘는 길 - 길 좌우 외평원에 펼쳐진 이름모를 꽃들, 마치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 정말 신비스럽다.



③ 산 정상에는 어느곳이나 오색의 풍다와 탈루초가 펼쳐진다. 정상에 무사히 도착했음과 앞으로 갈길에 무사함을 비는 의식이 이어진다.(가초라산 정상 해발 5,220m)

은 오직 종교의 힘이고, 종교를 믿고 수행하는 그들만의 정신세계라고 할 수 있다.

“티베트의 불교”

티베트의 전통 토속 종교는 본교이었는데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다. 불교에서의 환생의 의미와 토속 종교인 본교의 정신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티베트 불교는 우리나라 보다 뒤늦은 8세기에 인도승려 “파드마 삼바바”가 힘준한 히말라야를 넘어 하늘밧의 가장 가까운 나라 설원의 땅 티베트에 불교를 전파하였다.

티베트 불교는 님마파, 카구파, 샤카파, 게룩파 등 크게 4개의 종파로 나뉘지는데 제일 먼저 “님마파”가 생겨나 일명 “고파”라고 하며 붉은 옷에 붉은 모자를 쓴다고 “홍교” 또는 “홍모파”라고도 하며 대처승이다.

다음은 “카슈파”로 초기에 장발에 흰 옷을 입고 사찰을 흰색을 칠하여 “백교”라고 불렀

지만 지금은 게룩파와 비슷한 붉은색의 가사를 입는다. 그 후 11세기 무렵 샤카라 지방에서 “샤카파”가 창건되었다. 이종파는 문수, 관음, 금강을 의미하는 홍, 백, 흑을 주된 문양색으로 사용하여 일명 “화교”라고 하였으며, 13세기에 원나라를 등에 업고 아주 강성했으므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샤카파는 건물을 시내 중심에 도성처럼 조성하고 그 내부에 불당을 모시고 원장이 모든 것을 통치하였으므로 안내 간판에는 샤카성이라고 표현하였다.

가장 늦은 14세기에 형성된 게룩파는 현재 티베트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종파이다.

달라이라마가 바로 이 종파의 수장이다. 붉은색의 옷에 노란색 모자를 쓰기 때문에 “황모파”라 부르기도 한다. 드레풍사원, 세라사원, 간덴사원, 조강사원 등이 모두 게룩파가 자랑하는 사원들이다. 특히 조강사원은 티베탄들에게 가장 신성한 최고의 성지로 손꼽는 사원이다. 그러므로 조강사원 앞 넓은

광장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체투지를 하고 코라를 도는 티베탄들로 줄을 잇는다. 사원 앞 돌바닥에서 이마와 양팔꿈치, 양무릎을 땅에 닿도록 가장 낮게 엎드려 절하는 티베탄들을 보면 이곳이 티베트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윤회와 환생, 삶과 죽음, 끝없는 수행 등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펼쳐진 이곳……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엎드려 빌었는지 돌바닥은 움푹 패이고 반들반들 빛이 난다. 겉모습이 허술해 보이는 이 티베탄들의 마음은 저 돌바닥같이 빛이 나리라…….

조강이란 티베트 말로 “부처의 집”이라고 한다. 조강사원은 7세기 중엽에 창건된 티베트 최초의 목조건축으로 당나라의 문성공주가 시집올때 가져온 불상과 티베트를 통일하고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송첸감포왕, 그리고 그의 부인들인 중국의 문성공주와 네팔의 브리쿠타공주의 상이 본전에 모셔져 있다. 또한 조강사원 옥상에서 바라보는 히말라야 산봉우리와 라사의 상징인 포탈라



④ 티베트의 민가. 판축토벽에 지붕도 진흙을 다져 마감했다. 화장실에 물이 걸려있다. 물이 화장지이며 밧으로 이어진다.

⑤ 조강사원 앞에서 오체 투지하는 티베탄들 가장 낮은 자세로 부처님에게 절을 한다. 바닥돌이 움푹 패이고 거울같이 반들거린다.

⑥ ⑦ 티베탄의 모습. 손가락이 콩그리지도록 삶은 어려우나 마음은 행복하다.



궁은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포탈라궁은 정치와 종교의 합일임을 상징하는 라사의 대표적인 건물로 달라이라마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평가받는 5대 달라이라마가 몽고의 정복시 파괴된 포탈라궁을 완벽하게 완성함으로써 티베트의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묶는데 성공했다. 완성되기전 5대 달라이라마는 입적했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공사에 차질이 올 것을 우려해 알리지 못하게 하고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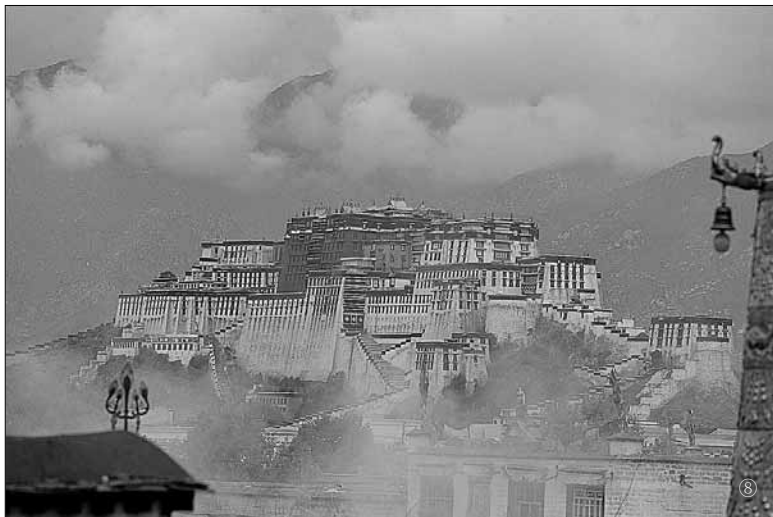
포탈라궁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 전날 입장권을 600매만 한정 판매하여 외국인 관광객들만 보인다. 8년전에 들렀을때는 다른 사원과 같이 티베탄들이 한데 어우러져 훨씬 티베트 사원다웠는데, 많이 변했다.

포탈라궁의 완성과 많은 사원들이 지어지고 부처님의 말씀이 티베탄들에게 퍼지면서 달라이라마의 환생은 제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포탈라궁은 사원이지만 분명한 왕궁이다. 역대 달라이라마가 이곳에 거주했고, 이곳에 그들의 무덤이 있으며 법당을 비롯한 승려들의 학교, 도서관, 숙소까지 이곳에 있다. 14대 달라이라마가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하기전까지 이곳에 머물렀다. 건물의 흰색은 정치를 의미하고 붉은색은 종교를 의미한다. 포탈라는 티베트어로 “깨끗한 땅”을 뜻한다. 흰색의 백궁은 정치를 돌보는 곳이고, 붉은색의 홍궁은 종교 행사를 주재하는 곳이다.

중국 침략이후 문화혁명이 극에 달했을때 홍위병들이 티베트 불교의 상징인 이궁을 파괴하려 할 때 “주은래”가 군대를 배치하여 홍위병의 파괴를 막아 지금까지 보존된 것이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살아있는 성불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는 몽골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게룩파의 3대 수장이었던 “소남가초”가 몽골의 알탄칸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이다. 몽골어로 “큰바다”라는 뜻으로 천수관음보살을



⑧ 라사의 상징인 포탈라궁, 정교합일의 상징이며, 달라이라마가 정치와 종교 의식을 하는 티베트의 궁궐이다.

상징한다. 1대부터 현재 망명정부의 14대까지는 하나의 통일된 영적 연결고리를 통해 환생을 거듭하여 이어진 것이다. 14대 달라이라마가 25세때에 중국의 총칼에 밀려 100여명의 망명단과 함께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하여 40여년을 망명정부를 이끌며, 중국 무장군에 의해 학살된 10만여 명의 티베탄들을 가슴에 묻고 전 세계에 독립을 호소하며 살고 있다.

“히말리아를 넘는 우정공로”

티베트와 네팔의 지세를 잘 몰라 답사를 떠나기 전에는 국경지대가 히말리아 산맥인 줄 알았다. 그러나 국경지대는 장무인데 2,000m 정도의 낮은 계곡지대이고 실제로는 올드팅그리에서 장무로가는 마지막 5,000m 고갯길인 라롱라가 고갯길의 절정이다.

라사에서 시가체로 이어지는 길이 국도 318호선인데, 우리 일행은 암드록초를 보기 위해 험난한 길을 택하였다. 이길은 암드록초 호수가를 돌아 나가체-장체-시가체로 이어지는데 모든 구간이 대부분 공사중이며 진수령길이다. 공사중인 곳은 한번 막으면

2~3시간을 막아도 대기하는 차는 10여대뿐이다. 거의 이 길을 가는 이가 없는 것이다. 대기하는 시간에 라면을 코펠에 올려놓고 기다리는데, 동네 꼬마들이 모여 앉아 할미꽃처럼 꼬부라진 꽃을 손에 들고 꼬부라진 꽃을 서로 걸고 당겨 꺾기놀이를 하고 있다. 자연과 더불어 노는 아이들이 천진스럽다. 과자를 하나씩 주고 함께 어울렸다. 먼저 왔을 때는 먹을 것을 달라고 어른, 아이 없이 모여 들었는데, 중국의 개방경제 정책이 시골아이들까지 변화시켰음이 실감난다.

나가체의 초대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룻밤이다. 3인실의 침대방이다. 자려고 이불을 덮었는데 이불냄새가 어찌나 대단한지 얼굴에 옷을 덮었는데도 숨을 쉴 수가 없다. 숨이 가빠서 거의 밤을 새우고 아침에 화장실을 가보니 가판이다. 남자화장실 문이 조금 열려 틈으로 보니 한명은 서서 소변을 보고 한명은 앉아서 큰일을 보고 있다. 한칸에 두 개의 구멍이 있어 2인용 화장실이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들어갈 수가 없다. 세수는 엄두도 못내고 마호병의 물로 양치질과 눈꼽만 떼고 하루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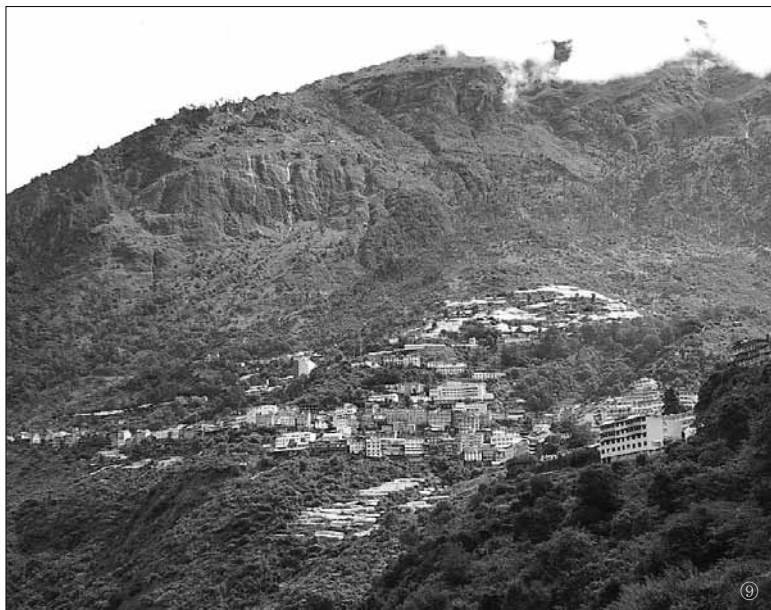
어제밤의 숨쉬기 어려웠음이 아침에야 속제가 풀린다. 4,000m의 고지대에 산소가 희박한데다가 냄새 때문에 옷으로 얼굴을 가렸

고, 더군다나 공기층이 적어 산소 부족이 생긴 것을 깨달았다. 정말 어려운 답사길이다.

휴먼지길을 돌아 장체에 도착하니 장체 하늘은 온통 휴먼지로 싸여 있다. 시내를 들어가니 모든 시가지가 공사중이다. 먼저 왔을 때의 옛마을은 자취를 감추고 남아있는 것은 요새와 성곽뿐이다. 요새 앞에 아주 넓은 광장을 만들고 중국 상징 탑을 세웠다. 티베트 말살정책이다.

완벽하게 중국식으로 개조되고 있는 장체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나라 잃은 설움이 이런 것 이구나! 일본이 과거 우리에게 한 것이 생각한다. 아무것도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빨리 장체를 벗어나는 것밖에……

시가체는 티베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시가체도 8년전의 모습이 아니다. 중국식 도시 계획에 의해 완전히 변화되었다. 시내 뒷산 언덕에 있는 타설훈포 사원만 옛 모습을 하고 있다. 아침이라 청소를 막 끝낸 젊은 승려들이 빗자루를 들고 관광객들을 구경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구경하는지 모르겠다. 타설훈포 사원의 수장은 판첸라마이다. 4대 판첸라마가 5대 달라이라마의 수제자로 있으면서 이때부터 “판첸라마”라는 칭호가 붙여졌다.



티베트의 환생자로서 달라이라마 다음 서열인 판첸라마도 달라이라마처럼 제도적 환생을 통해 환생을 거듭한다.

1995년 달라이라마가 여섯 살된 “겐둔 최기니마라”를 11대 판첸라마로 인정하자 중국은 새로 운명적 지도자를 없애기 위해 이 어린 소년을 납치하여 아직까지 생사여부를 확인 할수 없으며 세계에서 가장 어린 정치범으로 전해진다. 반면 중국

에서 선정한 판첸라마를 내세웠다. 티베탄들은 이 판첸라마를 가짜라고 외면하고 있다.

시가체 시내를 지나며 도로변은 아름다운 계곡과 대평원을 이어간다. 올드팅그리에서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로 가는 길도 국도가 아니다. 올드팅그리에서는 8,000m급의 히말리아 산들은 한번에 볼 수 있다. 에베레스트(8,848), 마칼루(8,481), 초오유



⑩ 국경도시 장무. 높은산 경사지에 형성된 경제무역도시, 밤에는 외국인들과 술집들이 불야성을 이룬다.

⑪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집’ 상층가운데 청문으로 관광객에게 얼굴을 보여준다. 물에서 피를 보면 신의 생명은 끝난다.

⑫ 네팔의 화장풍경 상주가 식발을 하고 있다.



(8,153) 등 고봉들이 병풍처럼 이어진 다. 그러나 그 산들의 얼굴은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다. 건기철이 아니고는 보기 어렵다. 새벽부터 옥상에 올라 얼굴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외국인들이 망원카메라를 걸고 기다리고 있다.

가장 높은 라롱라는 대평원의 정점이다. 7,000m급의 이름모를 산들과 시샤팡마(8,046)가 눈앞에 있다. 구름 거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점심 라면을 준비했다. 5,000m의 대평원 정점에서 신라면의 이 맛을 어디에 비가랴…….

3시간을 기다려도 시샤팡마에 걸린 구름은 거칠줄을 모른다. 하산이다. 이곳부터 장무까지는 계속 내려가는 계곡이다. 구름속에서 2시간쯤 지났을때 창밖에 펼쳐지는 계곡은 정말 환상적이다. 보이는 곳마다 동양화이다. 온통 폭포에 절경이다. 이곳에서 한여름 산다면 신선이 될 것이다. 벼랑에 붙은 이름모를 꽃들이며 장승이 된 고목들, 계곡 밑의 맑고 많은 물 폭포들, 이런 곳도 있구나. 눈이 의심스럽다. 장무는 이런 계곡 70도의 비탈에 생긴 국경도시이다. 밤이면 북적이는 사람들, 술집, 이런 산곡에 이럴 수가 있을까 불가사의한 도시이다.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

국경에서 10분만에 입국비자를 발급받고 지프차 1대를 70불에 카투만두까지 약속을 하고,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카투만두로 향한다.

국경을 지나면서 집들이 완전히 다르다. 경사지 계단식 경작지에 간이 농막처럼 비탈에 매달린 농가들, 지붕은 경사 함석지붕들이다.

이런 산간 계곡의 고봉거리는 길을 따라 4시간 반 정도를 지나니 산 아래로 도시가 나타난다. 고층건물은 물론 아파트가 한 채도 보이지 않는다. 온통 자동차 매연에 쌓인 도시, 이곳이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이다. 제일먼저 찾은곳이 파슈파티나트이다. 시바신을 모신 힌두사원인데 사원보다는 화장터로 더 유명하다. 강가에 여러개의 화장시설(강에 돌출된 네모난 돌 바닥)이 있고 벌써 몇 군데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한 젊은 여인의 시신이 화장 작업중이다. 몸에 걸친 옷(천으로 된 사리)을 벗겨 강물에 던지고 물통에 강물을 떠다 얼굴을 씻기고 바로 장작위에 누인다. 짚뿔치 끝에 불을 붙이고, 시신을 한바퀴 돈 다음 장작에 불을 붙인다. 피어오르는

연기에 시신이 휩쓸일때 짚을 덮어 불이 더욱 잘 타고 시신이 보이지 않게 한다. 옷을 벗겨 강물에 던지는 순간 이사람은 생전의 모든 것을 다 놓고 알몸으로 저승으로 가는 것이다. 저것이 인생이건대 무엇을 어찌하려고 발버둥을 치며 사는 것인가? 한치의 지식, 한푼의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일진대 무엇을 하다가야 하는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번 답사기간중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곳이다.

안나푸르나를 보기위해 포카라로 날고 있다. 20인승 경비행기, 숨으로 귀를 막고 히말리아의 산줄기를 보며 구름속을 난다. 충북의 산악인, 한국의 대표여성 산악인 지현옥대원이 묻혀있는 산이다. 안나푸르나는 길게 이어져 남봉 제1, 2, 3, 4봉으로 이어진다.

어느곳에 묻혔는지? 바라보는 마음속이 아리어 온다.

이번 답사는 여기서 마지막이다. ㉔



㉔ 히말리아의 안나푸르나 영봉들 왼쪽부터 남봉(7210), 1봉(8091), 뽕족한 마차프르레(6993) 처녀봉인. 3봉(7555) 4봉(7525), 2봉(7937) 람준히말(6986). 충북의 산악인 지현옥대원이 묻혀있다.

이 중 역
건축사사무소 우일
by Lee Jong-Yeop

미합중국의 건설 및 건축물의 검사관 제도

The US's Examinor System on
Construction and Buildings

지난 2004년도, 우리 업무에 대해 각 기관단체에서 한결같이 제도 개선안을 제시, 외국의 검사제도의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례에 있어서 제도개선의 핵심이 없이 막연하게 부실사공방지 방안이라든가 공사감리 업무가 검사업무라고 해석하여 외국의 사례를 들어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이번에 외국 사례를 바르게 전달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어 미합중국의 제도를 게재하게 되었다.

우리의 업무는 잘못된 제도로 인해 업무의 정형화의 진전에 장애가 되며 우리의 업무가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미합중국의 검사 제도를 제시, 외국의 사례를 제대로 파악하여 우리의 업무와 검사제도를 바르게 인식, 우리의 업무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미합중국의 검사제도를 게재하게 되었다.

미합중국의 건설 및 건축물의 검사관제도는 미국 AIA 인터넷에 기재된 내용을 받아 필요한 사항만 발췌하여 옮기게 되었다.

요 점

미합중국의 모든 검사관의 절반 정도는 도시나 각 주의 건축부서(Building department)에 소속되어 종사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은 경험이 풍부한 공사감독을 해본 경험자로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거나 대학교정에서 엔지니어링 또는 건축공학을 전공한 숙련된 검사관(조사관) 또는 시방에 대한 검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인증서를 가진 자들이다.

미국의 검사관(조사관)들은 공사감리를 해 본 경험자로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대학과정에서 엔지니어링 또는 건축공학을 전공한 숙련된 자 또는 시방에 대한 검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인증서를 가진 자들로 건축물의 기준과 규칙, 지자체의 조례, 세부적인 계약사항(도급계약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있는지와 안정성 여부 등을 조사, 검사한다.

작업조건

건설공사와 건축물의 검사관(조사관)들은 공사에 대한 개축 또는 건축물의 보수와 고속도로, 일반도로 및 상하수도 그리고 급수 시설, 댐, 교량 그 밖에 건축물의 기준과 규칙, 지자체의 조례, 세부적인 계약사항(도급 계약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있는지와 안전성 여부 등을 조사·검사한다.

건축기준과 규준은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미정부에서 규정한 건축공사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공사 검사관들은 공사 첫단계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계속하여 Regulation을 제대로 지키는 지 감시하기 위해 전체적인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조사는 항상 한결같지 않다. 가령 재해나 혹독한 날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조사·검사관이 재난시의 건축물의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추가적인 안전수칙(safety regulation)을 준수하는지 감시한다.

건축물의 검사관들은 건축물의 질과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안전성을 조사한다.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경우에는 철골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검사한다. 건축공사를 착수하기전에 검사관(plan examiners)은 건축현장의 부지가 환경적이며 기술적인 요구에 plan이 적합한지,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를 확인한다.(법적 적합성의 확인)

이들은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현장(부지)을 방문하여 토질 조건과 위치, 기초의 깊이를 조사한다.¹⁾ 작업 완료후에 기초공사를 조

사하기 위해 현장에 나간다. 공사 완료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현장의 방문횟수를 정한다.²⁾

이러한 계획일정은 단계적 작업완료후에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추가적으로 건물검사관(Building inspector)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화재의 안전이다. 그들은 화재의 피난통로, 출구 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비상벨 그리고 연기 감지시스템의 작동 관리를 조사한다.

조사·검사관들은 건축물의 형태, 건축목적에 적합한 방화시설의 기구인지 그리고 인접건축물에 대한 위험 등을 조사·검토한다.

과거에는 대부분 BOCA(Building Officials & Code Administrators), KBO, SBCCI에 의해 제정된 지역적인 모델에 따른 건축기준을 사용했다. 그로 인해 어느 지역에서는 조사관들이 다른 Code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 세 가지의 Code 세트 사이의 차이점들을 없애기 위해 이 조직 체제들은 연합하여 ICC를 창립하였고, 이 ICC는 국가 최초 통일 표준인 Building code regulation을 발표했다.

이것으로 인해 미합중국 전역에서 조사관들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매우 용이하였다. 조사관(검사관)에도 많은 종류가 있다. 전기에 대한 조사관은 전기시스템의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와 Electrical Codes와 Standard를 준수하여 검사한다. 그들은 신규나 기존의 음향, 방범시스템, 배선, 조명, 모터 그리고 발전기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다.

또한 그들은 온, 냉방 시스템, 가전기기, 그 외의 다른 장비를 위한 전기배선의 설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엘리베이터 조사관들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Escalator Moving sidewalk, lift 그리고 hoists, inclined railways, sky lifts 그리고 놀이기구(Amusement rides)와 같은 리프팅 장치나 이동장치를 검사한다.

기계조사관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주방 기계, 온냉방장치, 가솔린, 부탄 탱크 가스, 유류 파이프, 가스·유류 전열기기의 설치를 조사한다.

배관조사관은 개인쓰레기 처리(private disposal system), 상수공급, 분배배관의 형태, 하수, 쓰레기, 환기구를 포함한 배관시스템을 검사한다.

공공토목공사(public works)의 조사관은 하수처리시스템, 고속도로, 교량 그리고 댐 등의 연방 주, 지자체(지역정부) 공사가 세부 계약사항을 따르는지를 확인한다. 그들은 굴착과 매립, 콘크리트 거푸집의 설치(배치), 콘크리트의 배합과 타설, 아스팔트 포장, 땅 고르기 작업 등의 공사를 검사한다. 그들은 계약변제를 계산이 가능하도록 그들이 사용한 자재와 작업사항을 기록한다.

공공토목공사의 조사관들은 고속도로,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하수도 공사(ditches)를 전문으로 한다. 다른 것으로는 교량과 댐 혹은 항만건설을 위한 준설작업(dredging operation)을 전문으로 한다.

주택검사관(Home inspector)들은 일반적

1)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23호 서식중의 대지현황과 동규칙 제19조의 2 제6호의 해당사항
2)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과 같은 공사감리방법

주택검사관(Home Inspector)들은 일반적으로 신축한 주택이나 예전에 소유하였던 집을 검사한다.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택의 구성요소, 구조의 상황조건들을 점검하기 위하여 주택검사관을 고용(채용)한다. 이들은 전기, 배관,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와 같은 전문화된 분야에 대한 건축자재와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으로 신축한 주택이나 예전에 누구인가 소유하였던 집을 검사한다. 장래에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택의 시스템 구성요소, 구조의 상황조건들을 보고하고 검사하기 위하여 주택검사관(Home inspector)을 고용(채용)한다. 주택검사관들은 전적으로 주택 매매에 앞서 바로 고용되거나 아니면 매매계약 시 우연히 고용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구조상 품질을 위해 주택검사관들은 수도나 가스 등 배관시설, 전기 가열 또는 냉방시스템에서부터 지붕(지하실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택의 시스템이나 특징 등을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사중인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소유주는 마무리된 작업이 디자인의 특성과 설계시방 (design specification)에 의하여 실시될 것인지를 확실하기 위하여 특별검사관 (specialization inspector)을 활용할 수 있다.

건축프로젝트, 건축물에 점유자가 그리고 다른 서류와 관련된 모두 자세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쉽게 수정되고 정확성이 유지되거나 up date되기 쉽게끔 한다. 예를들면 검사관들은 한 장소를 검사하는 동안 발견된 것들을 수시로 기록할 수 있도록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검사관들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이것은 검사관들이 건축검사활동 상황을 쉽게 모니터링(감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행된 허가사항을 계속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가 근본적으로는 시각적이라 하더라도 검사관들은 측정기구(테이프), 조사용 도구, 메터링 도구(metering device) 또는 테스트장비(예를 들면 콘크리트 강도검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검사관들은 작업일지

를 작성, 사진촬영하고 보고서를 정리 보관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들이 발견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보기도 한다. 예를 들면 건설검사관 (Construction Inspector)들은 규약, 법령위반 또는 계약상의 특징이나 허가된 계획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건축계약자, 관리인 또는 감독관들에게 통보한다. 문제점이 적당한 기간 또는 정해진 기간동안에 시정되지 않는다면 허가권자의 검사관들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많은 검사관들은 적합한 허가없이 건설되거나 개조된 것을 조사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된 검사관들은 알맞은 디자인, 건설 그리고 건물사용에 관련된 법을 집행한다. 그들은 허가된 법 테두리 안에서 위법자들이 허가를 받거나 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작업상황

공사와 건축물의 조사관들은 보통 혼자서 일을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검사관들이 공사에 있어서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일처리를 필요로 할 때 몇몇에게 규모가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가 할당되기도 한다.

그들이 건설현장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다른 검사관들은 현장사무소에서 설계도를 살펴보거나 전화, 질의(편지)에 답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 스케줄을 작성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현장부지의 조사는 흙투성이의 장비, 자재, 파재가 난장판일지라도 관여하지 않는다. 검사관(조사)들은 사다리를 기어서 올라가는 일도 있다. 많은 계단을 다녀야 하며 또는 협소한 공간에 기어다니는 일도 있다. 비록 그

들의 일이 대체로 다른 공사의 노동자와 같이 위험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화이버 헬멧 등의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검사관(조사관)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근무시간에서 일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공사가 진행될 때에 추가 근무를 하기도 한다. 또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검사관(조사관)들은 즉시 대처해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근무를 하기도 한다.

고 용

건설과 건축의 검사관들은 2000년도에 75,000명이었다. 지방정부, 주요지자체 혹은 주립 건축부서에는 그 중의 49%를 고용되어 있다. 지방정부 검사관의 고용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도시 근교나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정부는 많은 플랜조사관(plan examiners) 혹은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보일러, 전기를 전문으로 하는 조사관, 그리고 엘리베이터 조사관을 포함한 많은 조사직 직원을 채용한다.

다른 17%의 건설과 건축물의 조사관들은 계약직이거나 수당을 받는 조사관으로써 엔지니어링과 건축서비스 회사에서 일한다. 이들 중 대다수가 잠재적인 부동산 구매자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Home Inspector들이다. 나머지 조사관들의 대다수는 다른 서비스 산업체들(Industries)의 주정부에서 일한다.

교육훈련과 다른 자격요건 그리고 승진

비록 어느 곳에 고용되는가에 따라 요구조건이 다양하지만 건설과 건축물 조사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조적이거나 또는 중건설(Heavy construction)과 같은 일반적인 분야, 철골과 같은 전문화된 분야와 전기, 배

이들의 검사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공사초기의 진행 단계부터 허가권자가 허가한 사항대로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 검사에 합격하지 않으면 공사가 지체되고 건축주에 손해를 주게 되므로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며, 바로 클레임(Claim)을 걸게 되거나 소송에 이르게 된다.

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조와 같은 전문화된 분야에 대한 건축자재와 실제 건축에 걸쳐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과 건축검사관의 지원자들은 건설공사관리인(manager), 감리자(Supervisor) 혹은 전문기술자(craft worker)로서의 다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조사관들은 이전에 목수, 전기기술자, 배관용 파이프 조정기술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검사관(조사관)들은 교육, 경험, 지식, 기술이 적절하게 결합된 지식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경험뿐만 아니라 정규교육을 받은 지원자를 선호한다.

대다수의 고용주들은 고등학교 졸업증이나 그에 준하는 상당한 경력을 지닌 지원자를 요구한다. 종종 고용주는 공학이나 건축(Engineering or Architecture)을 전공하거나 Building Inspection, 건설기술(Construction technology), 제도(drafting) 그리고 수학(mathematics)을 공부한 전문적인 공과대학이나 관련 대학으로부터 학위를 받은 자들을 찾기도 한다.

많은 지역적 대학이 건물검사기술(Building Inspection Technology)에 관련한 학위나 자격증을 제공한다. 설계도의 이해(Blueprint Reading), 대수학, 기하학 그리고 영어가 능통한 자를 채용한다.

건설과 건축물의 검사관들은 현장에서 견고, 오르기 위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또한 운전면허도 소지해야 한다. 더욱이 많은 지방자치제, 주 연방정부에서는 공무원시험(Civil Service Exam)에 통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건설, 건축 검사관들(Construction & Building Inspectors)의 학습에 대해 직장에서도 많은 훈련·교육을 받는다. 숙련된 검사관들과 함께 일하면서 법전(Codes), 규칙(Ordinances) 그리고 규정(Regulation)과 검사기술기법(Inspection techniques), 계약시방(Contract specification) 그리고 보고서 작성의 의무화와 기록보관에 대해 배우게 된다.

그들은 주거건물(Residential building)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공사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어려운 공사에 할당을 받게 된다. 엔지니어나 건축학(건축공학)의 학위는 감독관으로서 승진이 빠르며 이들의 Staff이 될 수 있는 자를 요구하고 있다.³⁾

그들은 건축시공자와 일반적인 공공건물의 규약, 건설업무 그리고 기술개발에 대해 조언·충고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 건축(Construction & Building) 검사관들은 각 지역의 변화들을 체크해서 모든 지역과 병행해 나간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연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많은 고용주들(공적 주체)은 기술·경험·공사자재에 대해 검사관들이 폭넓은 지식을 갖도록 정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없는 작은 대행업체나 회사에서 근무하는 조사관들은 주정부가 후원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지역학교나 서신·통신(Correspondence) 코스에 참여하거나 시범규정기관(model code organizations)과 같은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후원하는 세미나에 참가해서 그들의 기술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한다.

대다수의 주정부나 도시에서는 고용을 위해 몇 가지 형태의 자격증을 요구한다. 요구하는 곳이 없더라도 자격증을 가진 자는 staff의 높은 자리에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검사관은 실질적인 경험과 교육 등으로 아울러 엄격한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항목은 요구되는 규약(code requirement), 건설기술기법(construction techniques), 그리고 자재류(materials)이다. 3가지 주요기구(model code organization)는 다른 전문적인 회원제 연합회가 하는 것과 같이 무상으로 자격증을 부여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육과 선행학습 없이 지정된 분야에서의 시험 합격으로써 자격을 준다. 많은 자격증은 Inspection과 조사관(plan examiners)에서 수여되는데, 그것은 국제규준협의회(International code council)에 의해 제공되는 호칭의 'CBO'(Certified Building Official : 면허증을 가진 공무원)를 포함한 매우 다양한 분야가 해당된다.

직업전망(Job outlook)

건설, 건축 검사관의 고용은 2010년까지 모든 지위가 평균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의 안전과 구조물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계속적으로 건설·건축검사관의 수요를 채우고 있다.

게다가 고용증대가 예상되면서 몇 개의 빈자리는 다른 직위나 남은 노동력으로 검사관을 대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며 잘 훈련된 기능자는 특히 유리하게 기회를 포착할

3) 이들은 검사관의 Staff의 member들은 거의 정규공과대학 출신자임.

우리나라의 검사업무는 공무원(국가)의 편의를 위한 제도임으로 그 업무를 허가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허가권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제를 확보해야 한다. 이 제도 안을 우리협회로 넘긴다면 그 인력과 체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기획은 설계검사관이 나 조사관의 자격증 소지나 또는 대학에서 공학·건축학을 이수한 숙련된 감독관이나 조사관에게 자리를 부여한다. Plans와 설계도(Blue print)를 평가하고 이해하는 분야와 같은 전반적인 건축, 기술과 실제에 대한 지식이 필수사항이다.

검사관은 건설에 있어서 유지와 보수를 포함한 모든 단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기간에 신설 건설이 적어질 때에도 직장을 실직할 염려가 없다.

부동산 거래시장이 활발해지고 인기가 증가할수록 home inspector의 고용은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 특히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의도에 의해 조사에 대해 하청을 주는 경향과 개인적인 Inspection service의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건축서비스하는 회사에 좋은 취업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소 득

건설과 건축의 검사관의 연소득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기본은 대략 \$38,750이며, 최하의 소득은 연봉 \$24,370에서 최고 \$56,570으로 연평균 소득이 \$40,470이다. 이 중에는 최고 소득은 \$56,570(약 56,200,000/원 정도)나 된다.

2000년도에 조사된 건설·건축의 검사관의 수가 가장 많았던 산업체들의 소득 평균 값은 다음과 같다.

- 지방정부 \$39,410(약 3,600,000원/월)
 - 주 정부 \$38,370(약 3,500,000원/월)
 - 엔지니어링과 건축서비스 \$37,840(약 3,450,000원/월)
- 일반적으로 설계조사관(plan examiner)

을 포함한 Construction Inspectors들이 가장 높은 봉급을 받고 있다.

대도시의 소득은 작은 지방의 소득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 건설, 건축 검사관들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문제의 진단 데이터를 활용(조정)하는 능력이나 건축기준법(건축법)과 원칙에 대한 지식을 종합하여 수행한다.

이와 비슷한 여러 기술들을 조합하여 활용하는 직업으로는 Architects, Except landscape and naval; Construction managers; civil engineers; cost estimators; drafters; engineering technicians; and surveyors, cartographers, photogrammetrists, and surveying technicians 등이 있다.

미국의 검사제도와 비교분석

미국의 건축공사에 대한 검사제도의 검사 방법은 한국이나 일본의 검사 방법이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은 허가권자의 공적업무를 영입하는 건축사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감시와 검사, 사용검사를 대행하도록 한 것은 없다. 이들의 검사는 공사초기단계의 기초와 지정, 건축물의 구조, 건축물의 품질 등 기준과 법규에 적합한지를 조사, 검사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공사초기의 공사진행 단계부터 허가권자가 허가한 사항대로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

검사에 합격하지 않으면 공권력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공사가 지체되고 건축주에 손해를 주게 되므로 Client는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며 바로 Claim을 걸게 되거나 소송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적용하는 공사감리와 공적 업무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으로 최종사용 검사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특히 설계를 하고 공사감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공적인 검사업무를 맡겨 그업무와 공사감리를 제대로 하는지를 공무원 의제로 처벌과 시공자의 공사에 대한 감사업무까지 대행하도록 제도화된 것은 잘못된 제도임은 틀림없다. 설계와 감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공적업무인 검사 업무까지의 부담은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인력의 보수에 대해 설계비 조나 감리비조로 감당이 어려우며 사무소의 경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정성이 없다. 이로 인한 설계 경쟁질서가 무너지며 부실의 만연과 건축주의 피해가 커진다.

이 대행업무의 제도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이 제도로 인해 공사감리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

공사감리란 건축주의 이해를 대행하는 업무다. 공사를 통해 시공자(건축주)가 공사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재시공·개선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고, 계약한대로 건축주의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해 공사감리자를 채용하는 것이며 이 제도는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검사업무(사용검사)는 미국이나 일본과 다르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위한 검사업무는 공무원(국가)의 편의를 위한 제도임으로 그 업무를 허가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허가권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제를 확보해야 한다. 이 제도 안을 우리협회로 넘긴다면 그 인력과 체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검사업무를 허가권자에게 돌려준다 하더라도 건축공사에 대한 검사만이라도 미합중국의 검사고용제도와 같이 건축사 자격자를 기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 인력의 확보는

건축사 업무를 정형화하자면 시공자의 부실과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자의 담보책임(Claim)도
건축사가 지도해야 하며, 건축주와 시공자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건축주에게 조언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공사를 제대로 하고 건축주를 위하여 감리를 하자면 설계도서 작성부터
부실이 없도록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사법고시에 합격자의 연수교육 후 판사, 검사, 변호사 지원제로 하여 이들은 주요 staff로 기용, 업역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다.

2004년 5월 6일 건설교통부 한국건설평가원에서 용역을 의뢰한 주관 연구기관인 홍익대학교에서 발표한 '설계·감리 기술 진흥 및 육성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소개된 외국사례 중 미국검사제도방법과 다르며 미국의 검사제도와 같은 것처럼 인용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공사감리든, 검사든 공사착공초기부터 단계적 공사마다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토론과 보고서에는 공사결과에 대한 검사확인을 해야 한다고 한다(본 연구보고서 105page). 이 제도의 개선안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건축사의 공사감리와 조사, 검사 확인업무로 사용검사를 현행대로 건축사가 수행하자는 뜻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건축법에 위반하고 부실공사를 시정·재시공을 위해 공사결과에 의한 검사만으로 과연 시정·재시공이 가능할까한다. 이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다. 이 연구보고서에 의한 제도 개선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4년 10월 27일~12월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소규모 건축의 민원해소방안'에서 미합중국의 검사제도를 인용하였지만 미국식이든, 한국식이든 간에 검사방안도 없이 미합중국제도라고 막연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의 외국의 사례는 먼저 우리제도의 안을 제시하고 외국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업무를 내놓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우리 업

무의 정형화와 업무를 정립하여 인식하는데 장애를 주며 혼란스럽게 한다.

차제에 우리 회원들은 우리의 업무를 바로 정립하여 인식하여야 하며, 우리 업무를 바로 정형화하자면 시공자의 부실과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자의 담보책임(Claim)도 우리가 지도해야 하며, 건축주와 시공자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건축주에게 조언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공사를 제대로 하고 건축주를 위하여 감리를 하자면 우리들이 먼저 설계도서 작성부터 부실이 없도록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규모 건축물의 공적업무인 건축물의 검사는 설계와 감리를 업으로 하는 자가 공적업무의 대행은 정당성이 없으며, 이 제도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합리화 방향은 공공의 확인업무는 제3의 대행자가 전담하는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공적업무를 분리하자는 방안에 따라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외국 사례를 들어 이 방안의 타당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현행제도의 부조리를 지적하는 등 건설교통부의 입법예고안에는 검사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관계기관에 우리들의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현행법의 공적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을 분리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어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논의하여 그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검사업무를 분리하는데 있어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인의 공인과 기용기준이 있어야 한다. 전문인의

기용기준이 없이 검사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문인의 기준은 검사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국가가 공인한 인증자라할 것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도 전문분야의 종사자들은 자격본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자격자라야 하며, 그 법률에 따라 필요한 자들이며 이들을 기용한다면 기술자의 이동과 공백을 커버하기 위해 정부가 적절한 기술인력을 안배할 수 있다면 이 제도도 무난하며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부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적절한 인력안배를 고려하지 않고 분리하자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규제안 생략)

특히 소규모 단순한 건축물은 공사진행이 빠르므로 이에 따라 감시와 검사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설계와 Contract Specification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설계도서가 타당성이 있는지의 검토도 강화되어야 하며, 공사초기단계부터 검사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공사감리도 활발해지며 감리자는 건축물의 하자가 없도록 건축주의 이해를 대행하기 위한 수단이 생기게 된다.

모든 건축물이 크든 작든 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공사감리자는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건축주의 이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하며 건축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의 강화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는 국제적인 추세이며 타당성이 있다. 우리에게 당면한 제도가 바르게 정착한다면 우리의 업무가 정형화가 되며 국제화의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09(완)

Dutch Modern Housings

원제 :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 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역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흐린베르흐(Donald I. Grinberg)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역자 주>

목	차
01_역자서문/첫머리에/산업혁명 이전의 주거상황/산업화와 도시화	
02_1900년 이전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03_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카미로 지테의 영향	
04_건축사의 새로운 역할	
05_전원도시의 전통	
06_집합성과 공유공간	
07_표준화	
08_이데오르기(목적과 수단)/공간의 새로운 개념	
09_공간의 개방성:고층화/결론	

※ 저자 흐린베르흐(Donald I. Grinberg)는 미국인으로 하버드대학 대학원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건너가 델프트 공과대학 건축학부에서 연구하였다. 부인이 네덜란드인으로 자료를 모으거나 분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흐린베르흐 자신도 능숙하게 네덜란드어를 구사하게 되어, 네덜란드 체재 5년간의 연구 결과로 출판된 것이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이다.

※ 역자 최재석은 1982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강원대, 목원대, 청주대 건축학과 강사를 거쳐 현재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전공은 건축 설계·의장으로, 특히 네덜란드 근대건축운동 중 '더 스테일(De Stijl)' 운동과 관련한 조형사상 및 색채실험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한건축학회·한국건축역사학회·일본건축학회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 건축사(1997)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저서로 '네덜란드 근대건축', '원주 근대건축', '더 스테일의 역사와 이념' 등이 있다.

공간의 개방성 : 고층화

네덜란드에서 지어진 대부분의 고층건축은 해외에서 도입된 건축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지반이 무르다는 점과 산업화의 지면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 고층건축의 발전은 뉴욕과 시카고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경제적인 구조와 사회적 요구의 형태로 나타난 결과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집합주택에 엘리베이터를 도입함으로써 다층화 건축(multi-story building)의 실현을 도모하자는 의견은 네덜란드에서보다는 해외에서 특히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었다. 다른 나라보다 고층화가 늦어졌지만 네덜란드가 남긴 중요한 업적으로 뷔드벨드(H.Th. Wijdeveld)와 듀이커(Duiker)가 제안한 고층건축계획안과 1934년 로테르담에 건설된 베르호폴더(Bergpolder) 고층집합주택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고층건축에 대한 이념적 전개를 기술, 주택, 자연과의 관계성, 그리고 건축형식에 대한 상징적 가치 등 이미 논의된 다양한 이념과 관련하여 기능주의 이념에 관한 몇 가지의 낭만적 기원을 찾고자 한다.

미국의 이미지

미국의 고층건축에 대한 관심은 1890년경보다 조금 앞서 유럽을 통하여 전해졌다. 네덜란드에서 발행되는 전문잡지와 일간지의 수는 극히 적었지만 가장 새롭고 수준 높은 미국의 고층건축의 발전에 대한 경이로움을 소개하고 있다.

1920년 말까지 미국을 여행하는 유럽의 건축가는 그리 많지 않았다. 당시에는 도시

발간이라든가 사진촬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베를라헤는 1911년 미국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가장 선구자적인 네덜란드 건축가였다.

1906년 6월, 루이스 설리번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던 건축가 윌리엄 그레이 퍼셀(William Gray Purcell)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베를라헤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여기서 퍼셀은 설리번과 라이트의 건축에 관하여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베를라헤는 설리번과 라이트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건축철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쓰고 있다.¹⁾

1911년 베를라헤는 시카고에 있는 퍼셀 사무실을 방문하고 설리번을 만나 하룻밤을 지냈다. 그가 다시 유럽으로 돌아온 후에는 미국여행에 관한 내용을 잡지 등에 기고하고, 여러 군데서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 내용의 대부분은 시카고의 고층건축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현대건축의 흐름에 관한 것이었다. 베를라헤는 설리번의 영향을 받았으며²⁾, 이는 1914년 런던에 지은 네덜란드 집(Holland House)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활동한 다른 건축가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설리번에 대한 베를라헤의 높은 평가에 대해 다른 건축가들은 고층건축에 적합한 수직적 표현의 모색이라는 미학적 접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오히려 베를라헤 자신은 자신의 작업에 고층집합주택의 이념을 결코 적용하지는 않았다. 베를라헤에 있어서 라이트의 영향은 유럽의 건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것은 유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던 고층건축의 미학적 측면보다 더 상위의 이념이었다. 왜

냐하면 유럽에서 미국식 고층건축의 건설이 도시공간계획의 결점(缺點)으로 오래 전부터 비난받아 왔기 때문이다.³⁾

유럽의 대표적 고층건축에 관한 계획은 미국의 사례로부터 차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건축형태(building type)는 미국적 문맥과는 전혀 다른 상징적 내용을 갖고 있다.

낭만적 사회주의

1919년 9월, 웬딩언(Wendingen)지의 창간 겸 편집자인 뷔드벨드에 의해 놀랄만한 고층건축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안(그림 1~3)은 암스테르담의 폰델공원단지(Vondel Park)를 재개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국립대극장(Volks Theater)과 이것에 부



그림 1. 뷔드벨드, 폰델공원 계획안(1)의 배치도(암스테르담), 1919
이 계획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독립된 타워건축물을 구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계획안은 로고르비제의 300만명 현대도시계획안보다 3년 앞선 것이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직선축과 대규모적 성격에서 볼 때, 이 계획안은 새로운 자동차 시대에 대한 뷔드벨드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뷔드벨드의 이상적이고 낭만적 성격은 나중에 전개된 고층집합주택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확립시켜주고 있다. 듀이커가 고층건축(1927~30)에서 순수하고 합리적인 바탕에 근거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이나 아마도 뷔드벨드의 계획안과 웬딩언지의 특징에 실려 있는 고층건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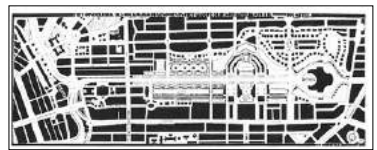


그림 2. 뷔드벨드, 폰델공원 계획안(2)의 배치도(암스테르담), 1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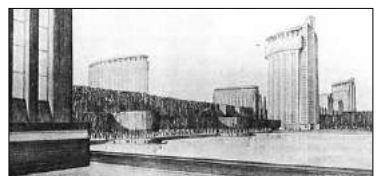


그림 3. 단지 중앙의 고층건축군의 투시도

1) Leonard K. Eaton, Louis Sullivan and Hendrik Berlage, American architecture Comes of Age-European Reaction to H. H. Richardson and Louis Sullivan (Cambridge, Mass., 1972), p.208.

2) Eaton, p.231: 베를라헤는 라이트(Wright)보다는 설리번(Sullivan)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3) 유럽에 있어 고층집합주택에 대한 비평가 및 지지자 모두 미국형 고층건물은 전체적인 도시의 유효성을 높일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어윈(Unwin)은 1922년 암스테르담의 강연회에서 고층 및 고밀도 지구의 문제점에 관하여 상식적인 비판을 반복하여 주장하였다. 듀이커는 미국 고층건물의 기술적 의의는 인정하지만 공간의 구상이 빈약하기 때문에 건축으로서의 통일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Raymond Unwin, Eenige stedenbouwkundige problemen, Part III of the City Planning series of the Nederlandsch Instituut voor Volkshuisvesting en Stedenbouw (Haaelem, 1923), p.27, p.17, J. Duiker, Hoogbouw(Rotterdam, 1930), p.11.

속되는 다양한 시설 즉 야외극장, 스포츠 홀 뿐만 아니라 공원 내에 독립한 30층 높이의 초고층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안에서 중요한 것은 직선적 계획 원리에 바탕을 둔 19세기 영국식 정원설계법을 완전히 배제하고, 또한 르 꼬르뷔제가 1921년부터 1922년에 걸쳐서 계획한 '300만 현대도시계획안'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파리 '보아쟁 계획(Plan Voisin)'⁴⁾보다도 앞서 계획되었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혁명적인 제안인가?

뷔드벨드는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만 상당히 어릴 적부터 네덜란드 국내와 해외의 여러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다. 특히 그는 네덜란드 1세대 건축가인 카웨퍼스(P.J.H. Cuypers)의 사무실에서 6년간(1899~1905) 근무한 적이 있다. 여기서 뷔드벨드는 러스킨과 모리스의 이념을 접하게 되고, 이들로부터 현대사회에 있어서 데카당(decadence)에 대한 관찰에 감명을 받았다.⁵⁾ 카웨퍼스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뷔드벨드는 문화로서의 건축이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⁶⁾

또한 뷔드벨드는 카웨퍼스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바젤(De Bazel)과 라우베릭스(J.L.M. Lauweriks)와 친분을 쌓는 기회도 갖는다. 이들은 당시 신지학 운동(theosophical movement)에 참가하였으나 1895년 뷔드벨드는 이미 카웨퍼스 사무실을 떠난 이후였다. 뷔드벨드는 1905년 영국으로 건너가 여기서 발생한 미술공예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뷔드벨드는 작가이자 이상주의자인 프레데릭 판 에이던(Frederik van Eeden)을 높이 평가하고 그가 제안한 이상적인 공동체 여드 후이(Het

Gooi)에 속한 발덴(Walden)은 20세기초기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뷔드벨드는 라우베릭스와 교류로 웬딩언지의 창간을 위한 협력 관계로 발전한다. 이런 뷔드벨드의 지적 배경요소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으로 발전하였다.

모리스, 신지학 그리고 뷔드벨드 자신이 꿈꾸고 있던 미래의 비전이라는 지적 환경에 있어서 1915년 뷔드벨드가 제안한 '환상적인 건축설계경기'는 십자의 왕관을 씌운 중심적 건축형태이지만 고층 도시건축을 능가할 정도의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⁷⁾

뷔드벨드의 사상이 가지는 표현주의적 성격은 1918년 1월, 웬딩언지의 창간호에 발표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1918년이 끝날 무렵, 뷔드벨드는 베를린을 방문하여 멘델존(Mendelsohn)과 베네(Behne) 등과 만나게 된다. 베를린 건축가들과 연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던 뷔드벨드는 타우트(B. Taut)의 저서 '도시의 왕관'을 탐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폰델공원계획안은 도시성장을 위한 직감적 방안이었고,⁸⁾ 실현 가능성보다는 새로운 질서의 상징으로서의 성격이 더 뚜렷하였다. 1919년 9월, 폰델공원계획안의 잡지 기고와 더불어 발표된 그의 짧은 해설은 고층건축의 이미지가 어떻게 사회적 개념과 관계 지을 수 있을까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다.

"위대한 힘이 뻗어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희망이 현대사회의 거대한 중심으로부터 솟구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중심부의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수백만의 노동자는 자기들의 이상이 성장사회의 공동체 밖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이다."⁹⁾

뷔드벨드의 계획안은 건축의 미래사회에서 비전을 상징화하기 위해 응용한 이미지였다. 폰델공원계획안에서 볼 수 있는 유사-미래파적(quasi-futurist) 성격은 뷔드벨드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스테일(De Stijl)의 이념과 공통적인 기반을 공유하고 있었다. 1913년 로테르담에서 미래파의 전시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보다 1년 앞서 1912년 파리에서 이미 같은 전시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에 출품한 작품의 일부는 헤이그에서도 전시되었다.¹⁰⁾

그러나 뷔드벨드가 1914년에 만든 폰델공원계획안은 1919년 8월 더 스테일지에 소개된 상펠리아(Sant'Elia)의 '계단형 집합주택 계획안'보다도 더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¹¹⁾

상펠리아의 표현 이미지는 네덜란드 건축가 스타름(M. Stam)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1922년 실시된 코니히스베르흐(Konigsberg) 설계경기 안에서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다. 뷔드벨드는 1923년 웬딩언지에 고층건축에 관한 특집을 낼 때 상펠리아 작품은 게재하지 못하였다. 1917년 마



그림 4. 고층건축에 관한 특집이 실려있는 웬딩언지의 표지(1923)

4) 르 꼬르뷔제가 뷔드벨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 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다. 이것에 관해서 저자는 1974년 6월 1일 뷔드벨드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다. 여기서 그는 '뷔드벨드는 암스테르담 확장계획이 진행된 직후인 1919년부터 1920년 사이에 이 계획의 복사본을 르 꼬르뷔제에게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것에 오픈 스페이스에서의 독립 타워건물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회고하고 있다. 뷔드벨드는 보낸 날짜를 1920년경이라고 지적하지만, 이 날짜는 좀더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파넬리(Fanelli)는 앞서 게재한 저서 p.97에서 뷔드벨드는 1920년 파리에서 오자팡(Ozanfant)을 만났다고 기술하고 있다.

5) Nic. N. Tummers, 'De mise en scene van de architectuur - Plan the impossible', Bouwkundig Weekblad, No.19(1965), p.336. 저자가 폰델공원계획의 기초를 끝낸 것에 대해 절의한 결과, 특히 모리스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었다. 뷔드벨드(Wijdeveld)가 모리스(Morris)와 러스킨(Ruskin)으로부터 받은 충격에 관해 알고 싶으면 H.Th. Wijdeveld, 'Illies van de Komende Schoonheid', Aechitectura, 23, No.42(1915), p.267을 참조할 것.

6) P.J.H. Cuypers는 베를라해와 같이 '문화로서의 건축이념을 향해 커다란 활력을 부여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Fanelli, p.345.

7) Frank, Michel de Klerk, p.58.

리네티는 두스부르호에게 상펠리아 작품을 주의 깊게 보도록 권유하였다.¹²⁾ 1919년 뷔드벨드의 폰델공원계획안은 상펠리아의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뷔드벨드가 쓴 폰델공원계획안에 관한 해설에서 미래파적 이념을 감지할 수 있다. 이보다 조금 앞서 건축가 빌스(J. Wils)는 미래파와 라이트를 대등하게 다룬 바 있다.¹³⁾ 뷔드벨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도시는 근대적인 운동을 지향해야만 한다. 그리고 불가피한 과거의 잔재는 새로운 시대의 경제와 기계화의 요구에 대해서 길을 양보해야만 한다. 도시의 고동(heartbeat)은 빠르고 그리고 혈액은 메트로폴리스의 중심에서 아름다운 흐름의 교통과 병행하여 발전해야만 하는 정맥(veins)을 통하여 지금 이상으로 빠르게 순환하고 있다.”¹⁴⁾

이미지의 확산

1919년부터 1920년 사이, 뷔드벨드는 폰델공원계획안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이념을 암스테르담 시 전체에 걸쳐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다. 암스테르담을 위한 뷔드벨드의 이상적인 계획은 역사적 중심지로서의 핵(core)을 보존시키고, 이 주위를 8km 정도의 폭으로 링의 형태로 둘러싸는 것이다.¹⁵⁾

중심으로부터 방사형으로 확장되어 가는 직선상의 지역(linear zones)에 고층건축을 배치하고 광대한 녹색의 열린 공간이 방사형 지역을 상호 분리시키고 있다. 이런 계획보다도 더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1923년 발행된 웅딩언지 제3호에 『업무와 주거시설

의 문제해결방법으로써 고층건축』이라는 제목의 특집이었다. 이 특집은 테마의 분석보다는 오히려 이미지의 집합을 그리고 웅딩언지의 다양성과 비시스템적 성격을 대변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다양한 미국 고층건축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 프리드리히 거리(Friedrichstrasse), 쿨니호스베르흐 등의 설계경기계획안이 함께 게재되어 있어 특이할 만하다. 하지만 시카고 트리뷴 설계경기에 참가한 네덜란드 건축가의 제출안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뉘이꺼의 작품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웅딩언지에 실린 고층건축에 대한

특집은 새로운 미학을 정당화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폴레믹(polemic)하지는 않았으나 고층건축에 대한 유럽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었다. 고층건축에 관한 특집의 간행으로 뷔드벨드가 생각한 고층건축의 상징적인 의미와 의도를 알 수 있다.

“자본의 잣대인 고층건축은 미국에서 신탁회사와 은행의 건물로 사용되어질 정도로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듯이, 이것은 자본주의의 화려한 시대에 격렬한 운동이 동반하고 있었다. 현재 이런 과정은 또 다른 하나의 선구자로 보인다.”¹⁶⁾

이런 정신은 웅딩언지의 표지에 잘 나타나 있다(그림 4). 방사형의 빛과 힘이 고층건축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는 파이닝거(Feininger)가 1919년 바우하우스 표지를 위



그림 5. 스타, 민영집합주택(암스테르담, 빅토리 광장), 1929~32

암스테르담 최초의 고층건축물인 이 집합주택은 '1915년 베를라헤가 암스테르담시 남부확장계획안에 기초한 도시경관의 미학적 강조를 부가한다'라고 하는 요구에 기인하고 있다. 이 계획부지는 도로의 주요 교차점에 있었다. 뉘이꺼의 고층건축은 생활공간이 남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매스와 공간의 구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스타의 집합주택에서 각 세대는 베를라헤의 직선축을 따라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뉘이꺼는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건설되는 것에 비판을 하였고, 또한 '거의 모든 경제적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끼고 있었다. 이 집합주택은 각층에 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부 24세대이다. 이 정도의 규모에 2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8) Tummers, De mise en scene van de architectuur, p.343.

1934년 뷔드벨드 계획에서 보이는 합리적 고찰에 관한 바우어(C. Bauer)의 지적은 부정확하다고 본다. '다중주택(multiple dwelling)의 잠재적 이점 및 경제성을 발견한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분석 작업은 뷔드벨드, 르 꼬르뷔제 그리고 그 밖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건축가가 착수하기까지는 아무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만약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미약한 것에 불과하였다', Modern Housing, p.56.

9) H.Th. Wijdeveld, Het Groote Volkstheater, Wendingen, No.9/10(1919)를 참조.

10) Banham, p.127.

11) De Stijl, II, No.10, p.115.

12) Banham, p.127.

13) Banham, p.165. Wendingen, No.6(1919), p.16을 참조할 것.

14) Wendingen, No.9/10(1919), p.8.

15) 이 계획에서 보여주는 집중적이고 방사상의 성격은 1905년 바젤의 세계도시(world capital)계획(Hague)과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에 신지학(神智學)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16) Wendingen, No.3(1923), p.3.

해 그린 것과 매우 흡사하다. 이미지가 낭만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웬딩언지에 실려 있는 고층건축에 관한 특징은 노동자용 고층건축 주거(high-rise dwellings)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라는 점에서 듀이꺼의 관심을 자극하였을지도 모른다.¹⁷⁾

뷔드벨드의 고층건축계획안에 내재되어 있는 낭만적 접근에 관한 논쟁은 1929년부터 1930년 사이의 루스트레흐트(Loosdrecht) 노동자 커뮤니티계획안에 대한 당시의 의견을 감지할 수 있다. 이 계획안은 당시 더 야흐드와 오쉴바우 건축가들의 이념과 일치하는 형태언어(formal idiom)로 디자인한 호숫가의 고층건축계획안이다.

로흐헴은 이 계획안을 1932년에 출간된 『건설』이라는 잡지에 게재하였다. 이것은 예술적, 문화적 재생에 공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로흐헴은 뷔드벨드와 그의 재정적인 후원자들이 건축을 사회적 문맥에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현실을 회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믿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노동자 커뮤니티는 대규모 그룹(big groups)이 새로운 것과 인생 전체에 대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그 결과를 이룰 수 있다.”¹⁸⁾

즉, 그는 고층건축이 갖는 최대의 특징은 미래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생산하는 이상주의지만 이 이미지는 새로운 건축의 사회적 의미가 이해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뷔드벨드의 고층건축계획안은 애매한 측면도 있다. 이런 애매모호함을 로흐헴 등의 건축가들은 ‘도시와 대지를 파괴하는 진부한 건설과정’이라고 단정 짓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욱 구체적인 전

개를 시도하고 있었다. 로흐헴은 이런 과정에 대한 사회적 지각만이 노동자 커뮤니티에 유효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뷔드벨드의 공헌은 고층건축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하는 미래파적 도시 이미지에 대한 기초를 발전시킨 것에 있다. 이런 포괄적인 이미지는 후에 도시 전체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고층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시키려는 건축가들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뷔드벨드는 고층건축이 갖는 상징적 의미에 미국적인 것과도 또 다른 의미를 부가하고, 그리고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도심부에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고층건축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뷔드벨드도 공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학적 적용

기능주의자들 스스로 고층집합주택을 어떤 측면에서 고찰하였는지를 기술하기 이전에 합리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가 뷔드벨드의 공상적이고 미래파적인 이미지만으로 전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해줄 필요가 있다.

암스테르담에서 고층집합주택의 최초의 형식은 19세기의 이념과 20세기 이념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상호작용의 형태를 명백히 구분 짓고 있다. 최초의 고층건축은 기본적으로 미학적 동기에 기초하여 건설되었다.

1925년 12월, 암스테르담시 시의회 의원인 홀 더 단(Gulden)과 보 이 쎄 빠 인(Boissenvain)은 ‘미학적 관점에서 볼 때, 4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은 어느 장소에 건축이 가능할까?’라는 전제로 건축물의 고도 제한 조례의 변경을 제안하였다.¹⁹⁾

이런 ‘시각적 강조를 얻기 위한 미학적 관점’²⁰⁾을 성립시키려는 배경은 지테와 어원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두 사람의 이념은 베를라헤의 암스테르담시 남부확장계획안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 계획안은 암스테르담에서 집합주택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를 위해 시장과 시의회 의원 중 사회민주당의 영향을 받고 있던 인사들에 의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집합주택은 일반적으로 건축조례 98조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 가능한 층수 이상으로



그림 6. 기준층 평면도
① 거실, ② 침실, ③ 부엌, ④ 욕실, ⑤ 발코니, ⑥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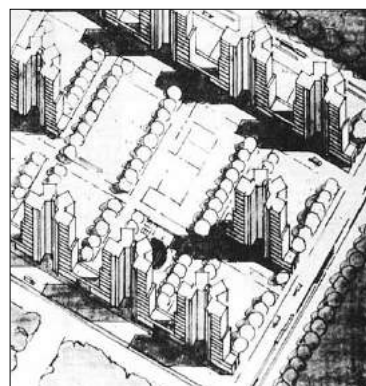


그림 7. 듀이꺼+비벤하, 고층건축계획안, 1927~30.
듀이꺼의 고층건축계획안은 스타일 계획한 암스테르담의 고층건축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다른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이 두 건축가의 계획은 베를라헤, 뷔드벨드, 르 꼬르뷔제의 작업과 공통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 뷔드벨드는 문명공학계획안(1919)과 고층건축에 관한 웬딩언지 특집(1923)으로 듀이꺼의 관심을 자극하였다. 베를라헤의 합리주의와 주택에 관한 사회적 책무는 고층건축에 관한 듀이꺼의 분석작업에 보다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건설기술과 계획규모의 분석을 통하여 듀이꺼는 통풍이 잘되고, 빛이 잘 들며, 비교적 넓은 공간을 확보한 주택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17) 이 관계성은 암스테르담의 Documentatie Centrum voor de Baukunst를 쓴 비르크(D.van Woerkom)이 지적한 바 있다. 이 의견은 ‘고층건축’ 중에서 듀이꺼가 사용한 그림의 대부분이 1923년 웬딩언지의 고층건축 특집호에 게재된 것과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증명되고 있다.

18) J. B. van Loghem, *Bouwen* (Amsterdam, 1932), p.46.

19) M.E.H. Tjaden, *Een Struggle for High Life te Amsterdam*, *Bouwedrijf*, 6, No.5(1929), pp.77~88.

20) Rapport van de Commissie voor den Hoogen Bouw(Amsterdam, 날짜 없음, 1932년으로 추정), p.4.

로 건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략) 도시미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경우 제한된 지구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원칙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인정하는 어떠한 의견도 없었다.”²¹⁾

1929년 1월,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졌지만 암스테르담에서는 다니엘 빌린 광장(Daniel Willinplein, 현재는 빅토리 광장/Victorieplein)지구를 포함하여 3지구만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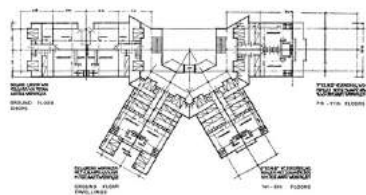


그림 8. 평면도, 각층의 성격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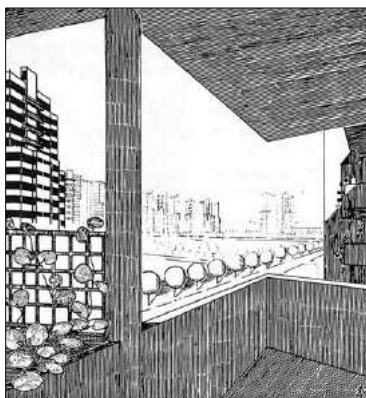


그림 9. 발코니에서 내다 본 전경의 스케치
 뉘이꺼와 로흐헴은 그들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층집합주택에 대한 주요한 지지자가 되었다. 이들은 전원도시 이념의 양상(樣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즉 뉘이꺼는 고층건축 계획에서 각 건물에 인정하는 오픈 스페이스와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개방적인 배치계획을 '대규모 전원도시 지구로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로흐헴은 1922년부터 1923년에 걸쳐 건설된 암스테르담의 바테르호라프스 메이어 집합주택에서 보다 직접적인 전원도시계획과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는 고층집합주택이 도심에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뉘이꺼와 비엔라의 계획안은, 특히 주택의 방위에 관한 고찰에서 설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르 꼬르뷔제의 '보아쟁 계획'과 '300만 현대도시계획안'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로흐헴은, 특히 르 꼬르뷔제를 상찬(常贊)하고 있지만 고층 집합주택이라고 하는 구상에서 볼 때 르 꼬르뷔제 계획안 이외는 연관성이 없었다. 이 계획안은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거부 이유로서 비싼 건설비용과 모서리 세대의 부적합성을 들고 있다.

한하여 적용되었다. 이는 베를라헤의 암스테르담시 남부확장계획안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었는데, 여기서 베를라헤는, 특히 고층건축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상징적 건축은 의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건축물이 확장계획을 통하여 건설됨으로서 중요한 장소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결과는 이미 1909년 발표된 어윈의 저서 『도시계획과 그 실천』에서 지적된 원리 중의 하나였다.

스탈은 1932년 중산층을 위한 고층집합주택(그림 5~6)을 설계한 듀독(Dudok)과 합리적이고 표현주의적인 요소를 융합시키는 유사한 작업을 하였다. 기본적으로 좀더 고층화가 의도되었고, 이런 고층집합주택의 방위는 베를라헤의 가로계획 축선(軸線)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결과로 집합주택의 반 이상이 북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건축물은 2개의 수직축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유리로 뒤덮인 계단실과 거대한 굴뚝이 그것이다.

이 두 요소는 도시경관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층건축물의 획일적인 성격(monolithic nature)을 깨뜨리는 것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스탈이 설계한 빅토리아 광장의 고층집합주택은 고층건축물의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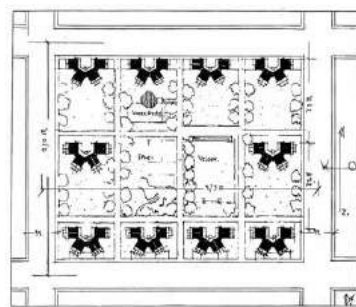


그림 10. 배치도

과 배면의 양면성 대립, 좌우대칭의 디자인, 표현상의 특징적인 요소로서 수직동선 요소의 활용과 같은 특징의 대부분은 1930년 뉘이꺼의 '고층건축' 계획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뉘이꺼의 비판을 받고 있었다. 특히 뉘이꺼는 한 층에 2세대씩 전부 24세대를 배치하였는데, 여기에 2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을 하였다. 그는 '거주자 개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조롱적인 농담을 하였다.

뉘이꺼의 작업은 뷔트벨드 작업의 낭만주의적 성격에서 신즉물주의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경계선상에 있었다. 이런 뉘이꺼의 접근은 암스테르담 고층집합주택에 관한 비평에서 간단히 표명되었다. "여기서 건축가는 경제적인 원칙을 거의 무시하였다. 노동자층의 범주에서 중앙설비가 필요하다면 우선 경제적으로 가능한 건설방법을 주의 깊게 찾지 않으면 안된다."²²⁾

합리성

1927년부터 1930년 사이에 뉘이꺼와 비엔라의 분석적인 작업은 '고층건축' (그림 7~10)이라는 책으로 정리되어 출판되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서술한 미학적 동기에 바탕을 둔 것과 매우 대조적으로 '분석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고층건축에 관한 웬딩언지의 특징은 뉘이꺼 등의 건축가를 자극하였으나 노동자를 위한 집합주택의 잠재적 상징성에 관해서는 베를라헤와 아우드의 전통적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뉘이꺼는 미국의 고층건축에서 볼 수 있는 빈약한 공간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21) Tjaden, p.77.

22) J. Duiker, Het Volk, January 1933.에 수록. E. J. Jelles and C.A. Alberts, Duiker 1890~1935, p.139에 영역(英譯). 이 번역은 Forum, 22, Nos. 5, 6(1972)에 실려 있는 내용을 다시 게재한 것이다.

“이러한 결점은 강렬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고층건축의 위상을 막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이것에 이르지 못하고 하하여 문화에 가장 가깝게 접속하고 있었다.”²³⁾

듀이커를 강하게 어필한 이미지의 바탕은 건물 내부에 다양한 공유설비를 집합화하는 것에 있었다. 1899년 베를라헤는 중앙난방의 위치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중앙난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회생활 전체에 걸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사람들에 의한 생활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한 개의 커다란 실내 난로인 것이다. 대규모 건물이 도시 한 가운데 우뚝 서 있고 굴뚝이 타워처럼 높이 솟아 있다. 공장의 벽과 같이 내부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신은 알거나 하는가? 거대한 불꽃을 만들어 내고 따뜻한 온기를 도시의 구석구석까지 보내고 있다. 마치 인간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다.”²⁴⁾

고층건축계획안의 중요한 공헌은 노동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설비를 공급하기 위한 시도가 건축의 경제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제한된 집합주택은 지금까지 설계되고 지어진 어떠한 집합주택보다도 수준 높은 것이다. 특히 듀이커가 제안한 고층 집합주택은 혁신적일 정도로 집합주택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집중화된 중앙 설비는 지금까지 개인주택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도하였다.”²⁵⁾

듀이커는 다른 신즉물주의 건축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련한 적이 적었지만 고층집합주택의 ‘집합적(collective)’

생활 이미지는 대단한 흡인력을 갖고 있었다. 고층건축에 대한 논쟁은 기술적인 측면이 대부분이지만 1933년 독일에서 발생한 정치적 대립은 그가 자기의 위치를 좀더 강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정치적 입장을 현실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1933년 듀이커는 사회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반대되어야만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크고 작은 정원으로 분리되어 서로 인접한 크고 작은 주택들의 배치, (생략) 모든 노동자들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정원이 붙어있는 집을 소유해야한다. 고층건축계획의 출현에 대한 고통스러운 외침은 완전히 브루주아적 성격으로 간주될 것이다.”²⁶⁾

이 이야기는 전원도시의 인식에 대한 완전한 거부로는 보이지 않지만 전원도시운동에 대한 듀이커와 다른 기능주의자의 책무는 이미 기술하였다. 이 언설에 관한 의외의 결론은, 특히 듀이커의 경우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하위드의 원리가 네덜란드에서 수정(修正)을 가함으로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듀이커는 전원도시가 갖는 브루주아적 특성이란가 통근시간의 문제, 그리고 근대적 기술의 장점을 활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는 고층집합주택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다음을 반복, 강조하고 있다.

“빛과 공기의 필요성, 이것이 전원도시의 장점이다.”²⁷⁾

그러나 그는 나중에 로흐햄 등의 건축가가 고층건축의 블록과 타워로 해결할 수 있는 공기와 개방성에 관해 완벽할 정도로 실험한 균질의 배치계획(homogeneous site plan)에 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그림 11~12)

미국에서의 실험과 대조적으로 듀이커는 언제나 집단으로서의 주동(dwelling blocks in groups)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간은 항상 개방적이되 폐쇄적인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이것은 1927년부터 1929년 사이에 헤이그에서 지어진 니르바나 집합주택(Nirwana flats)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계획은 비벤하와 공동으로 진행되었는데, 정방형 평면으로 구성된 5개 동(棟)이 지그재그로 배치되고, 모서리에서 서로 연결하였다(그림 13~16). 이 계획에서 5개의 블록 중 1동만이 건설되었다. 고층건축계획에서 보여준 타워 그룹(the group of towers)의 배치는 중심성을 갖는 공간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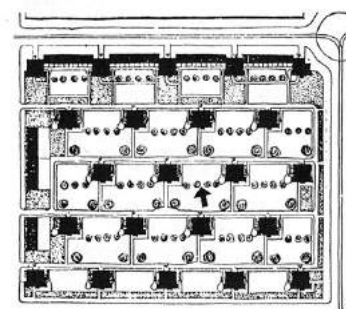


그림 11. 로흐햄, 설계경기에 제안된 저렴한 노동자용 집합주택의 배치도, 1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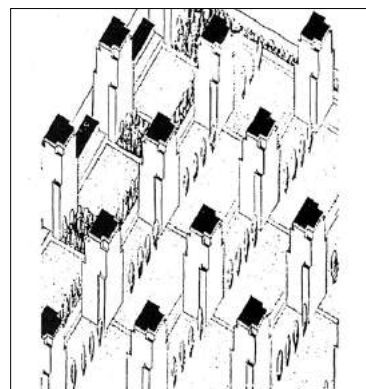


그림 12. 투시도

23) Duiker, Hoogbouw, pp.11-12.

24) H. P. Berlage, De Menselijke Woning, 1889년의 강연기록. Singelenberg, p.59에 인용되어 있다.

25) J. Duiker, Het Volk, January 1933에 수록.

26) Ibid.

27) Duiker, Hoogbouw, p.20.

4개의 날개(the four-armed)를 갖는 12층의 고층집합주택은 일자형 배치와 동일하게 남향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고층집합주택은 르 꼬르뷔제의 십자형 타워(Le Corbusiers cross-shaped towers)가 갖는 결점을 보완한 방위로 평가받고 있다.

고층건축의 성격에서 보면 듀이커의 관심은 수단과 목적이라는 두 가지 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매력이다. 듀이커가 계획한 쏬네스트랄 스타디움(Zonnestraal Sanatorium)과 오픈 에어 스쿨(Open Air School)은 새로운 건축의 다양한 측면, 특히 위생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고층집합주택의 기술적이고 집중화된 형태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측면에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듀이커와 몇몇 유럽의 건축가들

은 미국의 고층집합주택을 개선하는데 열성적이었다.

만약 박공(pediment)을 장식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유럽의 자층건축물에서 보여주는 솔직한 표현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고층건축은 구조해석이라는 현대기술의 적용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였다. 듀이커는 특히 경제적인 수단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또한 아메니티(amenity)를 가져온다고 하는 점에 집착하였다.

순수한 구조와 새로운 재료에 대한 매력도 있으며, 또한 고층건축만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고층건축』과 같은 시기에 간행된 뉴트라(Richard Neutra)의 『미국』이라는 저서에서 소위 누

드(nudity)구조로 불리는 고층건축의 사례를 많이 보여줌으로써 이런 시점을 가중시켰다.²⁸⁾

『고층건축』에 실려 있는 분석적 방법은 당시 네덜란드에서 건설 중에 있던 집합주택의 사례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노동자용 집합주택에 중앙 설비를 가설한다는 것은 비단 고층건축에 그치지 않았다.

그로피우스는 고층집합주택을 옹호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집합주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고층집합주택이라고 하는 이념은 완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층건축위원회의 부결

몇몇 사회주의적 인식을 갖고 있던 시의회 의원들은 암스테르담 남부에 스탈이 계획한 고층건축 볼끈 골라버의 건설에 대한 초기의 설계안에 관해 고층건축의 문제점을 좀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여 1929년 고층건축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전문가 중에는 네덜란드 국민주택·도시건축협회를 설립한 후디흐(D.Hudig), 주택공공위생 주임 검사관인 까(H.van der Kaar), 힐(Octavia Hill)의 제자이며 암스테르담시 건강위원회에 소속되었던 페크-벤트(L.van der Pek-Went), 그리고 구조기술자이며 건축가인 비벡하(J.G.Wiebenga)가 임명되었다.

비벡하는 이 위원회가 활동하기 이전부터 고층집합주택의 필요성을 주장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위원회의 멤버 중에서



그림 13. 다위까+비벡하, 니르바나 집합주택의 투시도 (헤이그, 뱌노르던하우트세베흐), 1927~30.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기성 집합주택이 네덜란드에서도 시장성이 높을 것이라는 비벡하의 제안에 기초하여 건설된 이 계획은 비교적 실패작이었다. 본래 5개동을 연속한 발코니로 연결시킬 계획이었지만 실제 1동만 건설되는데 그쳤다. 연속한 발코니는 규모가 작은 세대에 보다 큰 창고의 필요성이 시도되었다. 실제 이 건물은 초기에 의도된 것과 정반대로 융통성을 갖지 못하였다. 듀이커는 고층집합주택을 설계한 다른 건축가와 달리 건물과 관련하여 외부공간을 한정시키고 부분적으로 폐쇄된 공간을 만들었다. 듀이커는 항상 조직화된 집단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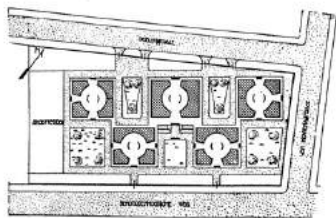


그림 14.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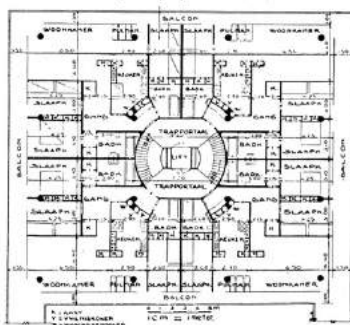


그림 15. 평면도



그림 16. 외부전경 사진

28) 정확한 서명은 R. Neutra, Amerika-Die Stibildung des Nenun Baren in Den Vereinigen aaten(Vienna,1930). Nenus Baren in der Welt 시리즈 중의 한 권.

신즉물주의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다. 어떤 주장에 의하면 비벤하는 미스 반 데르 로에가 1920년부터 1921년까지 '유리 고층건축'을 계획하였는데, 당시 라멘구조의 적합성에 대해서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⁹⁾

얼마 후 비벤하는 프루흐트(Van der Vlugt)와 협력하여 후로닝언(Groningen)의 공업기술학교(Technical Trades School) 계획을 주도하였다. 1920년 브린크만이 작고한 이후, 판 넬레 공장(Van Nelle Factory)의 설계에서 프루흐트는 중요한 협력자였다.³⁰⁾

1923년부터 1926년 사이 비벤하는 미국에 체재하면서 대규모의 토목계획에 참여하였다. 이런 경험은 헤이그의 니르바나 집합주택과 고층건축에 대한 듀이꺼와의 협력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의 작업에 대한 경험은 고층건축위원회에서 그의 지위를 갖게 하였다. 위원회의 중심과제는 일반 주택문제 중에서 우선 고층 집합주택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에 집중되어 주(週) 6길더 이하로 임대가능한 방법과 고층집합주택에서 만족할 수 있는 특수한 생활조건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은 양심적인 의식으로 맡은 일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그들은 연구목적 자체가 노동자용 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방문하였다. 나중에 이 연구는 노동자용 주거에 한정하여 진행되지 않도록 강조되어 1929년 4월 위원회의 취임식에서 당시까지의 영역을 넘은 그 이상을 조사항목으로 삽입시켰다.³¹⁾

1. 6층 이상 10층 이하의 고층주택이 노

동자용 주택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2. 도시계획상 고층주택 지구에서 건설의 효과
3. 고층주택 지구에서 교통문제의 부담
4. 적합한 건설기준
5. 고층주택 건설로 생기는 위생상의 이점과 결점
6. 고층주택의 경제적 이해득실

1932년 12월, 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서 네덜란드와 해외에서 주택문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접근에 폭넓은 이원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중 하나는 전원도시 혹은 전원도시지구에 있어서 단독주택(the one-family house)의 건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건축물에 집중화된 설비와 조직화된 공원을 동반하는 고층의 '도시형 건축'의 건설이었다.

이런 이중성을 인식함으로써 위원회는 스스로 시(市)위원회(the municipal commission)의 초기 작업을 보완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조사 보고를 위한 사례수집의 어려움을 걱정하였다. 따라서 참고용에 지나지 않는 계획안 내용의 재검토가 요청되었다.

파리와 빈(Vienna)에 건설된 5층부터 7층까지의 집합주택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적합한 연구사례가 되지는 못하였다. 스탈이 설계한 고층집합주택과 듀이꺼의 니르바나 집합주택은 지나친 공사비로 노동자용 집합주택으로서의 적합하지 않아 좋은 사례는 되지 못하였다.

듀이꺼와 비벤하는 위원회에서 강의를 하고 1930년까지 위원으로서 활동하였으며 고층건축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이 두 사

람은 또한 고층건축을 노동자용 주택건설에 도입한 브뤼셀 근교의 플로알(Flooreal) 전원주택을 방문 연구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보고서는 고층집합주택을 도입함으로써 세대 당 토지가격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



그림 17. 브린크만+프루흐트+페인, 베르호플더 집합주택 (로테르담), 1933~34. 1930년대 고층집합주택계획안은 단일 건물보다 주로 집단화되고 층수가 많은 탑상(towers)내지는 슬래브(slabs)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단지 주어진 부지의 조건만이 아닌 도시 전체라는 문맥의 시점에서 고층건축의 이점을 실현 결과였다. 베르호플더 집합주택은 대량 생산방식으로 주택공급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한 폭넓은 확산에 바탕을 둔 보다 크고 보다 기념성이 높은 사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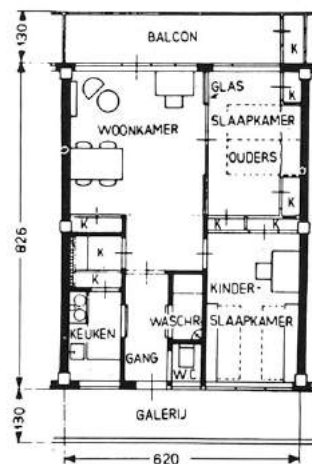


그림 18. 단위 평면도

29) Jells and Albert, Duiker, pp. 1-2. '듀이꺼와 도시기술자인 비벤하와와 공동작업은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건축으로 집약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923년 웬딩언지의 고층건축 특집호의 유리창 마천루계획의 그림 설명에는 'Mies van der Rohe, Holland' 라고 기재되어 있다.

30) Robert Vickery, Bijvoet and Duiker, Perspecta 13 (New Haven, 1971), pp. 139-150.

31) 실사에 관한 이하의 정보는 Rapport van de Commissie voor den Hoogen Bouw에 의함.

은 환상에 불과하며, 특히 당시의 인구밀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주택건설에 대한 비용절감은 경제적인 구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문제점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측면을 주의 깊게 구분하여 하였다. 고층건축은 단위계획과 자연채광의 관점으로부터 양호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은 노동자 가족을 위한 주거로서 고층집합주택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결론은 엘리베이터에 의존하는 고층
집합주택이라는 데에 있다. 엘리베이터는 어
린이아가 있는 가족에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네덜란드에서 다양한 형태
로 발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는 고층집합주택이 불편한 존재였다. 마지막
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도 도출되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고층집합주택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다른 어떠한 사실보다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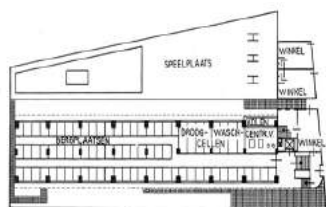


그림 19.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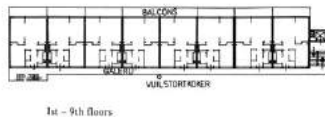


그림 20. 1층에서 9층까지의 평면도

정(家庭)이라는 존재를 동일한 건물 내에 수용하려는 것 자체가 큰 결점이다.”³²⁾

이 같은 사회적 관점은 고층집합주택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대료를 높인다는 대부분 위원들의 믿음과 부합되어 노동자를 위한 고층집합주택의 건설을 포기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단지 이에 대한 반동으로 단순히 낮은 인구밀도나 저층건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 1934년 몇 가지 점에서 확장계획을 예상하여 일부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하였다.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는 굉장히 거대한 것이고 분산적인 것이다. (생략) 지자체는 거주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그리고 확장계획에서 고층건축과 저층건축의 양면을 고려해야 한다.”³³⁾

소수 위원들은 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집합주택을 4층으로 제한하여 계속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놀랄 일은 아니지만 후디흐와 비벤하는 위원회 보고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비벤하는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이 합리적인 비용 평가에 바탕을 두지 않았으며, 또한 하나의 건물에 많은 가정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고충건축위원회는 이런 논쟁을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이것은 신즉물주의 이념과 새로운 이념을 창출하는 것보다 더 제도화되고 정치적인 보수 집단사이에서 발생한 다양한 투쟁 중의 한 가지 예로서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양극화(polarization)는 독일에서 겪은 만큼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 노동자를 위한 위원회의
고층집합주택 건설반대는 듀이꺼로부터 고
층집합주택을 옹호할 만큼의 이데올로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다른 신즉물
주의 건축가들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서 모든 이데올로기 논쟁을 최대한 끌어들
이자는 지적도 있었다. 이것은 자자체의 규
모에서 광범위하게 걸친 어려운 문제를 연
구하는 위원회 같은 존재보다도 더 커다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위원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성립된 태 양위원회는 로위선(van Lohuizen), 그리고 에이스페런의 암스테르담시 남부확장계획안 에서 볼 수 있는 상대적 세련미와 더불어 지 자체에서 추진한 도시계획의 수준을 높인 공헌자로서 평가받고 있었다.

로테르담의 베르흐폴더 집합주택

고층건축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기 2년 전, 주택법 아래서 지어진 베르흐폴더 집합주택은 고층집합주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집합주택은 브린크만, 흐루트, 떼인에 의해 설계되어 로테르담 시내에 건설되었다.(그림 17~20)

로테르담 국민주택조합이 로테르담 시내에 대지를 구입하여 건설된 이 집합주택은 가능한 최대한의 오픈 스페이스를 갖도록 할 것과 72세대 이상을 짓지 않도록 요구되었다.³⁴⁾

로테르담에서는 암스테르담의 경우와 달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두지 않았다. 게다가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은 기존의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고층집합주택을 반복 배치시킴으로써 대규모 도시계획의 장점을 살리고, 좀더 포괄적인 이미지의 단편을 형성한다고

32) Ibid., pp.15-16.

33) Ibid., pp.17.

34) Alfred Roth, *The New Architecture* (Zurich, 1946), pp.91~104를 참조할 것. 베르호폴더 집합주택과 플라산(Plaslaan) 고층집합주택을 기술적으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이 도시에서 보다 더 포괄적인 비전의 일부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건설 자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첫째는 노동자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엘리베이터를 도입한 고층집합주택의 건설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집합주택은 1934년 이전에 지어졌지만 집합주택이 갖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나의 원형(prototype)으로서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은 르 꼬르뷔제의 유니테(Unites) 집합주택보다 앞선 것이다. 그러나 이 집합주택의 건설과 거의 같은 시기인 1930년부터 1932년까지 르 꼬르뷔제는 제네바에 있는 클라테 집합주택과 파리에 있는 스위스 학생기숙사를 설계하였다.

비록 이 두 건물이 노동자용 주택은 아니지만 당초 예산보다 많은 건설비용이 들었다. 이 두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긴 장방형의 단순한 형태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립식 부재의 적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설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을 주당(週當) 6.16길더에서 7.35길더 사이의 금액으로 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주택공급의 측면에서 축복이었다.³⁵⁾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은 겨우 50m² 이하의 단위형식을 갖는 것에 불과하지만, 특히 젊은 핵가족에게 적합한 형태로 설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엘리베이터 건설비용의 최소화는 전쟁 이전과 대조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족의 주택형식으로 폭넓은 적용을 받고 있었다.

아 이러니컬하게도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을 방문해 보면 거주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

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몇몇 사람은 대단히 불편하다고 토로한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각층에 서지 않기 때문에 각 세대로 가기 위해서는 계단참에서 내려 반 층 올라가거나 반 층 내려가야 한다.

당시 2층마다 계단참에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켜 한 번 정지로 상하층을 동시에 사용하기 위한 설치 방법은 엘리베이터의 관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런 엑세스 갤러리(the access gallery) 이념을 집합주택에 적용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때인은 이런 이념의 출발점으로서 브린크만의 스뱅크 집합주택(1919)을 지적하고 있다.³⁶⁾

여기서 단편적인 것에서 생성될 수 있는 어떤 유형에 대한 변용(metamorphosis)을 살펴보고자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전원도시 이념의 전환(transformation)과 유사하게 폭넓은 사회적 이념에 속하는 물리적 형태를 물리적 감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런 변환은 몇 가지 이념 그 자체를 무시한 형태로 해석하고, 또한 자유롭게 재구성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런 과정은 특히 대량생산에 대한 낙관주의적 사고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의 갤러리는 다목적 이용에 대응하기 위한 타당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은 스뱅크 집합주택이 각 세대의 현관에서 접근 가능하게 하여 갤러리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는 다르다.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은 건설된 시점에서 볼 때, 네덜란드 신즉물주의 이념을 대변하는 본보기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의 공장생산품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축 이미지가 설계과정의 협동과 개인주의적 단편이 구체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때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더군다나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은 개인주의적 사고의 산물이 아니고, 희망, 노력,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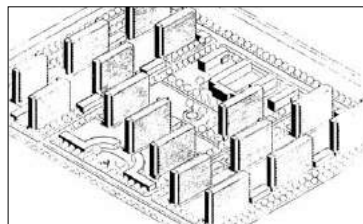


그림 21. 베르스테이흐, 저렴한 노동자용 주택설계경기의 투시도, 1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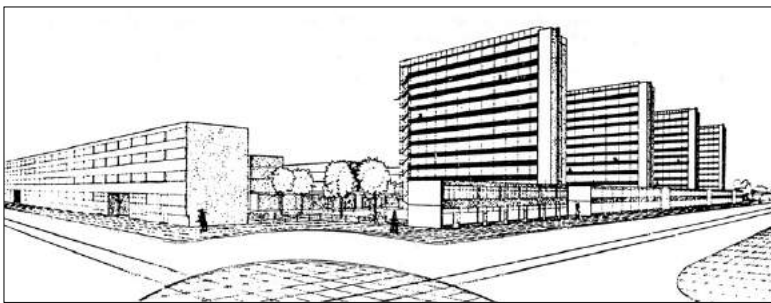


그림 22. 브룩, 저렴한 노동자용 주택설계경기의 투시도, 1934
브룩은 노동자용 주택설계경기에서 값싸고 품질 좋은 다양한 주택 형식과 층수가 다른 건물의 복합성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에도 극히 혁신적인 것이었다. 1933년 메르켈바하는 '더 아흐드'와 '오쁘바우'의 회원에게 1작품 이상의 계획안을 공동으로 제출하도록 서신을 보냈다. 암스테르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① 고층 집합주택, ② 4층 집합주택과 고층 집합주택의 혼합, ③ 4층 집합주택, 여기서 심사위원회는 설계경기에 제출된 작품들이 노동자를 위한 주택을 제안하였다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브룩안은 수상한 4개의 작품 중 하나이다.

35) 1934년경 노동자의 수입은 23. 50길더 정도였다. Prak, Zeventig woningewt, p.41.

36) W. van Tijen, Het Woongebouw Bergpolde te Rotterdam in Aanbouw! De 8 en Opbouw, 5, No.6(1934), p.48.

지, 가능성과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결과이다. 이런 것으로 독자적인 생활상을 획득하고 있었다.”³⁷⁾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이 상징하는 것으로 뷔드벨드의 공장적 이미지의 추적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도입된 건축언어의 상징성이 의미하는 것은 1918년 발표된 논문 『예술과 기계』의 시점과 같은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다.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은 보편적인 노동자용 주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전체성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건축구성요소의 각 부분의 표현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 ‘유리 판자’로 뒤덮인 계단실은 스타일이 설계한 암스테르담의 고층집합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표현성이 풍부하다. 그러나 베르호폴더 집합주택 계단실의 공동성(communality) 이념은 스타일의 경우와 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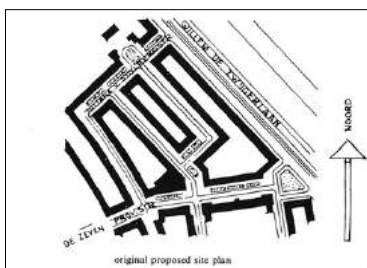


그림 23. 메르켈바하+까르스텐+보르킹+베르스테이흐, 란프러스트 주택조합+ 어트 베스텐 주택조합+ 라보르 주택조합+ 중합주택건설협회에서 공동 주관한 집합주택의 초기 배치계획안, 1935~38
메르켈바하와 까르스텐의 발의로, 암스테르담시 서부확장계획안의 일부로 제안된 배치계획안은 폐쇄형 주동계획에서 개방형 주동계획으로 바뀌었다. 1920년대에 전개된 것과 달리, 이 계획안은 독일에서 이미 도입된 양식을 발전시킨 것이다. CIAM의 영향이래서 발전된 이 계획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화의 이상을 대변하고 있었다. 개방형 주동의 접근방법으로 ‘주거세대에 보다 양호한 일조’, ‘단지 자체로 유입되는 교통량의 제한’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념은 1930년대까지 일반적인 기능주의 건축가의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었다. 여기서 1932년 브룩이 설계한 로테르담의 브레이드름 집합주택과 같이 주동내부에 존재하는 공유정원에서 1층 세대를 위한 정원의 전용화는 사라져 버렸다. 게다가 란프러스트 집합주택은 보다 탁월한 공간적 균질성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공간적 균질성은 건축에 대한 차별화가 아니라 건축물의 앞과 뒤 사이에서의 기능적 차이에 의한 것뿐이었다.

테크니컬한 이미지의 배후에 숨겨진 깊은 신념으로부터 생성된 것이다.

1934년 : 저렴한 노동자용 주택을 위한

설계경기

이 설계경기의 의의에 대해서는 일차형 배치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설계경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계경기에 참가한 많은 건축가들은 고층주택(high-rise dwelling)에 대한 이념을 좀더 발전시키려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이다.

이 설계경기에 제안된 고층집합주택의 형식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갤러리 슈퍼구조(gallery megastructure), 독립된 타워구조(point block towers), 그리고 베르호폴더 집합주택과 같은 복합구조(multiple applications)를 들 수 있다. 쓰바흐스트라(Zwaagstra)가 제안한 15층 규모의 슈퍼구조는 전체 설계경기에 대한 자침을 하나의 구조물로 정리하려 한 것 이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었다. 또한 각 세대에 적절한 채광이 되지 않았으며, 건축비도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입상(入賞)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떨어진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었다.

로흐햄이 설계한 16층 타워건축물 계획은 개념적으로 페레(A. Perret)와 르 꼬르뷔제의 1922년 프로젝트보다 앞서지는 못하였다. 이 계획안에서도 지나친 건축비가 문제가 되어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 건축계획에서 모든 세대는 코너 세대(모서리 주택)로 구성되어 결국 이런 제안은 부적절한 주거 형식으로 판단되었다.”³⁸⁾

이 설계경기에서 로흐햄은 이미 전원이념

에 대한 관심(즉, 할렘에 있는 따윈베익 싸위드 집합주택, 암스테르담에 있는 바테르흐라프스메이어 집합주택)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당시 정치적 충돌의 요인이 되었으며 4층 규모의 집합주택 건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서 보면 자연경관이 파괴되는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상 작품과 동시에 게재된 로흐햄의 논문은 전원도시의 양상에 매료되었을 뿐 아니라 르 꼬르뷔제에 대해 특별히 높은 평가도 반영되고 있었다.³⁹⁾

르 꼬르뷔제는 이 설계경기가 게재되기 1년 전 인 1932년 네덜란드에서 강연한 바 있다.

“상호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배치된 초고층집합주택 단지의 건설을 통하여 자연미에 대한 애정이 형성될 것으로 확신한다. (생략) 고층집합주택 단지는 거주자에게 보다 넓은 공간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주동 사이에 배려되는 보다 크고 넓은 공간을 집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⁴⁰⁾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은 특히 베르스테이흐와 브룩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들의 계획안에서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의 형식을 여러 곳에서 차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베르스테이흐 계획안(그림 21)은 주동 간격이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을 받았고 브룩의 계획안은 고층집합주택을 적용한 계획안 중 유일하게 상(賞)을 받았다(그림 22)

브룩의 계획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건축물의 높이를 혼합하여 사용한 점인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반적인 적용 방법이다. 이 두 사람은 고층집합주택의 대규모 계획의 장점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37) Ibid., p.47.

38) F. Ottenof, ed., Goedkooppe Arbeiderswoningen (Rotterdam, 1936), p.110.

39) J.B. van Loghem, Le Corbusier in Holland, De 8 en Opbouw, 3, No.1(1932), pp.13~15.

40) J.B. van Loghem, Nabetachting Goedkooppe Arbeiderswoningen, pp.29~30.

주동 형태를 도입한 것이다.

지금까지 지적된 바와 같이 이 설계경기에서는 4층의 일자형 배치의 주거형태를 지향하는 경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심사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었다.

“이 설계경기 참가자들에 의해 제안된 재정적인 장점을 실제 계산할 수는 없었다. 건설비용 특히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한 중앙설비의 높은 경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일반 노동자용 주거를 위한 고층집합주택 건설은 진척되지 않았다.”⁴¹⁾

따라서 심사위원회는 최근에 지어진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의 현상에 납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고층건축위원회 활동이 충분치 못하여 설계경기 심사소위원회는 노동자 가족이 고층주택에 살아야만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두지 않고 다양한 형식을 갖는 고층집합주택과 엘리베이터의 설치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한 평가기준은 도로건설비용과 주택의 범위를 고찰하는 것으로 소위원회는 고층집합주택이 갤러리 접근방법을 적용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 주택건설은 때때로 이런 접근을 받아들이게 되었다.⁴²⁾

전쟁 이전의 최종 단계에서의 거부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와 달리 ‘저가·고품질 주택위원회’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국립주택위원회’와 ‘네덜란드 국민주택·도시건축협회’로부터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1934년 말에서 1936년 봄에 걸친 위원회의 결론은 이 위원회에 앞서 고층건축위원회라든가 저렴한 노동자용 주택설

계경기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노동자용 주택에서 4층 이상의 건축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4층 이상으로 구성된 건물에서 계단을 이용한 오르내림과 계단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려는 형태는 허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주 가능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이와 같은 문제점의 보완책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불가능한 것이다.”⁴³⁾

새로운 주거모델에 대한 보수집단의 반응은 전원도시운동이라든가 사회주의 국가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통적 저층주택을 선호한다고 하는 것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해석은 끼프혹 집합주택의 성공과 베르호폴더 집합주택의 허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불행인지는 몰라도 이런 계획들은 실험주택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주택개발에 커다란 영향을 준 사회적 기회도 결코 살리지 못하였다.⁴⁴⁾

결론

1940년까지, 1923년에 멘델존이 염려했던 비유적 붕괴(metaphorical destruction), 즉 로테르담이 얼어붙은 일도, 암스테르담이 불타버리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까지 언급한 것과 같이 정열적인 표현주의와 부드럽지만 확고한 합리주의의 접근은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에서 집합주택 건설에 특별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로테르담에서 소위 표현주의 건축이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발전의 원동력이 된 집합주택의 합리적 전통

은 집합주택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신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전원도시운동에 대한 다양하고 공식적인 단체가 만들어지고, 또한 암스테르담파의 이국적 정서와 더불어 합리적 실험이 공존하고 있었다. 표현주의에 대한 영향의 퇴보는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도록 기회가 주어졌다. 이것은 1934년 암스테르담시 남부확장계획안과 1937년 네덜란드 최초의 일자형 주동배치의 건설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멘델존이 기대한 암스테르담파의 ‘환상성(vision)’과 로테르담파의 ‘분석적 객관성(analytic objectivity)’ 간의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듀독과 스탈의 작품에서 표현주의와 합리주의적 주제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접근인지는 몰라도 이런 통합화의 성격은 당시 주요 관심사였던 집합주택의 문제와는 관련이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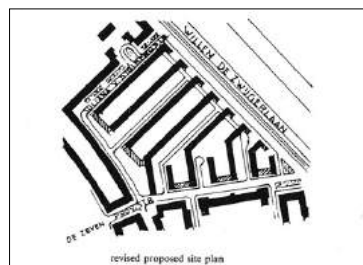


그림 24. 란드라스트 집합주택 변경 배치계획안, 1935~38.



그림 25. 도로에서 본 란드라스트 집합주택의 전경

41) 심사보고서 Goedkooppe Arbeiderswoningen, pp.34~35.

42) 저렴한 노동자용 주택설계경기 심사소위원회 Rapoer van het onderzoek van de plannen voor hoogen bouw, 미간행보고서(Amsterdam, 1937), p.3.

43) Rapoer van de Commissie voor de Goedkooppe woning (Amsterdam, 1936), p.5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 집합주택에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전통은 서로 강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불행하게도 대립성을 나타내고 있다. 미미하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전통은 건축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통합화를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논하여 온 것과 같이 표현주의자가 확산하고 있는 몇 가지 점에서 합리주의적 전통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베를라헤를 통하여 생겨난 것이고, 그 영향은 네덜란드 집합주택의 모든 면에 걸쳐 있다. 베를라헤 및 그 이후 신즉물주의 건축가들은 노동자용 주택이 문화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산하고 있었다. 초기의 표현주의자들은 집합주택에서 추구한 도상학적 상징주의(iconographic symbolism)에서 탈피하지



그림 26. 란프러스트 집합주택의 평면도
①거실, ②침실, ③부엌, ④면실, ⑤코너, ⑥화장실



그림 27. 란프러스트 집합주택의 내부전경

못하였다. 이것은 신즉물주의 건축가들의 보편적 가치를 상징화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과는 다르다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런 과정을 확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 불어 합리주의자들은 집합주택이 단지 사회의 반영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것으로 믿고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회민주주의 영향과 주거환경에 있어서 위생에 대한 신념은 균질한 주거환경(homogeneous housing environment)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공간에 있어서 사용자의 잠재성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아흐레타 공원단지로부터 란프러스트 집합주택에 이르기까지 주거 전문가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비전이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점점 주거환경을 제어하려는 욕심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발전은 19세기 폐쇄형 집합주택에서 볼 수 있는 내부공간의 무질서로부터 란프러스트 집합주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규제와 통제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1900년에서 1940년까지 집합주택과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이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란프러스트 집합주택(그림 23~27)은 건축가가 대규모화하는 집합주택 단지를 취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하나의 사례로 근대기 40년간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이 기간에 다양성과 대립성이라는 가치가 동시에 존재했으며, 이를 통합화하려는 기대심리가 지나치게 컸다고 할 수 있다. 신즉물주의 건축가가 실험한 집합주택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보편적 진리를 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기간을 전체로서의 환경, 특히 인간의 선택으로서의 환경에 유효성을 부여하는 다양한 접근방법

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다.

암스테르담-로테르담의 이중성에 대한 멘델존의 인식은 제 1차 및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전개된 폴레믹(polemics)하고 변증법적인 성격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런 대립에 대한 관심-주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은 1900년부터 1917년 사이에 전개된 주요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은폐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 기간에 비평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공중위생의 필요성, 노동자 계층의 권위와 자존심에 의해서 전개된 것이다. 또한 주택조합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상승, 지자체의 주택 관련 부서의 성장, 노동자용 주택에서 공유정원의 설치, 그리고 노동자용 주택의 위상에 대한 표현주의 건축가들의 노력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유연적인 주거공간은 그 기원이 1920년대 급진적인 폴레믹 이전에 있지만 양호한 일조, 위생, 개방성, 그리고 유연한 공간이라는 목적이 확립된 이후 일관성 있게 표현된 목표는 끝까지 투쟁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만 그 목표가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암스테르담파와 로테르담파의 이중성에 대한 멘델존의 지적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양성의 통일’이라고 논한 베를라헤의 공리(公理)와 함께 네덜란드 집합주택이 갖는 높은 가치성은 통합적 문화 내부의 다양한 조류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

44) 유사점이 1924년 Watergraafsmeer에서의 혁신에 대한 경의로 이루어졌다. P.K.A. Pennink과 W.J. Bruyn, Het Bentondorp, p.7

협회소식_kira news

우리협회 제26대 이철호 회장 취임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4일 서초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철호(李哲昊/66세/주. 승창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회원을 제2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4일 서울 서초동 소재 센트로 호텔 2층 연회장에서 우리협회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시도회장 및 전임, 신임 이사 등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개최하고, 2년 임기의 업무를 시작했다.



〈이철호 신임회장 약력〉

- 1940년생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 정보통신부 건축심의위원
- (주)승창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

우리협회 신사옥 기공식 개최

지난 3월 4일 이철호 회장의 취임식이 있은 후 곧바로 우리협회 신사옥 공사 현장(서울 서초동 1603-55)에서 역대 회장과 임원, 화관건립위원회 위원, 설계를 맡은 오근석(유진인터내셔널 건축사사무소)건축사, 시공을 맡은 남흥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출한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협회 신사옥은 2006년 7월 즈음 완공될 예정이다.



기공식 광경



이·취임식 광경

「국제화시대에 맞는 건축사업무와 대가의 제도화방안」 토론회 개최

건축의 공공성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대가기준 반드시 필요

우리협회는 협회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3월 1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국제화시대에 맞는 건축사업무와 대가의 제도화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철호 우리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일반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건축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영철 건축사(우리협회 협회발전위원장, 제1과제: 건축계의 현실인식과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제고), 한명수 건축사(우리협회 이사, 제2과제: 건축사업무대가기준과 건축계의 현실), 김광현 교수(대한건축학회 이사, 서울대학교 교수, 제3과제: 국제화시대에 미래지향적인 전략)의 주제발표에 이어 유성욱(공정거래위원회 제도법무과 사무관), 송길수(건설교통부 건축과 사무관), 김천주(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토론자가 참여한 가운데 여러 회원과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며 심층적인 토론회가 이뤄졌다.

우리협회 강성익 협회발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좌장으로 박경림 강원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이철호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건축사용역의범위와 대가기준"은 사회적으로 건축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하고, "오늘의 토론회가 희망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을 보면,

제1과제 주제발표에 나선 전영철 건축사는 "건축사 1인당 평균 설계수주량은 지난 2003년 92평(월)에서 지난 해 76평(월)으로 줄었으며, 이는 현재 5%를 차지하는 대형 건축사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사무소들의 수주 현실"이라고 말하고, "시장에서는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덤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는 수주 업체가 이미 손해 본 가격을 최소화하려는 영업 전략으로

이어져 설계, 감리 부실을 양산하고 건축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편의주의에 기초해 실적 위주로 운영돼 연간 1천여명 가까이 배출되는 새내기 건축사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현행 적격심사제와 인정기술자제도, 설계입찰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명수 우리협회 이사는 "현재 국내 건축사업계가 나홀로 건축사나 면허 대여자처럼 소규모,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원가계산이 가능한 판단기준이



토론회 광경

있어야만 국내 건축사업계가 임박해 온 건축설계 시장 개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부활된 노력도자 납득할 수 없는 명분과 실익, 기대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공정거래라는 잣대로 건축사업무 대가기준이 사라진다면 국가와 후진들의 미래는 없을 것이며, 이는 단순히 건축사들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김광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설계비를 낮추는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로 바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 일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검토"를 지적하고, "현재 대부분의 사무소가 대가없이 봉사하는 상황으로 이것이 건축사의 직능저하 및 건축설계의 전문성을

경시하게 만들어 사무소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교수는 "건축설계의 국제화는 물론 건축사의 업역과 관련해 전문화와 업무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건축사사무소의 전공제」를 제안하고, 국가공인기술자로서의 건축사가 당연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으로 「등급별 기준설계비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문제해결의 근간은 「건축의 공공성」에 기초해야 하며, 이 문제는 전문가집단의 보수에 관한 좁은 문제가 아니라 건축계 전체의 중차대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제도법무과 사무관은 "건축사업무대가 기준 폐지추진은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여 카르텔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56개 관련 기준이 이에 해당하며, 건축사업무대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공정위의 기본 입장을 표명했다. 또 송길수 건설교통부 건축과 사무관은 "정부방침으로 확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폐지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 입장을 말하고, "대가기준이 폐지되면 별도 이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협회나 건축관련 단체에서 시장 경쟁성에 맡기든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했으며, 이와 함께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교통, 환경, 건축의 기준은 꼭 필요한 것으로 최종 소비자인 사용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해당부처의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감하고 협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협회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반영하여 건설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www.kira.or.kr 참조)

제39회 정기총회 개최

「건설업체 건축설계업 참여 허용방안」반대 결의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4일 서초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재적대의원 448명중 403명의 성원을 보인 가운데, 정관 개정(안)을 비롯한 7개의 안건이 상정·처리되었다. 제1호안인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고, 나머지 5개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최대 관심사였던 제7호의안 '임원 개선의 건'에서는 이철호 회장(주. 승창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이 제 26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감사에는 송평문 회장(주. 비온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이 선출되었다. 이사 8인에 대한 선출은 대의원들의 신임 회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신임회장에게 위임되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 허용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명옥 대의원의 선창과 함께 전 대의원 일동이 후창하며 강력히 이를 펼치기, 반대하고 그 의지를 결의하였다. 아울러 차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의미로 신임 이철호 회장에게 결의문을 전달했다.

주요 부의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부결됨.
- 제2호의안 : 2004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일반회계의 세출(집행)액 2,732,463,559원

(2004세입세출예산 3,605,000,000원)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승인의 건
- 일반회계의 2004년 예산(3,605,000,000원)보다 5.0%(181,000,000원) 감소한 3,424,000,00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회관건립계획 변경 승인의 건
- 당초 계획된 회관건립계획을 지하 4층, 지상 8층 3,365.03평(11,124.13㎡)의 연면적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당초 9,300,000,000원에서 968,939,000원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시·도 건축사회 대여금 상환기준 변경에 관한 건
- 미상환한 대여금과 정상이자를 2005년 상반기(05. 6. 30)까지 상환하는 건축사회에 한하여 연체이자와 지연배상금을 면제하자는 건을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정회원회비 장기미납회원의 징계에 관한 건
- 우리협회 정회원회비를 5년(60개월)이상 장기미납한 회원에 대해 제명하는 안을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회장(1인) : 이철호 회원
- 이사(8인) : 신임회장에게 위임
- 감사(1인) : 송평문 회원

결 의 문

우리 건축사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건축분야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의 공공성 확보 및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에 동참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축설계·감리분야의 전문성과 외국의 시장질서는 외면한 채 타당공론으로 "건설업체의 설계검인 허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6만여 명의 건축사 및 건축사보 등 설계·감리분야 종사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처사를 묵과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정부는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건축 설계시장을 왜곡하고 설계수수료 질서를 일시에 붕괴시키는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몇몇 대형 건설업체에 독점적 지위와 특혜를 주려는 불공정한 처사를 즉시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건축사자격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기술분야 전문화 육성정책에도 역행되는 "설계검인"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즉시 중지하라.

하나, 정부는 건축물의 불법·부실 예방을 위하여 설계와 시공이 상호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분야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축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005. 2. 24

대한건축사협회 전국 대의원 일동

〈신임이사〉



강석후(姜錫厚)
생년월일 : 58년생
출신교 :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사무소명 : 수림 건축사사무소



김화자(金花子)
생년월일 : 44년생
출신교 : 영남대학교 건축과,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사무소명 : 건축사사무소 세명건축



이근항(李根星)
생년월일 : 49년생
출신교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울대학교 제1기 건설최고경영자과정
사무소명 : (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양원(李洋遠)
생년월일 : 49년생
출신교 : 부산공업고등전문대학교(현 부경대학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무소명 : 이양원 건축사사무소



이명수(李英洙)(유임)
생년월일 : 52년생
출신교 :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건축대학원 MARCh
사무소명 : (주)건축환경그룹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명하(李秉淳)
생년월일 : 46년생
출신교 :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한남대학교 대학원 도시설계학
사무소명 : 영 건축사사무소



장기종(張奇鍾)
생년월일 : 52년생
출신교 : 전주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사무소명 : 장 건축사사무소



장상순(張亮淳)
생년월일 : 46년생
출신교 :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과
사무소명 : 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

〈신임감사〉



송평문(宋平文)
생년월일 : 47년생
출신교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사무소명 : 비온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총회광경

부산국제건축문화제 2005년도 정기총회 개최

부산영상센터국제공모전 등 10여개 단위행사 기획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부산시청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건축문화제가 총 17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와 비교 3배 정도 확대 기획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 등 중장기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제5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에코포트 부산-아시아·태평양의 관문(Eco-Port, Busan - The Gate of Asia-Pacific)'이라는 주제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데, '2005 APEC' 개최를 계기로 해양도시 부산을 친환경 건축문화의 도시로 가꾸어 세계의 중심도시로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건축문화제는 '부산영상센터 공모전', '중구시범가로정비 국제공모전', '친환경건축자재박람회', '전국건축사대회', '국제건축워크숍', '국제건축심포지엄', '건축작품전', '시민건축대학', '조인트아트전', '건축모형제작전' 등 10여개의 단위행사가 열리며, 이 중 '부산영상센터 공모전'과 '중구시범가로정비 국제공모전'은 지난해 조직위가 밝힌 바와 같이 실질적인 건축·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의 도시환경을 변화시키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올해 문화제에서 처음으로 기획된 '친환경건축자재박람회(BIFEA)'는 돌, 나무, 흙 등을 소재로 전 세계 친환경자재업체가 참가해 환경친화적인 건축문화 조성 및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국 5천여 명의 건축사가 참가하는 대한건축사협회의 「2005전국건축사대회」가 연계되어 올해 문화제에는 약 1만여 명의 국내·외 건축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는 '시민건축대학', '건축모형전', '조인트아트전' 등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건축계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여도 대폭 커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산다운 건축상을 비롯해 부산건축

대전, 실내건축대전, 대학생우수작품전 등 예년과 같은 기존 행사들이 마련된다. 더불어 이날 총회에서는 조직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도시건축문화관 건립과 건축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문의 : 문화제 사무국

051-888-4760, www.biacf.org

제27회 한국건축가협회상 및 특별상 수상식 개최

지난 2월 21일 한국건축가협회는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제27회 한국건축가협회상 및 특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한국건축가협회상에는 모두 60여 편의 신청작품 중 26점이 예심을 통과했으며, 현장답사를 통해 최종 7작품, 금강휴게소-인의식+장명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다락원-임상관+민준기(주.테트라건축사사무소), 도시형대안학교 이우중고등학교-김승희+강원필(주.경영위치건축사사무소), 리움-박승+Mario Botta+Rem Koolhaas+Jean Nouvel(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이원아트빌리지-원대연(홍익대학교 건축과 대학원 겸임교수), 카메라타 황인용 음악스튜디오-조병수(조병수건축연구소), MOA갤러리+시경당-우경국(주.에코아트스페이스건축)이 선정됐다.

특별상에 해당하는 엄덕문건축상은 최문규(가이건축사사무소)씨와 아천건축상은 배병길(배병길건축연구소)씨가 각각 수상했다.

원정수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작년 한 해의 수확에 대해 대형프로젝트보다 중소형 규모에 많은 비중이 있었지만 작품의 수와 질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였다"며 "예전에는 흐름에 동조하는 작품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각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금강휴게소 / 인의식+장명희(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다락원 / 임상관+민준기(주.테트라건축사사무소)



도시형대안학교 이우중고등학교 / 김승희+강원필(주.경영위치건축사사무소)



리움 / 박승 + Mario Botta + Jean Nouvel + Rem Koolhaas(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이원아트빌리지 / 원대연(홍익대학교 건축과 대학원)



카메라타 황인용음악스튜디오 / 조병수(조병수 건축연구소)



MOA갤러리+시경당 / 우경국(주, 예공 아트스페이스 건축)



특별상_ 엄덕문 건축상 / 최문규(주, 가이건축사사무소)



특별상_ 아천 건축상 / 배병길(배병길 건축연구소)

제2회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

도코모모 코리아는 최근 들어 경북 동편에 위치한 국군기무사령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곳을 미술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미술계로부터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를 보다 실질적이며 구체적으로 전개시키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대안 제시를 이끄는 일환으로, 기무사령부 부지를 계획 대상으로 정해 이곳의 시간성과 장소성의 가치가 문화예술 마당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건축계의 제안을 모으는 디자인공모전을 마련했다.

- 주제 : 시간_비움 vs 채움

군기무사령부(옛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의 현대미술/문화공간 활용계획

- 공모일정

• 접수 : 3월 14일~4월 15일

• 워크숍 : 3월 16일 오후 2시(장소 : 경북궁 내 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 예정), 마리스텔라 카시아토(도코모모 인터내셔널 회장) 특강 병행

• 일정 : 1차마감 및 결과발표 - 5월 27일 (작업제출) / 5월 31일

2차마감 - 6월 24일(1차 통과작에 한함 / 작업제출)

- 당선작발표 : 6월 28일

- 입상작전시 : 6월 28일~7월 10일

- 참가자격 : 2년제 이상 건축/도시 관련학과 전공자

- 참가비 : 1팀 당 5만원(팀당 제한인원 : 3인 이내)

- 응모작품 제출내용

• 1차마감 : A1규격 3장 이내 응모안 CD 및 출력물(A3크기 5부) 제출.

• 2차마감 : A1 실제 규격 3장 이내 패넬 (10mm 우드보드 부착), 모형(제출은 임의, 단 제출할 경우 모형의 장변길이가 A1 장 변 길이를 초과하지 말 것)

- 시상 :

• 대상(1점, 문화재청장상) : 상금 5백만원

• 최우수상(1점, 도코모모코리아 회장상) : 상금 2백만원

• 우수상(2점) : 상금 각 1백만원

• 특선 및 입선 : 다수

문의 : DOCOMOMO Korea 02-709-2539, <http://www.docomomo-korea.org>



제1회 정림학생건축상

정림건축아카데미에서 제1회 정림학생건축상을 개최한다. 이 상은 「세계화하는 한국성 건축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국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현대건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우리의 한국성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국제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는다. 앞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 참가자격 : 국내외 2·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1인 1작)

- 참가접수 : 2005년 6월 27일~7월 5일

- 작품접수 : 2005년 8월 3일까지

- 시상내용 : 대상(1점)/상장 및 장학금 5백만원
우수상(2점)/상장 및 장학금 2백만원

장려상(2점)/상장 및 장학금 1백만원

입선작(다수)/상장 및 부상

- 참고 : www.junglimacademy.com



2005 생태건축아카데미 모집

생태건축연구소와 숲 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되는 '2005생태건축아카데미' 강좌는 생태건축의 국제적 흐름과 진행사례를 연구하고 우리 풍토에 맞는 생태적 건축을 정착하고자 마련됐다. 이 강

작은 3월부터 12월까지 아카데미 지정교육장(서울)과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수강료는 120만원

- 강사진 : 이윤하(생태건축연구소 대표), 이태구(세명대), 이승복(연세대), 김현수(건설기술연구원), 성종상(서울대), 윤중호(한밭대), 이정재(동아대), 이필렬(방송통신대, 에너지대안센터) 외

문의 : 02-745-3051 www.ecoarch.org

제6회 국제 아시아-태평양 건축심포지엄

하와이대학에서 주최하는 '제6회 아시아-태평양 건축심포지엄'이 오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다. 호놀룰루 외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Asian Mega-projects'를 주제로 열리며, 오늘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집중되는 열려 쟁점들을 시기 적절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에는 공공공간의 역할, 경제성장에 따른 새로운 공간유형, 사회·경제 경영, 친환경 도시계획, 운송 및 기간시설, 기획/디자인프로세스, 역사적 보존, 그리고 2010년 상하이엑스포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대규모 주요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상하이 정부관계자들, 개발자, 국제계획 및 건축가와 학자들이 발표자로 내정돼 있어 다양한 주제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조 : www.arch.hawaii.edu

다니엘 리베스킨트 초청 강연회

현대산업개발(주)는 지난 2월 18일 현대산업개발 신사옥 아이파크타워 준공행사의 하나로 다니엘 리베스킨트를 초청하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이번 강연회는 건축과 문화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아이파크타워 프로젝트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아이파크타워를 설계한 리베스킨트는 문화와 전통의 결합으로 도시가 형성된다는 자신의 건축

사상 및 도시와 미래의 연계성을 자신의 프로젝트와 함께 소개하였다. 그는 건축에서 전통이 공간과 시간의 방향을 제시, 가능성과 지식의 원천이 된다고 주장하고, 건물은 인간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며, 의사소통한다고 하였다.

또 그는 건축과 삶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과학과 예술분야의 관심으로 다양한 간접 체험이 가능하고, 문화적 활동이 건축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음악과 그림은 현대건축을 디자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며, 뛰어난 시각 및 기술력으로 인간의 가치를 확인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건축은 새로운 생태학적 건축과 대중의 욕망을 반영하여 도시에 디자인되어야 하며,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의 : 현대산업개발 02-2008-9192



다니엘 리베스킨트

영국 도시 재생 세미나

주한 영국대사관은 2005년 3월 29일 '도시재생과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탁월성과 혁신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선도적인 영국 건축과 도시 계획사업을 소개한다. 영국 측 초청 연설자들은 이 세미나에서 '도시 재생을 통한 더 나은 생활환경'과 '도시 계획에 부수되는 환경적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연설하며, 건축사들과 도시 계획자들이 직면한 난제들을 탐색하고 환경과 설계의 면에서 더 나은 도시 생활을 누릴 시민들의 권리와

요구를 참작하여 미래에도 지속 개발 가능한 도시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영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도시에 그 정체성을 각인시키려고 노력하는 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혁신적인 설계를 모색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일시 : 2005년 3월 29일(화)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 센터

- 시간 : 오후 1시~6시

- 연설자

• Will Alsop, OBE (윌 알습) : Chairman, Architecture Foundation / Principal, Alsop Architects Ltd.

• Alison Nimmo, CBE (알리슨 니모) : Head, Planning and Regeneration, London 2012

• Peter Braithwaite (피터 브레스웨이트) : Director, Ove ARUP Group

문의 : 영국대사관

www.uk.or.kr/architecture / ppa@uk.or.kr



신간

民家建築 I

한국전통건축 제4집

이 책은 한국적 전통을 살려내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건축을 알려야겠다는 대한건축사협회의 관점에서 발간된 자료집으로, 처음 1982년에 연구 활동이 시작되어 1992년 그 첫 번째 결과물인 「관아건축」이, 1994년에는 「궁궐건축」, 1996년에는 「누정건축」이 발간되었고, 이후속편으로 「민가건축 I」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전통건축을 공부하거나 설계를 위한 자료집이나 자료상 사진이 미흡한 건물에 대해서는 연구위원과 전담연구원이 현지를 답사, 촬영도 하고 도면상의 오류도 현장에서 확인하여 수정하기도 하였다. 또 캐드도면이 아닌 것은 전산작업을 하여 도면을 새로 만들기도 하는 등의 노고를 아끼지 않아 지면 지면마다 신뢰가 간다.

이 책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의 건물 26가옥을 수록되었으며, 뒤 이어 발간될 「민가건축 II」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도, 제주도의 24가옥이 수록될 예정이다.



대한건축사협회 / 304쪽 / 30,000원 / 보성각 발행
02-924-6171

건축의 구조

이책은 이탈리아 출신으로서 로마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구조를 연구, 실천하여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이론과 실무를 피력하고 있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Salvadori교수의 『Structure Architecture』를 번역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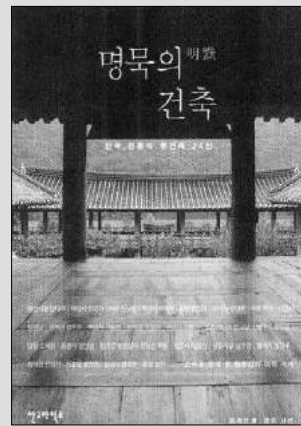
특히 Salvadori교수는 구조에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발표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구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기술된 이 책은 구조를 전공으로 하지 않는 건축대학 학생이나 실무를 하는 건축사와 디자이너에게는 창의력을 북돋아 줄 산지식이 될 것이며, 구조전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구조문제에 대한 올바른 길잡이가 될 것이다.



김용부 · 윤일주 역 / 520쪽 / 20,000원 / 기문당
발행 02-2295-6171

명목(明默)의 건축

이 책은 '전통건축은 당대의 철학과 종교, 건축과 실내디자인이 한데 어우러진 결정체'라고 생각하는 저자의 "전통 건축의 의미를 되짚는 일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의 삶의 방식과 시대정신, 종교와 학문 그리고 예술에 대한 지적 통찰력을 고양시키는 일"이라는 주장에 충실한 결과물이다. 병산서원 만대루에서 시작하여 수원화성, 도산서당과 전교당, 양동마을 심수정, 종묘장전 등 우리 전통건축의 24채의 옛집들을 소개하며 그야말로 "예술에 대한 지적 통찰력을 고양"시키며, 우리 건축을 보는 방법과 눈을 가지게 한다.



김개천 지음 / 265쪽 / 15,000원 / 안그래픽스 발행
080-763-2320

빛을 따라 건축적 산책을 떠나다

이 책은 프랑스 건축가인 앙리 시리아니(Henri Ciriani)가 설계한 '고대 아를르 박물관'과 '1차 세계대전 추념관'을 소개하며 독자와 함께 그 안에 담긴 건축적 의미를 음미하며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씌어졌다.

시리아니가 있는 건축, 즉 건축적 산책 개념을 특권화된 시점들의 연속으로 해석하며 건축의 이야기성을 중시하는 시리아니에게 박물관 건축은 외부 진입방향에서 산책의 종착점까지 방문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 실제 몸으로 체험하는 공간 순서대로 거닐면서 행로를 따른 공간 독해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유형이었다. 이러한 시리아니와 함께 고대 아를르 박물관과 1차 세계대전 추념관으로 가벼운 산책을 떠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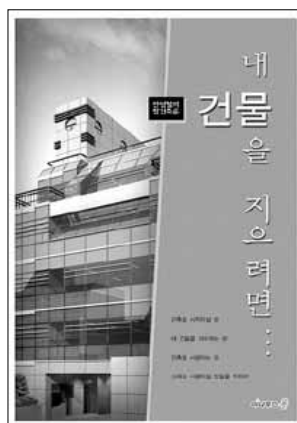


이관석 지음 / 174쪽/18,000원 / 시공문화사 발행
02-3147-1212

내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사가 겪는 일상사들과 건축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내용들을 2001년 10월부터 2004년 초까지 인터넷 사이트 'Daum의 칼럼'에 "전영철의 참 건축론"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글들을 엮은 책.

기성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건축 현실의 비판과 반성과 안타까움들을 필자 혼자만이 아닌 많은 건축인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공감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에 작은 힘이 되고 그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건축 분야에 관한 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엮었다고 한다.



전영철 지음 / 312쪽 / 10,000원 / 이나우수 풀 발행
02-2231-9050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6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아산건축사회/(041)532-9200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 · 의성 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a+u

2004년 12월

a + u 의
2004년 마지막 호의 특집은 노르웨이 건축이었다. 특집의 제목은 “노르웨이: 펜(Fehn)과 오늘날의 노르웨이



건축사(Norway: Fehn and His Contemporary Legacies)”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르웨이의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사였던 스베르 펜과 그 후계자들이라 할 수 있는 현대 노르웨이 건축사들의 작품을 소개한 것으로 스베르 펜 이후 발전해 온 노르웨이 건축의 현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특집이다.

■특집: 스베르 펜과 노르웨이의 건축사들

1930년대의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에는 각각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사가 활약하고 있었다.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속한 국가이면서도 노르웨이에는 알바 알토(Alvar Aalto)도, 군너 아스플란트(Gunner Asplund)도, 아르네 야콥슨(Arne Jacobsen)도 나타나질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노르웨이에서도 양차 대전의 사이 기간에 몇몇 우수한 근대건축물이 세워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베 뱅(Ove Bang)이나 라스 벡커(Lars Backer), 페르 그리그(Per Grieg), 혹은 아르제 코르스모(Arne Korsmo)와 같은 근대주의 건축사들은 노르웨이 밖에서 명성을 떨치지는 못했다.

2차 대전 후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되었던 북구의 건축사로는 핀란드의 레이마 피에틸르(Reima Pietile)와 유하 레비스카(Juha Leiviska), 스웨덴의 시구르 레베렌츠(Sigurd Lewerentz)와 랄프 어스킨(Ralph Erskin), 그리

고 덴마크의 욘 욘손(Jørn Utzon)과 헨닝 라센(Henning Larsen)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노르웨이에서 가장 국제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건축사는 스베르 펜(Sverre Fehn)이었고, 크리스티앙 노베르그 슴츠(Christian Nøberg-Schultz, 1926~2000)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건축이론가였다.

이 수 십년간 노르웨이는 급속히 양질의 건축을 다수 만들어 내게 되어갔다. 이제까지 노르웨이의 건축이 지금만큼 해외의 주목을 받았던 적도 없었으며, 또한 젊고 재능이 풍부한 인재들이 배출된 적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질이 향상됨과 더불어 많은 수의 건축사무소들은 기회만 된다면 질 높은 건축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 노르웨이의 거장들

2차 세계대전 당시 학생이었던 이들은 전쟁 이후 우수한 건축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세대교체를 이루며 노르웨이 건축계의 중심에 섰고 이후 오랜 기간동안 노르웨이 건축계를 지배해 왔다. 스베르 펜과 크리스티앙 노베르그스름츠, 그리고 룬드&슬라토(Lund & Slaatto)와 같은 이들은 서로 생각을 공유해 왔으며, 노르웨이의 현대 건축의 기반을 닦아왔다.

펜은 노르웨이가 낳은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재능이 뛰어난 실무 건축사이자 건축 사색가이다. 이에 반해 히엘(Kjell) 룬드와 지금은 고인이 된 그의 파트너 닐스(Nils) 슬라토는 펜에 비하여 훨씬 다양하고 훌륭한 작품을 남겼다. 펜과 룬드&슬



스베르 펜의 국립사천박물관

라토의 작품은 서로 다른 건축적 인식위에 세워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실무에 있어서 이들 모두 구조를 중시하고 있었으며 소재가 갖는 아름다움에 관심을 품고 있었다. 또한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주요한 건축구조에 대해 기성의 방법에 도전하였던 것이다. 건축에 대한 이와 같은 진지함은 크리스티앙 노베르그슐츠의 이론적 작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2차 대전 후 그의 저술은 노르웨이의 건축에 그 이론적인 기반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펜의 건축에 대한 공적이 알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은 매우 강력하게 일어났다. 프리츠커상을 받은 건축사중에 그는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건축사에 속한다. 그의 작품은 1981년 아키텍처럴 리뷰지에 피터 쿡(Peter Cook)이 연재하고 있던 "아직 평가 받지 못한 건축사들"이라는 연속 기획에 소개되면서 기사화 되었으며, 2년 후에는 리즐리(Rizzoli) 출판사가 스베르 펜에 대한 최초의 단행본을 내 놓았다. 스베르 펜이 진정으로 대중 앞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97년이였다. 이 때는 코펜하겐의 로열 씨어



헬렌 & 하드 (Helen & Hard)의 발베르게의 온실



룬드 & 슬라토의 하말 대성당 유적의 보호시설

터의 컴페티션에서 승리하여 프리츠커상을 막 수상한 해였을 뿐만 아니라 하인리히 테세나우 금메달을 수상한 해였고, 그의 작품을 모은 대규모의 순회전이 비첸차의 바실리카 팔라디아나에서 열리고 있었으며, 동시에 그의 전 작품을 담은 서적이 간행되었다.

진정한 오리지널리티를 발휘하기 힘들었던 시대에 펜은 그 작품 속에 커다란 자립성을 보여주었다. 그의 말들은 종종 시적이었으며 그의 스케치는 숙련된 예술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의 건축의 출발점은 미스 반데 로에의 건축이었지만 이미 라르 비크의 화장장 콤파인(1950년)에서 그의 모더니즘은 상징성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삶으로부터 죽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상징하는 한 장의 긴 벽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힘 있고 심플한 표현은 브뤼셀의 세계박람회 노르웨이 파빌리언(1962년)에서도 볼 수 있다. 스베르 펜의 대표적인 노르웨이 하마(Hamar)에 세워진 헤드마크(Hedmark) 박물관은 중세의 폐허와 현대의 소재를 병치한 대범하고 심오한 작품이었다. 펜의 작품에서는 건물의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관계가 주요한 테마이다. 월드 앤드 아트 갤러리(1988년)의 프로젝트에서는 건물은 암반의 배후에 수평의

테라스로서 자태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펜의 작품에서 건물은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식적인 인공적 오브제로서 배치되는 경우가 더 많다.

랜드스케이프를 해석하는 것은 크리스티앙 노베르그슐츠의 이론적인 사색에 있어서 중요한 테마였다. 그의 연구는 '장소의 정신'과 생활을 규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한 그는 숲과 눈의 계절 등 자연의 모습에 시적인 기술(記述)을 남겼다. 덧붙여 그는 랜드스케이프의 분석에도 업적을 남겼는데, 건축과의 관계성에 더하여 크리스티앙 노베르그슐츠의 다면적인 연구는 노르웨이의 문화적인 이해를 핵심으로 하는 영역을 확립하는 데에도 공헌을 하였다. 문화사가(文化史家)인 니나 비토스체크는 이렇게 쓰고 있다. "노르웨이의 자연은 1800년대에 감정적 혹은 이상적으로 (노르웨이의 건축에) 깊이 연결되었으며, 그 이래로 노르웨이 사람들은 자연을 그들의 아이덴티티나 국가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1960년대에 룬드&슬라토는 입방체나 피라미드를 기본으로 하여 컴팩트한 건물을 디자인하였다. 1970년대에는 업무에 있어서 구조적 체계를 발전시켰으며, 1980년대에 접어들어 이

는 새로운 환경과 과제를 만나면서 재구축되게 되었다. 그들은 노르웨이의 목조건축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존재로서, 그들이 작업한 교회 건물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하마에 있는 보존건물은 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최근의 작품이며, 독창적인 건물인 것이다. 거기에는 경사진 각도가 폐허와 유리에 비춰진 (펜이 설계한) 박물관 건물을 대비시키고 있다. 건물의 이면성은 명확한 것이었다. 텐트모양의 보호적인 구조물로 중세의 폐허를 덮어 그것을 보존하는 것으로, 그것은 다시 빛을 투과하는 유리의 성당으로 읽혀질 수 있는 것이다.

▶ 차세대 건축사들

1971년부터 1995년에 걸쳐 스베르 펜은 오슬로 대학(AHO)의 교수로서 교편을 잡았으며, 교육자로서 노르웨이 건축의 한 세대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 정치적인 열기가 들끓었던

1970년대에는 또 다른 건축적 과제들이 던져졌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 사람들은 펜의 가르침으로 회귀해 갔다. 젊은 건축사와 펜과의 다리 역할을 했던 아르네 헨릭센(Arne Henriksen, 1944년생)도 AHO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AHO에 교수로 취임하기 전 헨릭센은 국유철도의 건축사무소(NSB)에서 근무하였다. 거기서 그는 일련의 역사(驛舍)들을 설계하면서 몇 개의 국제적인 상을 수상하였다. 헨릭센은 분명히 노르웨이의 철도건축을 부흥시킨 인물이다. 그 역사 건축에 있어서 그는 구조를 중시하였으며, 그 점에서 스베르 펜의 건축에 자극을 받았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 올라프 옌센이나 칼 비고 홀름백과 같은 젊은 건축사들이 헨릭센과 함께 일하기 위해 NSB에 입사하였다.

안 올라프 옌센(1959년생)은 학생시절부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사람이었다. 1984년 옌센은 같은 학생이었던 펠 크리스찬 브뤼헨센과 함께 인도의 라슬에 요양소를 설계하였고, 그 작품은 아가 칸 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NSB의 건축사무소에 채용된 후 롤비소이 터미널에 42톤 트럭을 위한 차고(1989년)를 설계하였다. 그것은 열려진 랜드스케이프 안에서 작은 타원형의 건물이 확고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유지한 설득력 있는 디자인이었다. 칼 비고 홀름백(1958년생)은 그 수는 적지만 중요한 건물들을 디자인 하였다. 그 중에는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던 부친을 위한 서재(1991년)나, 혹은 이보다 더욱 뛰어난 것으로 국제적인 평가를 얻은 벽돌조의 원형 정원 덮개와 작업장(1995년)이 있다. 후자는 6.5m 높이의 자립한 벽돌조의 실린더이다. 실린더 속에는 2개의 곡선을 축으로 한 목재 보가 2개 층을 지탱하고 있었다. 홀름백의 실린더형 오피스/창고 건물과 옌센의 타원형 차고는 그 선택된 구조기술과 나아가 그 기하학적인 명쾌함으로 인하여 최근 수 십 년간에 노르웨이에 등장한 기적적인 작품으로서 평가된 실용적 건물들이다.

홀름백이 설계한 리 셀 근교에 세워진 여름의 집(1997년)은 국제적으로 그 작품에 걸맞는

높은 상을 수상한 또 다른 작품이다. 그 혁신적인 구조시스템은 플렉시블한 그리드 상의 정방형 기둥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기둥들은 밖으로 부터는 보이지 않는 소나무의 뿌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 주었으며, 오두막의 디자인은 부지 주변의 식생과 토포그래피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노르웨이의 건축사에게 있어서 2차 대전 이후 펜의 작품을 중심으로 쌓여진 전통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했다. 그러나 건축의 국제적인 전개 또한 많은 건축사들을 자극하고 있다.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 노르웨이도 젊은 건축사들은 고려해야 할 범위를 국한시킴으로서 얻어지는 강렬한 표현을 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하고 있는 젊은 건축사사무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스노헷타(Snøhetta)이다. 1989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위한 중요한 컴페티션에서 승리한 이래 그들은 유럽의 주요한 프로젝트의 현상설계에서 당선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젊은 건축사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이다.(번역 / 강상훈)



카리 비고 홀름백의 솔리아의 산장

건축마당 현상설계 competition

열병합수산자원센터	88
수원 가톨릭대학교 도서관	92
영등포구 장애인 복지관	94
안성시립 중앙도서관	98

열병합수산자원센터

Steam Supply Aquatic Product Center

당선작 / 종합건축사사무소 장인(정춘국) +
(주)신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박찬실)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7번지(명지 주거단지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지구, 공원, 산업단지
용도	문화집회시설(전시장),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연구소)
대지면적	65,903.8㎡
건축면적	13,148.98㎡
연면적	14,865.37㎡
건폐율	19.96%
용적률	22.5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규모	지상 4층
내부마감	에폭시계열, 무석면천정판
외부마감	에폭시도료위 스텐망위 부착식물붙이기, 열반사복층유리, 목재널 마감
설계팀	황중철, 박주환, 송진영, 이상혁, 안정환, 박정석, 신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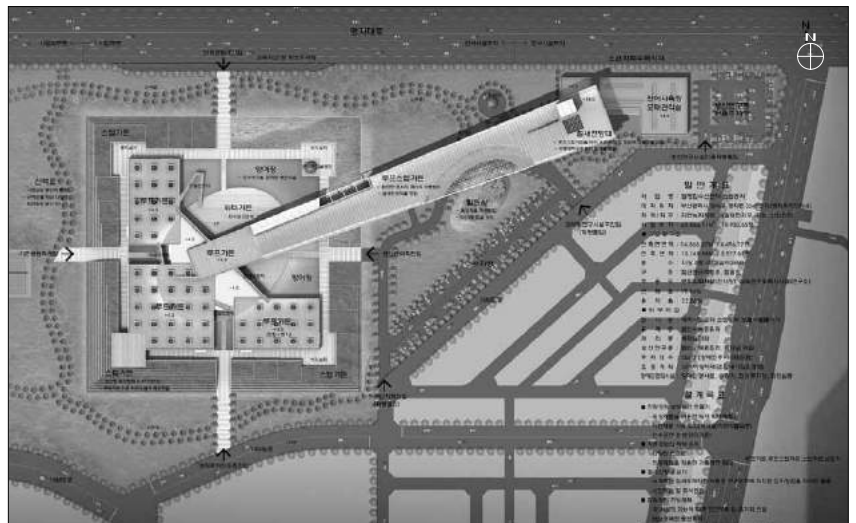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기존 도시근린공원부지에 인근의 열병합발전소의 여열을 이용한 미래형 재배어업 시설인 복합수산종묘생산 기반시설과 가깝기는 인근의 명지주거단지 주민 및 넓게는 부산시민을 위한 친수여가공간조성을 목적으로 현상설계 경기한 결과이다.

흔하지 않은 공간 프로그램의 특성과 기존 공원의 성격을 유지시켜야 하는 고민이 깊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러나 다른 건축사들도 그렇듯 평소에 실현해 보고 싶은 건축적 장치의 설계욕구를 해소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형태성을 강조하는 건축 및 공간성을 강조하는 건축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들을 키우고 있는 요즘, 형태와 공간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건축에 대한 관념도 외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의 건축을 생각하는 나는 건물=건축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으며, 형태가 건축을 지배하는 주요소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공간 역시 건축을 지배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 어느 건축사의 얘기처럼 건물이 대지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의 작업행위가 대지를 점유한다는 말에 대체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최근 몇 개의 설계경계에서 인공자반의 개념을 자주 도입시키고 있다. 주어진 대지와 별도로 건축사의 대지가 새로 생성되는 것이다. 내 생각엔 사람의 호기심은 끝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플랫폼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 가려는 마음이 자절로 생긴다고 본다. 이런 심리를 고려한 과정적 공간의 디자인은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며, 특정 위치까지 가는 과정에 생기는 다양한 행태들을 디자인하다보면 풍부한 건축, 공간이 자절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번 설계도 그와 같아서 슬로우프 및 스텝을 컨셉으로 하여 여러 개의 레벨을 만들어 다양한 동선연결장치와 인간의 행태를 고려한 공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다양한 옥외 휴식공간을 만들었다. 건축은 시간을 디자인한 결과라고도 한다. 세월을 느낄 수 있는 건축의 방법이 여럿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 건축재료를 이용한 시간의 표현방법도 있을 것이다. 나뭇잎으로 덧씌운 외부, 매 시간마다 다른 표정의 건축이 될 것 같다. 또 하나 건물의 외부를 덧씌운 날뻗지는 시간이 감에 따라 퇴색하여 세월의 흔적을 전달할 것이다. 21세기 건축의 화두는 생태건축이라고 한다. 생태건축의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것, 일상을 고려한 그런 건축이 아닐까? 그런 건축이라면 자연과 친화하며 자낸 우리 선조들의 건축, 조영방식이 생태건축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자연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건축,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 건축, 생태건축의 정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평생에 몇 개나 좋은 건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질없는 생각처럼 최근에는 자꾸만 시간에 대한 압박 같은 것이 생기는 터였던지와 작품의 실재성 측면에서 꽤나 고민했던 작업이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단계까지 잘 마무리되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건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배치도



좌측면도



평면도

열병합수산자원센터

Steam Supply Aquatic Product Center

우수작 / (주)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대혁)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7번지(명지
주거단지 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원, 상업단
지지구

용 도 연구 및 전시시설

대지면적 6,590.38㎡

건축면적 12,237.55㎡

연 면 적 14,239.59㎡

건 폐 율 38.17%

용 적 륜 71.46%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규 모 연구생산 1동, 전시관리 1동

내부마감 화강석, 목재패널

외부마감 화강석 마감, 샌드위치패널, 컬러복층 유
리, 목재패널

설 계 팀 김두진, 추교진, 이재영, 최경호, 천승희,
박가영, 주영동

배치개념

근린공원과 연계한 성장형 시설배치로 향후 해
양 테마공원 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로축과 부지축에 순응하면서 기조성된 조경의
둔덕과 산책로를 최대한 살린 배치계획으로 부
지에 순응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공원내 녹지보
행축과 연계로 시설의 인지도 및 접근성을 확보
하였고, 담수원 등 열린공간배치로 생태공원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함.

외부공간계획

조형적 경관, 생태적 경관 창출을 위한 외부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고, 생태체험을 위한 테마공간조성
과 테마경관의 연속적 전개가 이루어지는 공간전
개로 주위의 환경에 순응하는 외부공간을 계획함.

전시관리동

전시시설과 지원시설의 명확한 영역구분 및 상

호연계 고려하였으며, 펌프실, 기계실, 창고시설
을 조닝화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 용이하
도록 계획함. 또한, 어종별 시설 ZONING으로
유지관리에 편의성을 확보하였으며, 쾌적한 실
내환경의 조성을 위해 측창을 통해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되도록 하였으며, 치어배양을 위한
필수적 채광창 확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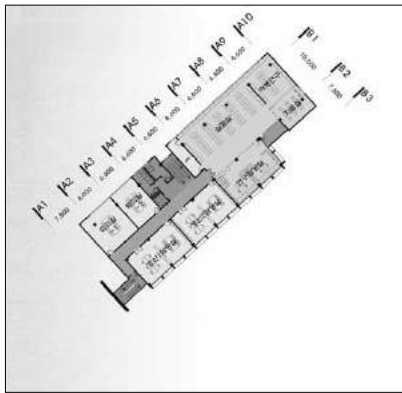
연구생산동

어종연구 실험기능, 친어관리 및 종보존기능, 질
별방역기능, 사무관리기능별 명확한 조닝으로
계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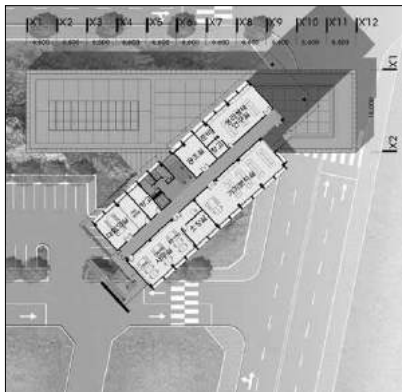
휴게동

기존의 옥외주차장 영역에 조경과 보행로를 계획
하여 인근 주거지와의 간격을 확보하였고, 전시
의 시작부분인 휴게동을 주차장과 친수공간 사이
에 배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접근을 쉽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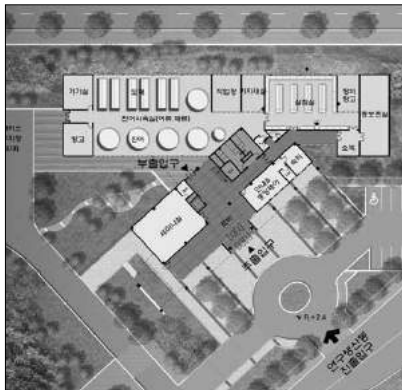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연구 생산동 1층 평면도



배치도



휴게동 정면도

수원가톨릭대학교 도서관

The Library of Suwon Catholic University

당선작 / 그룹포럼종합건축사사무소(도대수) + 박재승(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 226번지 일원

지역지구 준도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서관)

건축면적 1,105.03㎡

연 면 적 3,511.99㎡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내부마감 중보행용비닐슈트, 아크릴페인트, 암면흡음 텍스

외부마감 점토벽돌 차장쌓기, 화강석 마감

설 계 팀 박영삼, 이경철, 송은희

배치계획

1) 부지맥락과의 조화

- 부지형상을 고려한 배치 및 Mass구성
- 대지 축에 순응하는 건물배치

2) 보행자축과 차량축의 형성

- 부지의 북측으로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동선의 단축과 Pick up의 편리성을 고려
- 보행동선을 대지 동측의 도로에서 접근하며,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계획

3) LANDMARK

- 대지에 순응하는 수평적 Mass의 통일성과 변화에 의한 캠퍼스 내의 인지성 확보
- 캠퍼스의 축에 순응하고 개방감, 조망권, 정면성, 상징성 확보

4) 명상의 외부공간

- 도서관 전면 광장에 14개의 설치로 사색과 명상의 외부공간 분위기 창출

평면계획

- 각 실의 특성을 고려, 유사기능들의 상호 연결 배치
- 전문적 기능의 실들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용성을 높임
- 중앙에 코어를 두어 동선의 최단화 및 기능별, 용도별 분리 배치하여 자연채광, 조망에 유리하도록 계획
- 중앙 atrium 공간은 12사도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에 의해서 수원가톨릭대학교의 성격에 맞는 숭고한 종교적 분위기를 연출
- atrium 공간의 천창 채광을 통한 에너지 절약 효과
- 6.0 X 6.6m의 스페이스 모듈에 의한 기능변화에 따른 융통성 및 가변성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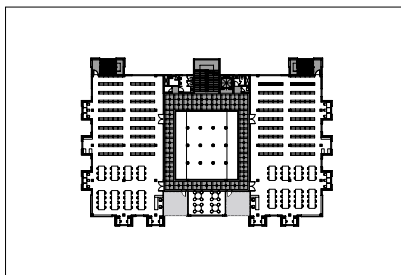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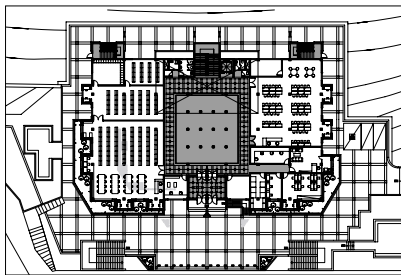
- 전통적인 벽돌조의 도서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자도서관으로서의 이미지의 콜라주적 사용을 통한 입면의 구성
- 적절한 입면분절을 통한 통일감 속의 변화를 통한 리듬감의 부여
- 재료와 색의 상징적의미
 - 전통적 재료인 벽돌의 사용을 통한 과거와 전통에 대한 순명을 표현
 - 흰색벽면마감은 정결을 상징
 - 파스텔블루의 사용은 수원의 위치적 Identity와 청빈을 상징 따라서 위의 3가지 색채는 3주덕의 상징적 표현임

단면계획

- 대지의 지형적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토목공사량 최소화를 통한 합리적 계획
- 각 층의 기능 및 설비 시스템을 고려한 적정 층고 계획
- 탑라이트 설치로 인한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적의 환경조성
- 대지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 최소한의 토공량을 통한 공사비의 절감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Yeongdeungpo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당선작 / 종합건축사무소 명승건축(주)
(주수용)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31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 일반상업, 중심
미관지구
대지면적 2,200.00㎡
건축면적 1,087.13㎡
연면적 3,835.56㎡
건폐율 49.42%
용적률 107.84%
구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내부마감 비닐타일, 폴리싱 타일, 목재플로어링, 다채
무늬도료
외부마감 THK24 로이복층유리, THK20 집성목패널
설계팀 전영호, 남상원, 박원영, 고철욱, 오동원,
권현철, 강혜진, 문중훈

관용(Tolerance), 무장애(Barrier Free)

- 장애인도 비장애인을 위해 뭔가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관용(Tolerance)'이라 정의하며 장애인 복지관의 구축언어로써 그 철학적 핵심으로 삼고자 한다.
- 외부로 향한 '강당'과 '안마당' : 강당이 시설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로 향한 점, 그리고 강당과 연계된 안마당과 개방적인 차폐물을 통한 전이적(轉移的) 접근의 진입마당을 통해 열림의 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역 장애해택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존의 장애인 시설이 갖는 폐쇄적인 성격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것이다.
- 틀림으로써 질서의 무게중심 잡기 : 전체적으로 단아하고 질서정연한 건물의 매스(Mass)는 내부 지향적 즉, 사적 공간의 성격이 강해지며 이러한 질서는 자칫 인간을 질서의 굴레 속에 속박되게 한다. 시설의 단아함, 우리는 그러한 균질함 속에서 강당과 고아의 비정형적인 형태언

어를 통하여 미동(微動)의 질서를 깨뜨려 편중된 질서 속에 조화로움을 구축하는 무장애(Barrier Free)의 질서를 세우고자 한다.

- 투명한 '램프(Ramp)', 그리고 '더블 스킨(Double Skin)' : 대지 서측의 '보현의 집'과 미래의 기능적 연계를 고려하여 램프동선(장애가 포함됨)을 투명하게 설치하고 동선의 흐름이 보현의 집을 향해 보여지게 하여 두 기능이 만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투명한 램프는 시설의 더블 스킨(Double Skin)으로서 에너지 절약에 관한 기능을 도모하게 된다.

평면 계획

- 각 실과 코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평면구성
- 식별성을 높이고 단순한 동선체계로 안전성을 높임
- 공간의 환호성과 유연성을 고려하여 조망 및



자연채광(선근, 남향, 아트리움, 옥상정원)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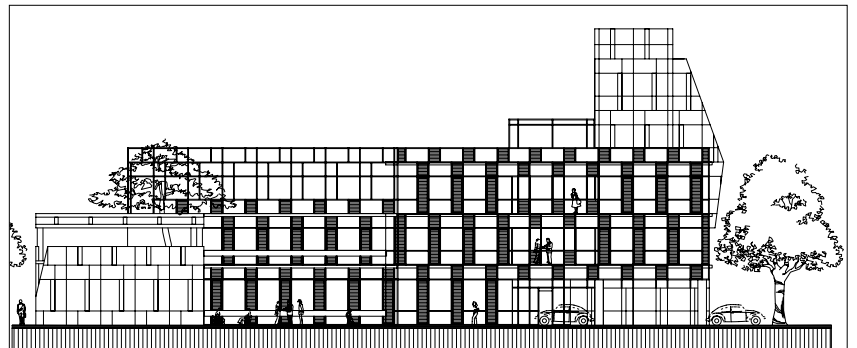
- 각 시설 간의 이동선의 원활한 진입고려
- 차량동선 / 보행자 동선 완전분리

입면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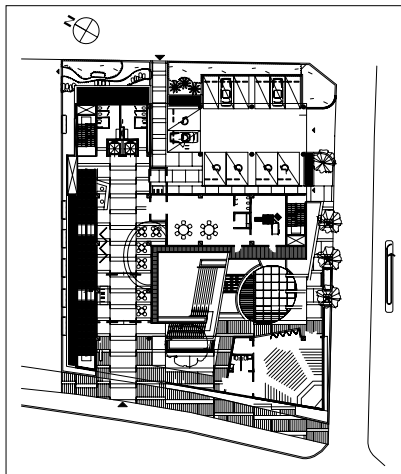
- 자연의 모듈 : 식물의 세포단위를 모듈화하여 친화경적 모듈을 창출
- 부분의 단위모듈로 적용되는 유기적인 차수로 계획
- 유리나 나무를 사용하여 주변의 건축환경에 순응 하면서 동시에 도시입면의 새로운 질서를 부여
- 유리가 갖는 투명성과 그로 인한 밝고 경쾌한 분위기는 시설의 주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더욱 고양시킨다

조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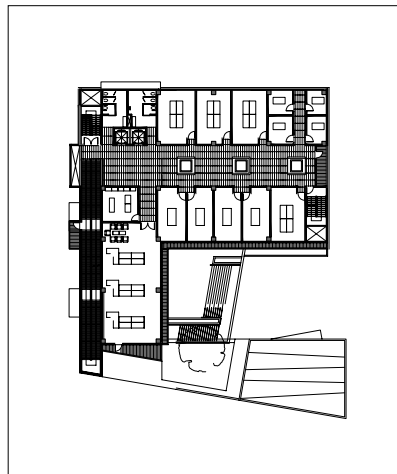
- 건물의 입면은 주변의 도시적 질서를 채용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극대화한 조형적 개념에서 출발되며 리듬이 부여된 조형언어가 구현된다.
- 향에 따라 채광면적을 달리하여 열고 닫히는 입면구성을 통해 열림과 닫힘이라는 생태의 특징적인 흐름을 유발하며 전체적인 생태의 개념을 획득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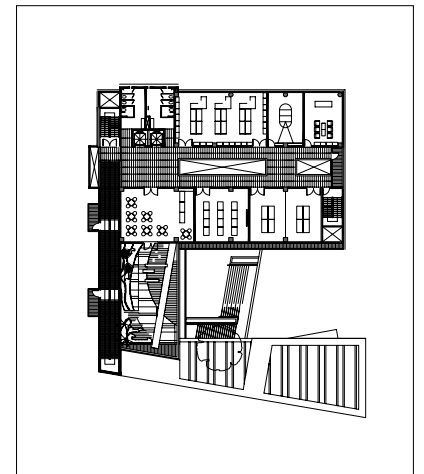
우측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Yeongdeungpo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우수작 / (주)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노윤경)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31번지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지 미관지구
용 도	보건/복지시설
대지면적	2,200.00㎡
건축면적	1,090.45㎡
연 면 적	3,947.60㎡
건 폐 율	49.56%
용 적 륜	104.75%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규 모	지하 2층, 지상 3층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THK3알미늄, THK24컬러 복층유리, 적삼목
설 계 팀	김두환, 이종규, 최지호, 이영제, 류재성, 최정인, 김형곤

사회의 급속한 성장 안에서 그것들과 이질적인 성격의 것들은 배제되고 소외되는 현실의 여러 부분들을 조명해 볼 때, 이 계획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현대사회에 다분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프로젝트일 것이다. 장애인을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더불어 같이 살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인권차원에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유도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지역주민들에게 언제라도 열려있는 편안한 시설이 되도록 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삶의 질 향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바로 치료 공간 이상의 다양한 서비스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시설일 것이다. 복지관 치료시설에서 느끼는 환경적, 심리적 불만을 제거함으로써 복지관 자체가 치료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신체로 다층적인 공간을 직접 체험하면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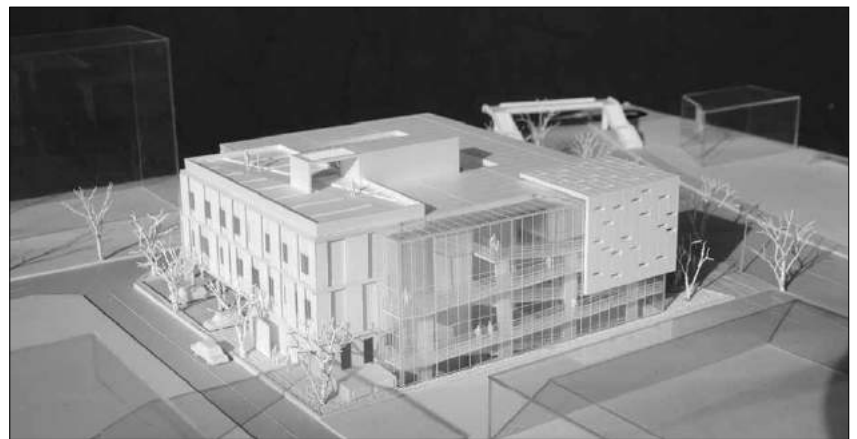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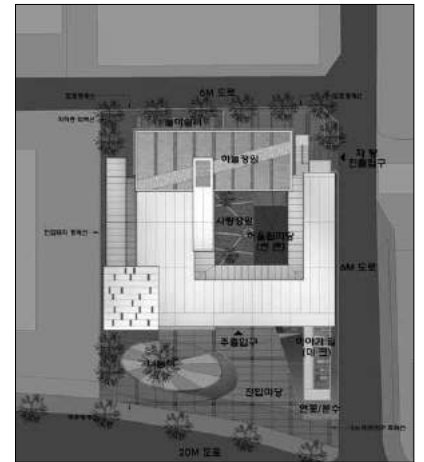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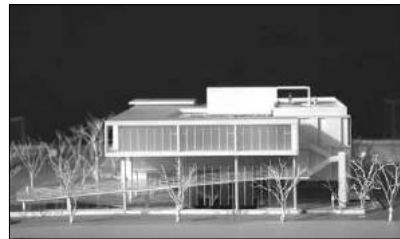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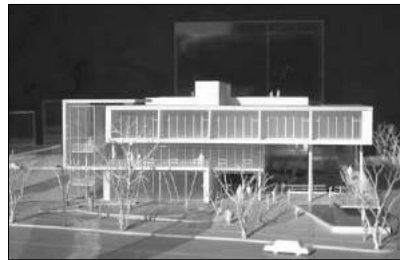
계획대지 바로 옆에 근로자합숙소가 자리 잡고 있고 대지의 동측으로 빌딩과 근로자복지공단 사이로 올림픽대로와 한강변으로의 도시적 VOID공간이 형성되어 트인 조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지 남동측에 근로복지공단의 외부조경으로 비교적 쾌적한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의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본 계획은 다양하게 생성되고 변화해가면서 잠재적인 가능성들을 펼쳐내 보일 것이다.

건축계획의 기본방향

- 공공성 - 지역과 공유하는 공간
- 안전성 - 이용자 중심의 계획, 휴먼스케일의 고려
- 사회참여 -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
- 기능성 - 프로그램의 재해석, 쾌적한 환경조



성, 실의 가변성 고려
 장소성 - 도시 맥락의 순응, 도시 내 랜드마크
 크적 역할 수행
 경제성 - 효율적 공간구성, 구조·설비의 합
 리성, 적절한 층고계획과 재료계획



안성시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Anseong

당선작 / (주)한조종합건축사사무소(하만준) +
디바이엠건축사사무소(김성남 · 서정일)

대지위치 경기도 안성시 금산동 189 (금산공원내)
지역지구 근린공원 / 재종 일반주거지역
용 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6,800㎡
건축면적 2,739.27㎡
연 면 적 4,967.04㎡
건 폐 율 40.28%
용 적 률 73.04%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상부트러스)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외부마감 T3알미늄쉬트 / T24투명복층유리
설 계 팀 한조 : 성주희, 김정현, 임영택, 김광주,
송봉기
디바이엠 : 황 은, 권기태, 김나나, 이수완,
류광민

최근 몇 년 사이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본 프로젝트를 접하게 된 건, 건축인의 한사람으로서 현재의 도서관 문화에 관해 고민하고 정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기존의 금산공원(솔밭공원)과 본 계획안의 첫 남은 도서관 신축으로 인해 할애된 공원의 일부를 재생하는 것으로부터였다. 이는 기존공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이 들어서는 도서관으로의 방문을 유도하는 디자인으로 자연스럽게 발전되어갔다.

쾌적한 독서공간 창출은 당연한 최대목표였으며, 기존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축적 해결방안의 제안도 최적인 계획안을 위한 중요한 테마로서 고려됐던 사항이다.

디자인 진행과정

STEP-1 : 공원과 조우

새로이 들어서는 도서관이 공원의 일부로서(지역주민을 위한), 기존공원이 도서관의 연장으로서(도서관이용자) 기능하기를 기대하며 금산공원을 단면적으로 확장시켜 금산하늘공원을 계획하고 공원산책로상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STEP-2 : 프로그램 해석, 제안

두 가지 측면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다. 우선, 명소화 전략의 일환으로 금산하늘공원내 카페테리아 기능을 생각한다. 이는 도서관 및 기존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요한 사항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제안이 아니라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소, 위치 선정이었다. 다음으로는 열린 이용자ZONE을 철저하게 이용자(고객)의 관점에서 편리한 공간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오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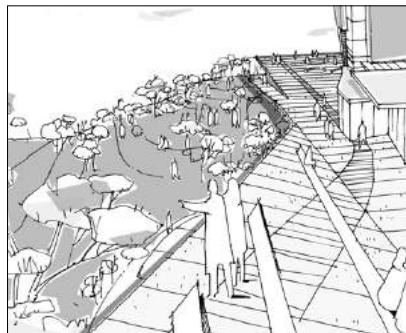
끝에 접근이 용이한 1층에 모든 기능을 펼쳐놓고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본 프로젝트만의 특수한 상황에서 효과적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디자인을 시작한다.

STEP-3 : 마지막을 향하여

1면이 공원과 접하며 3면이 도로인 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4면이 정면인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며, 기존 공원 내 수목의 식생을 고려하여 공원과 맞닿는 부분(북측)은 1개층으로 처리한다. 내부공간 레이아웃은 사용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을 마무리한다. 이전 마무리만하면 되는데 항상 그렇듯이 이후 일정은 막 달리는 수 밖에 없다는 수가 없다. 앞으로의 협의 및 해결과정이 지금까지의 고민보다 훨씬 농도 짙게 전개되어 건강한 건축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서측입면도

제25차 아카시아 이사회

제25차 아카시아 이사회가 Macao 중심가에 위치한 Landmark Hotel에서 2004년 11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공식 회의의 시작 전 회의장은 그간 오랜 친목과 우정이 어우러져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우리협회에서는 공식대표로 송수구 회장대행과 이근창 국제위원장이, 참관인으로 김영덕 부회장, 김지덕 국제자문위원, 민규암, 최재희 국제위원이 참석하였다.

회장인 홍콩의 Barry Will씨는 개막 인사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의 테러에 대한 정치적인 불안과 SARS로 인하여 고통 받은 회원국을 위로하고, 지난해 Forum을 성공리에 수행한 방글라데시에 대한 치하가 있었다. 더불어 서방국가에서 세계화와 현대화를 주장하면서 변질되고 있는 아시아의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본 연합회가 더 많은 노력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어 Macao 건축사협회 회장 Eddie Wong은 겨우 190명의 등록건축사가 있는 마카오에서 이처럼 큰 행사를 치르게 되어 영광이며, 본 행사를 통해 한나라 안에 두 개의 제도(一國二制)를 시행하고 있는(중국에 속하여 있지만 별도의 제도를 시행) 마카오 건축계가 선진화를 향해 활성화되는 계기로 본다고 하였다. 많은 건축물들이 포르투갈이 지배하던 시절에 지어져 그들의 양식이 반영되어 있고, 유산 보호 차원에서 보호되고 있으나 이제 새로이 설계되는 건물에는 아시아 본연의 건축 양식을 찾는데 회원국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UIA 제4지역 부회장인 호주의 Louise Cox는 UIA 보고를 통해, 현재 UIA 5개 지역 중 4지역은 아카시아를 중심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전체 건축사 수로 볼 때도 가장 큰 조직이므로 UIA내에서 영향력을 확보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이

회의에서 논의되는 중요 내용들은 UIA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인은 2005년 7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UIA 총회에서 회장으로 출마 할 것이며, 여러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회장은 이어 세계 총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조직인 제4지역은 세계 건축에 좀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아카시아 총회는, 주최국인 마카오에 건축대학이 없는 관계로 홍콩 건축사협회에서 행사의 일부인 학생 챔버리를 담당해준데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2명 이상의 학생을 챔버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이번 학생 챔버리에 30명이 넘는 학생을 보내준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와 회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학생 챔버리는 학생들이 행사를 통하여 각국의 실무건축사를 직접 만나고 국가 간 새로운 세대의 건축이해의 교류장이 되므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미래의 아시아 건축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본 행사의 진입부 환영축사를 끝으로 본 회의에 들어갔다. 이사회의 회의 진행 순서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재무담당 Mr. Wong으로부터 회비 징수상황과 재정보고가 있었다. 현재 잔고는 HK\$ 180,411.52로서 5개국 2004년 회비를 미납했고, 작년 방글라데시에서 주관한 ARCASIA Award를 위한 경비에서 심사위원의 교통비 및 체재비로 적자가 된 US\$ 15,000를



이사회 전경

지원해 주기로 했다. 금회 이후부터는 ARCASIA Award를 위한 지원금을 US\$10,000 미만으로 정하기로 하고 차기 해당 국인 태국에서는 예산을 고려하여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각 Zone별 부회장 보고에서는 Zone 'A'의 부회장인 인도의 Balbir Verma씨는 5개국에 참여하여 30여 항목을 논의했으며, 거의 모든 사항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생각하기로 하였다. Zone 'B' 부회장인 싱가포르의 John Ting씨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국제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10월 27일, 28일 약 450명이 참석한 UIA 지역 Forum에서 13개국에서 27명의 연사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중 본 회원국 6개국의 연사의 발표 내용이 가장 훌륭했다고 보고 했다. 행사와 더불어 진행된 분야별 장관과의 광범위한 주제(D/B, 현상설계, 지속 가능한 건축, 교육, 건설 산업 등)에 대한 회의는 아주 유익했으며, 우리 전문단체와 정치권과의 연계 또는 협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우리의 주장 또는 의견이 제 도전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량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설명하였다.

Zone 'C'의 부회장인 Macao의 Carlos Marreiros는 주로 Macao의 현실에 대한 설명으로 소규모인 협회의 실상, 건축학교의 부재, 기존건물의 보존, 중국과의 관계개선(일국이체제 내에서의 제도) 등을 설명함으로써 Zone의 대표성이 결여 되어있었다.



제25회 아카시아 이사회 보드

회장은 회의 개최를 위해 모든 내용을 전자 메일로 송부하였으나 일부 회원국에서 많은 Spam에 의해 사전에 받지 못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 최종 한 부는 유인물로 보내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는 경비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본 회의에서 회의자료를 송달방법이 결정하기로 하였고, 필자가 제시한 ARCASIA Web Site 활용방안은 차기 회장단에게 적극 도입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어 각 회원국의 국가별 보고에서는 기 제출된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 사항만 요약하기로 하였고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국 : 내년(2005년) 4월에 상해에서 위성도시(City Edge : Satellite City)에 대한 Symposium에 대한 내용과 내후년(2006년)에 본 회의에 대한 내용과 제안 설명이 있었다. 또한 2006년까지는 차기 올림픽을 위한 주경기장이 완공 될 것이며, 더불어 중국 정부는 호텔을 포함한 부속시설을 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학생 잼버리 행사의 정부 지원을 위해 작년 방글라데시에서 시행했던 모델을 정부에 제출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있음을 설명 하였다.

홍콩 : 자체 내에 기존 유명 역사 유산 센터 설립을 준비 중에 있어 건축물 보호에 힘쓰고 있고, 중국과의 일국 이체제 내에서 건축사 상호 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말까지는 건축사 계속 교육에 대한 틀을 확정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인도 : 건축설계와 건설자재 업체 간 합동으로 건축상 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1년 대지진 이후 지진에 대비한 건축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인도네시아 : UIA에 교류 중인 회원국 가입에 대한 ARCASIA의 협조에 감사한다.

일본 : 건축사 및 기술사(Architect's

Building Engineer)의 자격에 대해 재해석하여 2003년 12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4,500명의 JIA 회원 이외의 회원도 자격기준에 적합하면 JIA에 입회하도록 하고 있고, 계속 교육은 108점을 획득하고(매년 36점 이상 요구) 회원에게 재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JIA 협회 이외의 기구들도 계속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내년 2월에는 한국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모델로 동경 내 고가도로에 대한 철거와 하천 복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2011년 UIA 총회를 유치하고자하니 모든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국 : 올해는 전체 응시자의 약 8%인 421명의 건축사가 배출되었다. 약 70여개 대학이 국제기준에 맞추어 학제를 5년 전일제로 개편하였고 추가로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리라 예상된다. 건축 관련 법규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이 통합한 새로운 국토의 이용에 대한 법률이 재정되어 국토 전체를 단일법으로 적용하게 된다.

마카오 : 건축물기준 특히 소방관련 기준을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강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 국제적인 전문가 용역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환으로 현재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관련회의에 15명의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국내현상경기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국제심사위원 초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UIA 차기 회장에 알바크리씨가 도전할 것이고, UIA 이사에 모하메드 에자가 입후보 할 것이다. 회원국의 협조를 바란다.

몽고 : 지난해에 참석 못하여 죄송하다. 협회의 회원수는 그간 3년에 걸쳐 200명이 증가하여 현재 500명이다.

파키스탄 : 중국에서 제안한 차기 ARCASIA 총회의 날짜를 라마단 기간인 10월 5일~11월 5일까지는 피해주기 바란다. 현재 협회 Web Site를 구성하고 있으며, 유산이 될 수 있는 건물의

해제를 못하도록 법을 제정했고, 건축과 교수와 학생들을 실무건축사들과 건축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Workshop을 가동하여 유명 건축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싱가폴 : 내년이면 창립 72주년을 맞아 회원의 계속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타일랜드 : 내년 ARCASIA Forum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추후 별도로 보고하겠다.

기타 국가들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국가별 보고를 끝내고 고문인 홍콩의 Ronald Poon은 다음 회기부터는 모든 제출물은 디스켓으로 하고 주요부분만 Power Point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Architecture Asia 잡지의 보고에서는 모든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고 내년 분기별 테마를 1분기 : Heritage, 2분기 : Urbanism, 3분기 : Restoration, 4분기 : Buildings and Landscapes로 정하였으니 미리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잡지는 유가 지로써 각국의 대학과 필요한 곳에 홍보하여 많은 부수가 판매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카시아 상에 대한 검토에서 방글라데시에서는 일부 작품이 제출양식에 적합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회원작품 이외의 작품이 제출되어 확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였다. 이상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인 추세에 걸 맞는 환경에 관한 설계 작품에 대한 Category의 추가를 요청하였다.

다음 회의에 대한 타일랜드의 보고에서는 차기 회의의 주제는 "Simplicity and Complexity"이며, 700년 고도인 치앙마이에서 개최할 것이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함께 Power Point로

현지 회의 장소 등이 소개되었다. 회기는 2005년 11월 29일~12월 3일이며, 차기회장단과 일정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주제에 대한 논의에서는 Simplicity and Complexity는 너무 광범위하다는데 의견이 있었고, 주제 발표자는 미리 선정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기로 하였다.

고문단(Fellowship)회의 보고에서는 고문단 가입의 문호를 개방하기로 하고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차기 회의부터는 고문단 참석 인원을 개인이 아닌 각 회원국에서 최소 1명씩 참석하도록 한다. 건축 교육을 위한 항구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아카시아 상에 조경부분, 친환경부분, 가장 아름다운 건물 등 새로운 3개 부분을 추가하고, 시상된 작품에 대한 홍보를 TV 또는 건축 잡지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의 질을 향상시킨다. 아카시아 내규 및 집행 절차서를 적절히 수정한다. PAM에서 운영하고 있는 Web Site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 한다. APEC 건축사에 대한 논의를 개진한다.

이어 아카시아 내에 실무위원회 지속 가능한 건축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함께 추가로 두기로 하였다. 새로운 신입회원 신청에 대한 보고에서는 네팔과 부탄이 회원가입을 준비 중이며, 라오스, 캄보디아, 몰디브, 이란, 러시아, 브루나이, 미얀마 등이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로서

는 회원 입회를 위한 공식적인 신청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한다면 참관인으로 참석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지회에서 참가 요청이 있었으나 지회의 회원 자격 여부는 규정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고, 아카시아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UIA 기준이 아닌 UNI 규정한 아시아 국으로 하자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하였다.

중국의 차기 총회에 대한 설명에서는 가능한 한 경비를 항공료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타일랜드의 제안에 따라 중국측에서 제안한 Hotel 보다 더욱 적합한 호텔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차기 회장인 필리핀의 Yolanda씨는 향후 본인의 임기 중에 수행할 목표로 건축전문직의 역할, 전문가로서의 업무, 건축전문단체의 역할 등을 상세히 다루자고 제안했다.

차기 부회장으로는 Zone 'A'에 인도, Zone 'B'에 태국, Zone 'C'에 일본이 선출되었다.

기타 안건으로 만기가 된 UIA 이사의 한자리는 홍콩, 말레이시아, 스리랑카가 경합을 했고, 회장직에는 말레이시아와 호주가 입후보하여 본 회의에서 ARCASIA에서 한명만 미리 선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UIA 정신에 따라 별도로 지명하지는 않고 그들의 회견만 들었다.

회의는 회장의 매끄러운 회의 진행에 따라



아카시아 이사회
(중간 아카시아회장 Barry Will)



아카시아 이사회 한국대표
(이근창, 송수규)

모든 의결 사항들이 원만하게 결의되었다. 특히 200명이 되지 않는 건축사로 구성된 마카오 협회에서 처음 치룬 ARCASIA 행사로는 모든 순서와 회의장의 준비는 수준급 이상이었다. 특히 Forum 행사에서는 여러 회원국에서 많은 석학들이 참여하여 세계화에 따른 회원국의 다양한 연구사례가 진지하게 발표 되었고, 국제행사에 보기 드물 정도로 학생들의 참여가 인상적이었다.

행사 진행을 돕는 도우미들은 건축학을 전공하는 자원봉사 학생을 훈련시켜 투입함으로써 학생의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돋보였다.

마카오 건축사협회는 이 행사를,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는 중간 매체로 활용 하기위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아시아 국가의 건축 활동사항을 홍보하기도 하여 건축사협회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협회도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참여하여 국내에 산적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참석 전에 사전 회의 자료를 E-Mail로 전송하여 디지털 시대에서의 국제회의의 양상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시다시피 국내 건축 3단체가 FKA(한국건축단체연합)를 구성하여 그 세부 역할을 조정하고 있고, WTO 산하에서 급변하는 국제 건축동



아카시아 신임 Yolanda와 함께한 아카시아 참석자 (김지덕 자문위원, 이근창 국제위원장, 송수구 회장대행, Yolanda, 김영덕 부회장)

향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조정, 개진, 건의해야 하는 통로로 우리가 속해있는 국제회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국제단체에 가입한 기본 정신이며 후배들에게 물려 줄 소산의 일부이기도하다.

지난 10여년 이 협의회를 참석하며 느끼는 점이지만 참석할 때마다 본 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나라의 대표단은 동일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Jaigham Jaffery, Ronald Poon, Goh Jeong Chia, Reyos Yolanda, Jhone Ting, Tony Wong, Ruwis Khambatta, Mohamed Esa, Hisham, Albakri, Koichi Nagashima, Lakshman, Alwis, Surath, Barry Will, Tay Kheng Soon 등 본 회의에 한번이라도 참석한 회원들은 그들의 이름을 어렵거나나마 기억할 것이다. 이들이 지금도 아시아 17개국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이끌고 가며 계속적으로 국제사회(UIA, CAA, SERTH 등)의 건축 관련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들은 UIA에서 '국제 건축사 상호 인정 표준안' 작성에 있어 아시아 국가를 대변하여 세부지침, Guideline 작성에 적극 참여하여 'Host Nation에 대한 특례 조항', '건축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이 많은 아시아 국가 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인지 할 수 있다.

자국의 건축 관련 단체 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이에 개인의 열정을 결합하여 이루어지



아카시아 이사회 참석한 각국 대표들

고 있는 국제적 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일구어 낼 수 있는 것임을 실감할 수 있으며, 즉 개인과 국가간의 친분에 따른 외교력의 산물일 것이다. FIKA가 발족되기 이전 국내에서는, UIA는 회원 협회인 한국건축가협회(KIA)가 창구이었으며, ARCASIA는 대한건축사협회(KIRA)가 담당하였으나 FIKA가 발족된 이상 점진적으로 일원화된 목소리로 국제사회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번 보고서를 빌어 국제 문제에 식견이 많고 경험이 많은 회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Inner Circle), 즉 내부 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국제문제의 사안별 적임자 선정, 국내이익을 극대화한 대안제시, 국제사회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접근 방향 모색 등 국내 제도개선과 함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세계 통상 환경은 다자주의를 주장하는 WTO와 지역주의를 주장하는 FTA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고 본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최혜국 대우(FTN)를 원칙으로 하는 WTO의 실현 보다는 포괄적인 지역 경제 통합 형태를 지향하는 FTA로의 접근이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 세계를 하나 경제 질서로 엮으려는 WTO의 꿈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금번 칠레와의 FTA 체결에 건축 설계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또 누가 이의 제기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글 : 이근창 / 우리협회 부회장, (주)업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최재희 / 우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전임강사)

2005년 건축허가 현황(1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월)			누계 (1~1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8,631	8,782	5.0%	8,631	8,782	5.0%
	연면적	6,741,842	8,401,932	24.6%	6,741,842	8,401,932	24.6%
주거용	동 수	2,241	2,100	-6.3%	2,241	2,100	-6.3%
	연면적	1,677,476	4,056,349	141.8%	1,677,476	4,056,349	141.8%
상업용	동 수	2,697	2,527	-6.3%	2,697	2,527	-6.3%
	연면적	1,934,595	1,555,335	-19.6%	1,934,595	1,555,335	-19.6%
공업용	동 수	1,698	1,627	-4.2%	1,698	1,627	-4.2%
	연면적	1,480,314	980,325	-33.8%	1,480,314	980,325	-33.8%
문교및 사회용	동 수	567	786	38.6%	567	786	38.6%
	연면적	582,632	638,346	9.6%	582,632	638,346	9.6%
기 타	동 수	1,158	1,742	50.4%	1,158	1,742	50.4%
	연면적	1,066,825	1,171,577	9.8%	1,066,825	1,171,577	9.8%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월)			누계 (1~1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8,361	8,782	5.0%	8,361	8,782	5.0%
	연면적	6,741,842	8,401,932	24.6%	6,741,842	8,401,932	24.6%
철 근 철골조	동 수	7,484	7,815	4.4%	7,484	7,815	4.4%
	연면적	6,667,440	8,323,708	24.8%	6,667,440	8,323,708	24.8%
조적조	동 수	778	822	5.7%	778	822	5.7%
	연면적	64,624	60,782	-5.9%	64,624	60,782	-5.9%
목 조	동 수	99	145	46.5%	99	145	46.5%
	연면적	9,778	17,442	78.4%	9,778	17,442	78.4%
기 타	동 수	0	0		0	0	
	연면적	0	0		0	0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월)			누계 (1~1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8,361	8,782	5.0%	8,361	8,782	5.0%
	연면적	6,741,842	8,401,932	24.6%	6,741,842	8,401,932	24.6%
수도권	동 수	3,095	3,200	3.4%	3,095	3,200	3.4%
	연면적	3,424,985	4,418,246	29.0%	3,424,985	4,418,246	29.0%
서 울	동 수	566	473	-16.4%	566	473	-16.4%
	연면적	1,091,462	699,224	-35.9%	1,091,462	699,224	-35.9%
인 천	동 수	337	269	-20.2%	337	269	-20.2%
	연면적	316,290	302,213	-4.5%	316,290	302,213	-4.5%
경기도	동 수	2,192	2,458	12.1%	2,192	2,458	12.1%
	연면적	2,017,233	3,416,809	69.4%	2,017,233	3,416,809	69.4%
지 방	동 수	5,266	5,582	6.0%	5,266	5,582	6.0%
	연면적	3,316,857	3,983,686	20.1%	3,316,857	3,983,686	20.1%
부 산	동 수	432	344	-20.4%	432	344	-20.4%
	연면적	605,935	455,966	-24.8%	605,935	455,966	-24.8%
대 구	동 수	325	282	-13.2%	325	282	-13.2%
	연면적	202,857	345,141	70.1%	202,857	345,141	70.1%
광 주	동 수	177	293	65.5%	177	293	65.5%
	연면적	79,169	399,604	404.7%	79,169	399,604	404.7%
대 전	동 수	192	169	-12.0%	192	169	-12.0%
	연면적	101,808	140,868	38.4%	101,808	140,868	38.4%
울 산	동 수	268	249	-7.1%	268	249	-7.1%
	연면적	72,492	118,900	64.0%	72,492	118,900	64.0%
강 원	동 수	398	362	-9.0%	398	362	-9.0%
	연면적	146,624	275,999	88.2%	146,624	275,999	88.2%
충 북	동 수	390	379	-2.8%	390	379	-2.8%
	연면적	416,852	359,460	-13.8%	416,852	359,460	-13.8%
충 남	동 수	535	522	-2.4%	535	522	-2.4%
	연면적	527,085	251,382	-52.3%	527,085	251,382	-52.3%
전 북	동 수	341	468	37.2%	341	468	37.2%
	연면적	104,908	274,675	161.8%	104,908	274,675	161.8%
전 남	동 수	470	525	11.7%	470	525	11.7%
	연면적	212,063	300,023	41.5%	212,063	300,023	41.5%
경 북	동 수	701	838	19.5%	701	838	19.5%
	연면적	374,537	442,197	18.1%	374,537	442,197	18.1%
경 남	동 수	748	921	23.1%	748	921	23.1%
	연면적	378,428	554,870	46.6%	378,428	554,870	46.6%
제 주	동 수	289	230	-20.4%	289	230	-20.4%
	연면적	94,099	64,601	-31.3%	94,099	64,601	-31.3%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5년 1월말

구 분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 역 사무소	합 계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건 축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096	5,096	226	450	27	83	2	8	0	0	5,351	5,637	1,460	1,460	275	543	80	241	27	108	16	80	7	42	6	42	5	47	1,876	2,563	9	9	7,236	8,209	100.0%	100.0%
서울	1,256	1,256	67	134	14	44					1,337	1,434	856	856	172	344	48	144	17	68	8	40	4	24	6	42	3	27	1,114	1,545	8	8	2,459	2,987	34.0%	36.4%
부산	532	532	27	54	3	9					562	595	69	69	11	22	7	21	3	12	4	20	2	12					96	156			658	751	9.1%	9.1%
대구	429	429	32	64	4	12	2	8			467	513	40	40	19	38	4	12	1	4	2	10							66	104			533	617	7.4%	7.5%
인천	219	219	2	4	1	3					222	226	52	52	5	10													57	62			279	288	3.9%	3.5%
광주	192	192	3	6							195	198	33	33	11	22	3	9	3	12			1	6					51	82			246	280	3.4%	3.4%
대전	204	204	18	36	2	6					224	246	25	25	7	14	2	6	1	4						1	11	36	60			260	306	3.6%	3.7%	
울산	151	151	6	12	1	3					158	166	15	15	2	4	2	6											19	25			177	191	2.4%	2.3%
경기	650	650	27	52							677	702	217	217	28	49	8	25			1	5							254	296			931	998	12.9%	12.2%
강원	155	155	5	10							160	165	23	23	3	6					1	5							27	34			187	199	2.6%	2.4%
충북	162	162	8	16							170	178	18	18	6	12	1	3	1	4							1	9	27	46			197	224	2.7%	2.7%
충남	153	153	4	8							157	161	31	31			2	6	1	4									34	41			191	202	2.6%	2.5%
전북	179	179	3	6							182	185	21	21	3	6	1	3											25	30			207	215	2.9%	2.6%
전남	131	131									131	131	8	8			1	3											9	11			140	142	1.9%	1.7%
경북	267	267	9	18	1	3					277	288	27	27	1	2	1	3											29	32	1	1	307	321	4.2%	3.9%
경남	314	314	14	28	1	3					329	345	19	19	7	14													26	33			355	378	4.9%	4.6%
제주	102	102	1	2							103	104	6	6															6	6			109	110	1.5%	1.3%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건축사회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199	10	8,209	100.0%	29
서울	2,984	3	2,987	36.4%	16
부산	750	1	751	9.1%	9
대구	617	0	617	7.5%	0
인천	288	0	288	3.5%	0
광주	280	0	280	3.4%	0
대전	305	1	306	3.7%	0
울산	191	0	191	2.3%	0
경기	996	2	998	12.2%	2
강원	199	0	199	2.4%	0
충북	224	0	224	2.7%	0
충남	199	3	202	2.5%	0
전북	215	0	215	2.6%	0
전남	142	0	142	1.7%	0
경북	321	0	321	3.9%	1
경남	378	0	378	4.6%	0
제주	110	0	110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637	2,563	9	8,209	
비 율	68.7%	31.2%	0.1%	100.0%	
사무소수	5,351	1,876	9	7,236	
비 율	73.9%	25.9%	0.1%	100.0%	